

2012년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록

- 일 시 : 2012. 4. 5(목) 14: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김정동(위원장), 김영나, 김용수, 김정신,
윤경로, 박문열, 이수자, 장헌덕, 한시준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목 차

【심의사항】

1	근대체육유물 문화재 등록	공개
2	「부산 전차」 문화재 등록	공개
3	등록 제169호 「대전 선화동 구 사범부속학교 교장 사택」 등록말소	공개
4	사적 제258호 「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	공개
5	사적 제213호 「우정총국」 문화재구역 내 동상 설치 현상변경	공개

【검토사항】

6	근대조각유물 문화재 등록	공개
7	「서울 상암동 구 군인 관사」 문화재 등록	공개
8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초 교구청」 문화재 등록	공개
9	항일독립운동 유적 문화재 등록	공개

【보고사항】

10	등록 제330호 「부산 정란각」 보수정비 계획	공개
11	등록 제145호 「남지철교」 보수정비 추진현황	공개
12	사적 제248호 「대한의원」 관리단체 해제	공개
13	2012년도 근대문화재과 보수정비 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현황	공개
14	문화재위원회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공개

심 의 사 항

【심의사항】

안건번호 근대2012-02-001

1. 근대체육유물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근대체육분야 유물 중 역사적·사료적·체육사적 가치가 큰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근대문화유산 체육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2010년)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지조사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유물에 대하여 등록예고 기간('12.2.16~3.17)을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유물' 등 5건 8점

번호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제작년도	소장자/보관처	비고
1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유물	금메달	1점	지름 5.5cm 두께 0.24~0.42cm	금속	1936년	손기정 기념재단
		상장	1점	50×38cm	종이		
		월계관	1점	지름 26cm	나뭇잎		
2	제14회 런던올림픽 후원권	1점	12.1×7cm 틀 22.8×17.5cm	종이	1947년	한국체육박물관	
3	이원순 유물	여행증명서	1점	21×30cm, 2매	종이	1947년	한국체육박물관
		런던올림픽 단복	1점	길이 71cm 도련너비 53.5cm	모직	1948년	독립기념관
4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 페넌트	1점	아랫면 143cm 높이 43cm 윗면 143.5cm	융	1948년	한국체육박물관	
5	제1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우승컵	1점	높이 24.5cm 지름 19.2~24cm	금속	1956년	한국체육박물관	
계		5건 8점					

(3) 주요 추진경과

- '11.2.24~8.23 근대문화유산 체육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

(169건 목록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11.12.19 근대문화유산 체육분야 문화재 등록추진 자문회의
 - 자문위원 : 문화재위원 ○○○,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서울대학교 ○○○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 교수(서면검토)
 - 자문결과 : 등록 검토대상 유물 선정 기준(안) 마련, 등록조사 대상 13건 선정
- '12.1.12/1.16 근대체육유물 문화재 등록조사(3개소, 7건 9점)
 - 조 사 자 : 문화재위원 ○○○(서지학), 한국체육대학교 ○○○ 교수(체육사), 중앙대학교 ○○○ 교수(체육사), 문화재전문위원 ○○○(한국경제사), 문화재전문위원 ○○○(보존처리),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한국복식사), 서울여자대학교 ○○○ 교수(한국복식사)
 - 자료고증 : ○○○(런던올림픽 역도 동메달리스트),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12. 2. 2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문화재위원회 검토

○ 등록예고

- 기 간 : '12.2.16~3.17(30일간)/'손기정 유물' 등 5건 8점
- 예고결과(손기정 기념재단 제출의견)
 - 손기정 기념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손기정 선수 관련 유품들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문화재명을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상징물」로 변경 요망

(4) 심의내용 : 문화재 등록 심의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1.12/1.16)>

- 문화재위원 ○○○ 등 의견 : 불임 참조

<관계전문가 검토의견('12.1.13)>

- ○○○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의견 : 불임 참조

<근대문화재과 검토의견>

- 손기정 기념재단에서 제출한 유물 명칭을 일부 반영하여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유물」로 등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유물' 등 5건 8점은 역사적·체육사적 가치가 높으므로 문화재로 등록될 가치가 크므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등록 가결
- 출석 9명, 찬성 9명

불임 : 근대체육유물 문화재 등록조사 보고서('11.1.12/1.16) 1부

<붙임>

근대체육유물 문화재 등록조사 보고서

1. 목 적

- 우리나라 체육 분야 중 역사적·사료적·체육사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등록·보존하고자 함
- 근대체육유물의 문화재적 평가 및 가치 부여를 통해 근대 동산문화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심을 제고

2. 추진경과

- '11.2.24~8.23 근대문화유산 체육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 (169건 목록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11.12.19 근대문화유산 체육분야 문화재 등록추진 자문회의
 - 자문위원 : 문화재위원 ○○○,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서울대학교 ○○○ 교수, 한국체육대학교 ○○○ 교수(서면검토)
 - 자문결과 : 등록 검토대상 유물 선정 기준(안) 마련, 등록조사 대상 13건 선정
- '12.1.12/1.16 근대체육유물 문화재 등록조사(3개소, 7건 9점)
 - 조 사 자 : 문화재위원 ○○○(서지학), 한국체육대학교 ○○○ 교수(체육사), 중앙대학교 ○○○ 교수(체육사), 문화재전문위원 ○○○(한국경제사), 문화재전문위원 ○○○(보존처리),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관 ○○○(한국복식사), 서울여자대학교 ○○○ 교수(한국복식사)
 - 자료고증 : ○○○(런던올림픽 역도 동메달리스트),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12.2.2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위원회 검토(등록 예고기로 함)
- '12.2.16~3.17 등록예고
 - 예고결과(손기정 기념재단 제출의견) : 손기정 기념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손기정 선수 관련 유품들과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문화재명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상징물」로 변경 요망

3. 조사개요

가. 조사일자 : '12.1.12(목), 1.16(월)

나. 조 사 자

- 문화재위원 ○○○(서지학)
- 한국체육대학교 ○○○ 교수(체육사)
- 중앙대학교 ○○○ 교수(체육사)
- 문화재전문위원 ○○○(한국경제사)
- 문화재전문위원 ○○○(보존처리)
- 국립민속박물관 ○○○ 학예연구관(한국복식사)
- 서울여자대학교 ○○○ 교수(한국복식사)

다. 조사내용 : 체육유물 실사 및 문화재적 가치 검토, 관계자 인터뷰 등

번호	유물명	수량	규격	재질	제작년도	소장자/보관처	비고
1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유물 금메달	1점	지름 5.5cm 두께 0.24~0.42cm	금속	1936년	손기정 기념재단	

		상장	1점	50×38cm	종이			
		월계관	1점	지름 26cm	나뭇잎			
2	제14회 런던올림픽 후원권		1점	12.1×7cm 틀 22.8×17.5cm	종이	1947년	한국체육박물관	
3	이원순 유물	여행증명서	1점	21×30cm, 2매	종이	1947년	한국체육박물관	
		런던올림픽 단복	1점	길이 71cm 도련너비 53.5cm	모직	1948년	독립기념관	
4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 페넨트		1점	아랫면 143cm 높이 43cm 빗면 143.5cm	융	1948년	한국체육박물관	
5	제1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우승컵		1점	높이 24.5cm 지름 19.2~24cm	금속	1956년	한국체육박물관	
계			5건 8점					

4. 등록기준(안)

- 문화적·사회적·학술적 가치, 체육사적 가치가 우수한 유물
- 시대적 특수성을 담고 있는 유물, 단 파견서류 등 기록물은 제외
- 국내에서 제작·사용된 유물뿐만 아니라 국제스포츠행사에서 획득한 유물
 - 단, 단순 참가기념품 등은 제외
- 해외에 널리 알려지거나 활약한 선수의 유물
- 동종의 유물이 있을 경우 시기적으로 앞서며,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한 원본
- 유물의 제작과 사용 이력이 뚜렷하고 용도가 구체적인 것
- 체육교재(교과서 등)는 대한제국 국정 교과서(24종)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5. 조사결과

번호	유물명		조사자의견							비고
			○○○	○○○	○○○	○○○	○○○	○○○	○○○	
1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유물	금메달	○	○	-	○	○	-	-	
		상장	○	○	-	○	○	-	-	
		월계관	△	○	-	○	-	-	-	
2	제14회 런던올림픽 후원권		○	○	○	-	-	-	-	
3	이원순 유물	여행증명서	○	○	○	-	-	-	-	
		런던올림픽 단복	○	-	-	-	-	○	○	
4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 페넨트		○	○	-	-	○	-	-	
5	제1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우승컵		○	○	-	-	○	-	-	

6. 유물별 주요특징 및 가치

가.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유물

- 1) 분 야 : 근대체육
- 2) 명 칭 :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유물
- 3) 제 작 자 : 제11회 베를린올림픽 조직위원회
- 4) 소 유 자 : 손기정기념재단
- 5) 소 재 지 : 서울 중구 손기정로 101
- 6) 수 량 : 1건 3점
- 7) 규격 및 재질

유물명	규 격	재 질	비 고
금메달	지름 5.5cm 두께 0.24~0.42cm	금속	
상장	50×38cm	종이	
월계관	지름 26cm	나뭇잎	

8) 제작년도 : 1936년

9) 현 상

-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하여 받은 금메달로 지름이 5.5cm이며 앞면엔 ‘XI OLYMPIADE BERLIN 1936’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승리의 여신 니케가 올리브관과 월계수 가지를 들고 있으며, 뒷면에는 마라톤 영웅을 무등 태워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있음
-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상장은 금메달과 함께 손기정 선수가 받은 마라톤 우승상장으로써 ‘XI OLYMPIADE BERLIN 1936’이라고 적혀 있으며 베를린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의 모습이 새겨져 있음
-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월계관은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여 수여받은 월계관으로 독일산 참나무로 만들었으며, 세 점 모두 손기정기념재단에서 소장하고 있음

10) 등록가치(의견)

-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의 생애사 연구와 한국 올림픽 역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임(○○○)
- 민족운동사적, 체육사적 의의를 갖는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획득한 손기정 선수의 유물임(○○○)
- 손기정의 유물은 일제시대 민족적 쾌거인 동시에 한국인 체육역량의 향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음(○○○)
- 대한민국의 체육사에서 손꼽히는 가치를 가진 유물임(○○○)

11) 조사자 의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체육사)>

가.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 현 상 : 본 유물은 손기정 선수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현재 손기정기념재단에서 소장하고 있음
- 내용 및 특징
 - 본 유물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 금메달로 지름이 5cm이며 앞면엔 제11회 올림픽아드 베를린 1936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승리의

여신 니케가 올리브관과 월계수가지를 들고 있음. 뒷면엔 마라톤 영웅을 무등 태워 환호하는 그리스 시민들의 모습이 담겨있음. 금도금이 벗겨져 있어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음

- 한동안 육영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분실되었다는 설도 있었으나, 다시 손기정기념재단으로 옮겨졌고, 이전의 사진으로 볼 때 손기정 금메달이 확실함

○ 기 타

- 본 유물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손기정(孫基禎)선수가 세계신기록(2시간 29분 19초)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수여받은 금메달이고 현재 손기정기념재단에서 소장하고 있음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의 생애사 연구와 한국 올림픽 역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라 할 수 있음. 손기정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체육인 뿐만 아니라 불행한 역사와 비극의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 한국인이며, 이러한 손기정의 올림픽금메달을 등록문화재로 등재한다는 것은 단순한 올림픽 금메달으로서의 가치를 넘어선 대한민국 영웅의 기리는 일임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나.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상장

- 현 상 : 본 유물은 손기정 선수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현재 손기정기념재단에서 소장하고 있음

- 내용 및 특징 : 이 상장은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상장으로써 제11회 올림픽아드 베를린 1936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베를린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 'EHRENURKUNDE KITEI SON JAPAN'로 표기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베를린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국제올림픽위원장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음

- 기 타 : 본 유물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손기정(孫基禎)선수가 세계신기록(2시간 29분 19초)으로 우승하고 금메달과 함께 받은 상장이고 현재 손기정기념재단에서 소장하고 있음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유물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孫基禎) 선수가 세계신기록(2시간 29분 19초)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금메달과 함께 수여받은 상장임. 손기정의 베를린 금메달과 함께 한국 체육사에 있어 매우 가치 있는 문화재임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다.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월계관

- 현 상 : 본 유물은 손기정 선수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현재 손기정기념재단에서 소장하고 있음

- 내용 및 특징 : 이 유물은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하여 수여받은 월계관임. 70여년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당시의 모습으로 잘 보존되어져 있다. 함께 보존되어진 올림픽 참가명찰은 '제11회 육상선수'라고 한자로 명시되어져 있음

○ 기 타

- 본 유물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손기정(孫基禎)선수가 세계신기록(2시간 29분 19초)으로 우승하고 시상식에서 금메달과 함께

받은 월계관이며 금메달, 우승 상장과 함께 손기정기념재단에서 소장하고 있음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1936년	1946년 올림픽시상 장면 재현	현재 손기정기념재단에 소장된 월계관
		

- 이 유물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이 우승하면서 시상식에서 받은 월계관임. 손기정의 베를린 금메달과 함께 한국 체육사에 있어 매우 가치 있는 문화재이나, 월계수 잎과 관의 형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 등록될 가치가 있음

<중앙대학교 교수 ○○○(체육사)>

가. 제11회 베를린올림픽 우승 관련 유물(금메달 및 우승 상장)

○ 소장경위

- 본 유물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옹이 수여받은 금메달이다. 이 메달은 손기정 옹이 생전인 1979년 육영재단(광진구 능동 어린이회관 소재)에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하여 기증하여 30여 년 동안 어린이회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유물은 손기정 옹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사업 전개와 대한민국 마라톤 및 체육발전을 위해 설립된 손기정기념재단(이사장 김성태)에 2009년 이관되어 현재 손기정기념재단이 소장하고 있다.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제11회 베를린올림픽은 1936년 8월 1일부터 16일까지 49개국 3,936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21개 종목, 129개 세부종목이 실시되었다. 특히, 베를린올림픽은 히틀러(Adolf Hitler)가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스포츠를 통해 보여주기 위해 광분한 대회였다. 이를 위해 “모든 민족 위에 아리아인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 ‘UberAlles’를 표어로 내걸고 3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11만을 수용하는 메인스타디움을 건설하는 한편,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성화를 7개국 3,300명의 주자에 의해 개회식장까지 옮겨와 성화대에 점화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내와 경기장을 나치스기장의 물결로 뒤덮고 입장식 때는 나치식 경례로, 경기에서의 메달(금 38, 은 31, 동 32으로 우승)로 독일 민족의 신체적 우월성을 증명한 제국주의가 극치를 이룬 대회였다.
- 본 유물은 이러한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당시 인간의 한

계로 여겨지던 2시간 30분대의 벽을 깨며 세계신기록(2시간 29분 19초)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수여받은 금메달이다.

-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을 당시 일제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크나큰 시련을 겪고 있었던 우리 민족은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제패를 우리 민족의 자신감과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쾌거로 받아들여 1936년 8월 10일 손기정의 우승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은 감격에 젖어 “손기정 선수 만세!” “조선만세!” 등의 구호를 외쳤고, 또 동아일보사는 ‘올림픽 세계제패가’를 공모하는 동시에 독자에게 감격의 순간을 보여주기 위해 베를린올림픽 기록영화를 3일간 9회에 걸쳐 성황리에 상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 일본에 살던 우리 동포들도 “축, 손기정군 마라톤 우승”이라고 쓴 현수막과 등불을 들고 그 동안 억눌렀던 감정을 터트리며 행진을 하기도 하였다. 특히, 일장기말소 의거의 주역이었던 동아일보사 이길용 기자는 1936년 8월 11일부터 실린 ‘조선의 아들 손기정-세계의 영웅이 되기까지’라는 연재 기사를 통하여 청년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독립정신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 이처럼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은 일제가 말살하려 했던 우리 민족이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호받아야 할 약소민족이 아니라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강인한 정신과 육체를 지닌 민족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점, 그리고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제패를 계기로 표출된 민족의식이 동아일보의 일장기 말소 의거로 이어져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는 민족운동으로 승화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민족운동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선수들이 세계의 젊은이들과 겨루어 이룩한 첫 세계 제패이자, 한국인으로서 올림픽에서 획득한 첫 금메달로서 우리 체육사에 큰 획을 긋는 쾌거이다.
- 이러한 민족운동사적, 체육사적 의의를 갖는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획득한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 및 우승상장은 그 가치가 매우 큰 유물이라 할 수 있다.

나.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월계관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올림픽에서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수여하는 것은 고대 올림피아제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고대 올림피아제는 기원전 776년부터 서기 393년까지 고대 그리스에서 제우스신을 기리기 위한 제전경기의 하나였다. 이 제전경기에서는 달리기, 복싱, 레슬링, 5종 경기 등의 스포츠경기가 펼쳐졌는데, 이때 각 경기에서의 우승자들에게 야생 올리브로 만든 관이 수여되었다. 야생 올리브관의 수여는 신과 인간 사이의 신비로운 교섭을 의미하였으며, 그 관은 식물의 성장을 활발하게 하는 힘이 관을 쓴 사람에게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특히, 우승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신의 도움 덕이었기 때문에 우승자는 신의 총애를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 이러한 고대 올림피아제의 상징적 의미를 받아들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부터 우승자들에게 월계관을 수여하기 시작하였다. 베를린올림픽대회 때부터 IOC는 종목별 메달리스트들에게 메달과는 별도로 월계관을 수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월계관은 올림픽의 꽃인 육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라톤 우승자에게 상징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 종합의견 : 본 유물은 민족운동사적, 체육사적 의의를 갖는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획득한 손기정 선수의 월계관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됨

<문화재전문위원 ○○○(한국경제사)>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유물의 역사성 : 손기정이 1936년 베를린올림픽의 마라톤경기에서 우승한 사건이 민족사뿐만 아니라 체육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20세기에 한국은 체육에서도 따라잡기(catch-up)에 성공하여 세계 일류수준이 되었는데, 손기정의 마라톤 우승은 체육 분야에서 따라잡기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번에 조사한 베를린올림픽의 금메달, 상장 및 월계관은 손기정 유물의 중심을 이루는 점에서 문화재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올림픽 금메달이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월계관은 손기정의 우승 사진으로 널리 알려져 국민에게 각인된 중요한 유물이다.
- 유물의 진정성 : 유물의 형태, 성분 분석, 그리고 유래 경위로 보건대 진품일 것으로 생각된다. 월계관과 더불어 올림픽 참가명찰이 같이 있는 것은 손기정 선수가 보존한 방식이므로, 분리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 유물들은 손기정 선수가 보존하여 관리해왔던 점에서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우승 상장이 모양이 근사하여 유물로서 가치가 있다. 여기에 'JAPAN'이라는 글자를 손보려고 했던 흔적이 보여 흥미롭다. 아마도 손기정이 해방 후 이 글자를 지우려고 했다가 그만두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손기정의 마음을 상상하게 해주는 점에서 이 흔적이 중요하고 역사적 유물로서 가치를 가지므로, 그대로 보존해주기를 희망한다.
- 손기정 유물의 교육적 가치 : 손기정의 유물은 일제시대 민족적 쾌거인 동시에 한국인 체육역량의 향상을 동시에 보여주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 식민지배 아래 조선인이 일본인과 차별도 받으면서 경쟁하여 체육역량을 향상한 사실을 보여주는 유물은 일본과의 선린 관계를 공고히 해야 할 시대에 일본 젊은 세대의 미래지향적 역사 교육을 위해서도 좋은 자료이다. 손기정 기념재단의 이준승 사무총장은 일본인 교사들이 손기정을 역사교육의 자료로 활용한다고 했다.
- 손기정 유물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 한국인이 얻은 1936년 마라톤 금메달은 그 자체로 관광자원이다. 1936년의 월계관은 한국인의 뇌리에 박힌 유물이고 당시의 월계관이 이렇게 보존된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다. 상장도 아름답고 'JAPAN'이라는 글자를 손보려고 했던 흔적도 흥미롭다. 손기정 유물은 일장기 말살사건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일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익하고도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관광자원이다. 이것은 일본인에게도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 손기정 유물의 일괄적 등록 당위성 : 금메달, 상장 및 월계관은 손기정의 1936년 마라톤 우승에 대한 포상으로서 일괄적으로 수여된 것이고 모두 문화재로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넓게는 손기정기념재단에 비치된 유품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전문위원 ○○○(보존처리)>

가.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 명 칭 :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 소유자 : 손기정기념재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6-1

- 제작년도 : 1936년
- 수 량 : 1점
- 재 질 : 금속
- 조사내용 및 결과

1) 기본 내용

본 유물은 손기정 선수가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2시간 29분 19초, 세계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수여받은 금메달이며,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획득한 올림픽 금메달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메달을 수여하지 않았고, 1896년 하계올림픽에서는 승자에게 은메달, 2위에게는 동메달을 수여하였고, 1900년에는 승자에게 메달 대신에 우승컵이나 트로피를 수여하였다. 1, 2, 3위에게 금, 은, 동메달을 수여하는 세례 모니는 1904년 하계올림픽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도 이러한 형식을 채택하였다. 수여하는 메달의 주조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에서 담당한다.

1928년부터 1968년까지의 메달 디자인은 모두 동일하며, 앞면은 플로렌스 예술가 주세페 카시올리의 디자인과 함께 개최 도시의 이름과 개최 연도가 새겨져 있으며, 뒷면은 올림픽 우승자의 행진을 새긴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2년부터 2000년까지는 카시올리의 디자인(일부 변형을 포함)은 그대로 유지하고 뒷면은 개최 도시에서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였다. 카시올리의 디자인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나타냈으나 아테네에서 개최한 2004년 하계올림픽부터는 그리스고 본래의 올림픽 발상지였음을 나타내기 위해 엘레나 보스티가 제작한 새로운 디자인을 채택하였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구성된 앞면은 날개 달린 승리의 여신 니케가 월계관을 건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으며,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 개최된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올림픽 메달 디자인 변천사

(왼쪽 : 1896년, 가운데 : 1928년, 오른쪽 : 2004년)

1912년 이후부터 수여하는 금메달의 경우, 국제 올림픽 위원회 헌장에 따라서 지름 6cm 이상, 두께 3mm 이상으로 1000분의 925 순도를 지닌 은에 최소 6g 가량의 금을 도금하여 제작하며, 금메달이라는 명칭은 금속 재료 대신에 메달의 색상과 지위를 우선한 것이다.

위의 내용과 같은 올림픽메달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조사하였고, 부가적으로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과 관련하여 간단한 처리가 이루어진 것도 확인되었다 (2005.8.17. 스포츠조선 “육영재단, ‘손기정 옹의 베를린 금메달’ 공개”).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육영재단 측은 ‘2년 전 배기철 고문이 직접 손으로 닦아 녹 등을

정리한 뒤에는 면직물로 각각 싸서 보관함 안에 넣어두고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라는 내용을 통해 물리적 처리가 있던 것을 확인하였다.

본 유물과 관련된 조사는 현재의 보존상태, 실측, 성분 분석으로 실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조사 방법

가) 규격 및 중량 측정

정확한 규격을 측정하기 위해 Vernier Caliper를 이용하여 mm단위로 측정하였고, 지름과 두께를 측정하고,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금메달의 중량을 3번 측정한 후, 평균 중량을 구했다.



중량 측정



지름 측정

나) 육안 및 현미경 관찰

육안으로 확인되는 금메달의 상태를 '점검정보기본카드'에 기입하여 손상상태를 기록하였고, 미세관찰 및 기록을 위해 디지털 영상현미경(DG-3, Scalar社, JP)을 사용하여 30배율로 확인하고 촬영하였다.



디지털 영상현미경 조사

다) 성분 분석

금메달의 성분 분석을 위해 휴대용 형광 X선 분석장치(이하 P-XRF) 분석기기(Innov-X System社의 Portable XRF Analyzer)를 사용하여, 조사경 5mm, alloy mode 및 soil mode로 모든 시료에 동일한 조건(40kV, 4W, Measurement Time 30sec)을 유지하여 원자번호 15번(P, 인) 이상의 원소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P-XRF를 이용한 성분 분석

성분 분석은 금메달 앞면 2곳, 뒷면 3곳을 측정하였고, 그 위치는 아래와 같다.



성분 분석 위치(왼쪽 : 앞면, 오른쪽 : 뒷면)

3) 조사 결과

가) 규격 및 중량 측정

금메달의 지름은 5.5cm이고, 두께는 가장 두꺼운 곳과 가장 얇은 곳을 측정한 결과, 두꺼운 곳은 0.42cm이고 얇은 곳은 0.25cm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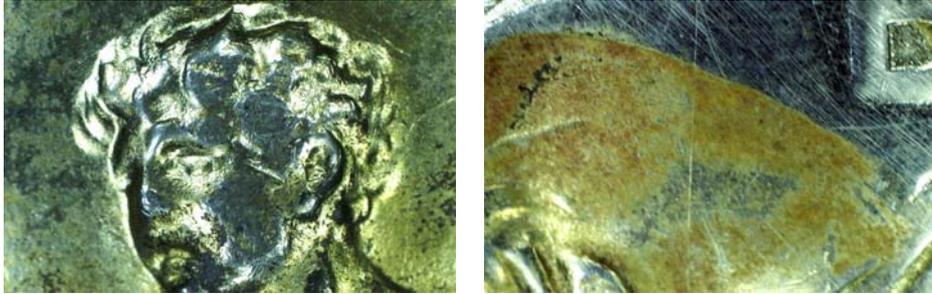
금메달 지름 및 두께 측정 결과

중량 측정은 3회 실시하였고, 평균 중량은 73.15g으로 확인되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의 지름은 55mm, 중량은 72g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위의 결과와 유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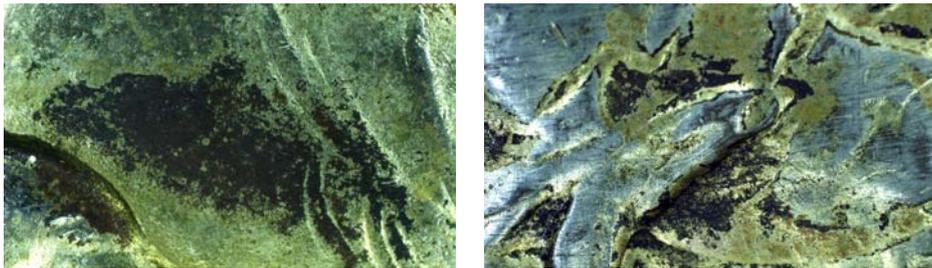
나) 육안 및 현미경 관찰

금메달의 앞면의 경우, 글씨가 있는 우측 상단부의 도금이 대부분 벗겨져 소지 금속인 은이 노출된 상태였으며, 좌측에 위치한 니케, 우측하단부에 위치한 로마 원형 경기장의 양각부분의 금이 상대적으로 벗겨져서 은이 노출된 상태이다. 뒷면의 경우는 앞면에 비해 도금이 잘 남아있는 상태이다. 메달 표면에 크고 작은 흠이 있는 상태이며 앞면의 글자부위는 크게 패인 자국이 위치하고 있다.



금이 벗겨진 표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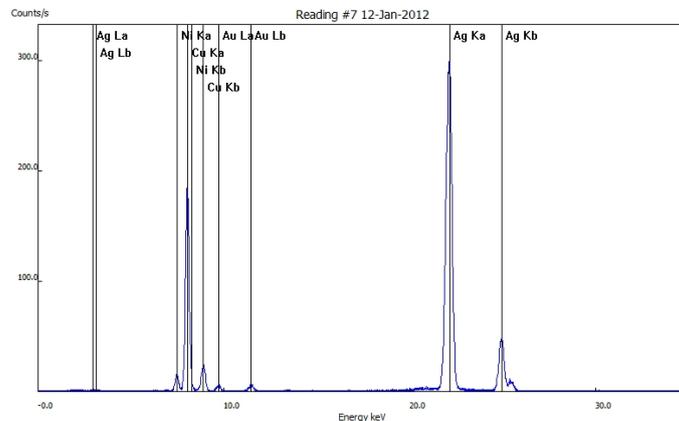
또한 표면은 검은색 또는 적갈색의 녹이 발생하여 일부분을 뒤덮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은의 부식생성물인 황화은(silver sulfide, α, β -Ag₂S)으로 검은색이며 소지금속인 은(Ag)에 바로 생성되거나 도금층 위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표면에 발생한 부식생성물(검은색 녹)

다) 성분 분석

P-XRF 분석 결과, 은(Ag)과 구리(Cu)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고, 니켈(Ni), 금(Au)이 부성분으로 검출되었다. 분석은 앞면 2곳, 뒷면 3곳, 총 5곳을 측정하였으나 각각 검출원소의 Counts/s가 약간의 차이만 있고, 피크의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금메달 ①번 포인트 분석 결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헌장에 제시된 금메달의 제작 기준은 ‘지름 6cm 이상, 두께 3mm 이상으로 1000분의 925 순도를 지닌 은에 최소 6g 가량의 금을 도금하여 제작’으로 금과 은에 대한 부분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제작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구리(Cu)와 니켈(Ni)이 검출됨에 따라 이전에 행해진 물리적 처리의 방법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보존관리 방안

금메달이란 유물은 그 제작특성상 금과 은이 함께 있는데, 금은 화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아 부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금 자체의 성질은 매우 무르기 때문에 외부의 물리적 충격을 받게 되면 흠이 생기거나 그 자국이 쉽게 남게 된다. 은 역시 금과 같이 그 성질이 무르며 또한 아황산가스(SO₂), 황화수소(H₂S) 등과 반응하여 황산은(AgSO₄)과 황화은(Ag₂S)으로 되고 염화물과 반응하면 염화은(AgCl)으로 된다. 이러한 부식생성물은 부식이 점차 심해지면 분말로 변하여 금속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또한 표면에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부식물(황화은, Ag₂S)이 덮여 있을 때도 있다.

은제유물은 표면이 흑화 되면서 부식이 진행되는데, 금메달의 표면에 국부적으로 있는 검은색의 녹이 이에 해당하며 증류수 또는 에탄올을 면봉 또는 유리섬유솔을 이용하여 얇은 녹층을 제거해준다. scalpel과 같은 뾰족한 소도구를 사용하여 녹을 제거할 때는 표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녹을 제거한 후 외부공기와 차단하기 위해 Paraloid B-72 용액으로 표면에 코팅처리를 한다. 은제유물은 표면을 외부공기와 차단시키면 부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강화처리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처리해야 한다. Paraloid B-72는 농도가 올라갈수록 표면에 광택이 발생하므로 되도록 저농도인 10~20%로 적절히 조절하여 강화처리한다.

IIC(국제문화재보존학회), ICOM(국제박물관회의), ICCROM(국제보존수리복원센터) 등에서는 금속유물의 온습도에 관한 보존환경을 20±2℃, 45%이하로 권장하고 있다. 본 유물 또한 동일한 환경에서 전시하고 보관해야 하며, 두 조건을 모두 맞추기 어렵다면 상대습도 45%이하 기준을 우선적으로 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식생성물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본 유물은 서두에 언급했듯이 그 가치가 매우 높고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별도로 보관함을 제작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보존처리를 하고 난 후에 동일한 체계로 관리할 경우 부식 또는 물리적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적의 조건에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보석함과 같은 보관함보다는 외부 환경을 차단하고 내부에 반응성이 없도록 별도의 쇼케이스를 제작하고 내부는 진공상태 또는 불활성가스(질소 또는 아르곤)로 축진하여 유물이 가장 안정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또한 벗겨진 금도막의 경우 복원을 하여 금메달의 원형에 대해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만 1938년에 금메달을 획득하고 74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도금이 벗겨지고 흠이 발생한 부분도 역사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복원에 대한 부분은 오늘날의 기술로 충분히 재현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 종합의견 : 본 유물은 손기정 선수의 금메달로써 대한민국의 체육사에서 손꼽히는 가치를 지녔다. 조사결과 금과 은으로 구성된 유물이고, 일부 금도막이 벗겨

지고 은성분에서 녹이 발생되고, 물리적인 손상도 발생된 상태이다. 원래의 가치를 드러내고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보존처리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나.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상장

- 명 칭 :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상장
- 소 유 자 : 손기정기념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사 6-1
- 제작년도 : 1936년
- 수 량 : 1점
- 재 질 : 종이
- 조사 내용 및 결과

1) 기본 내용

본 유물은 손기정(孫基禎) 선수가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2시간 29분 19초)으로 우승을 차지함에 따라 금메달과 함께 수여 받은 상장이다. 베를린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의 모습과 함께 'EHRENURKUNDE KITEI SON JAPAN'으로 표기되어 있다. 손기정 선수가 소유하고 있던 것을 현재 손기정기념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인으로써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 선수의 생애사 연구와 한국 올림픽 역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2) 조사 방법

가) 규격 및 구성

대상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우승 상장을 이루고 있는 액자와 함께 상장의 규격 및 구성을 조사하였다.



규격 조사 모습



미세 관찰 모습

나) 육안 및 현미경 관찰

보존 상태 조사 및 기록을 위하여 육안 관찰 및 현미경 관찰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디지털 영상현미경(DG-3, Scalar社, JP, 30배)을 통해 바탕 종이의 미세 관찰을 실시하였다.

다) 성분 분석

우승컵의 성분 분석을 위해 휴대용 형광 X선 분석장치(이하 P-XRF) 분석기기(Innov-X System社의 Portable XRF Analyzer)를 사용하여, 조사경 5mm, alloy mode 및 soil mode로 모든 시료에 동일한 조건(40kV, 4W, Measurement Time

30sec)을 유지하여 원자번호 15번(P, 인) 이상의 원소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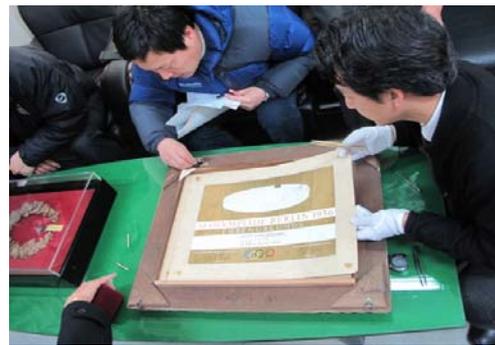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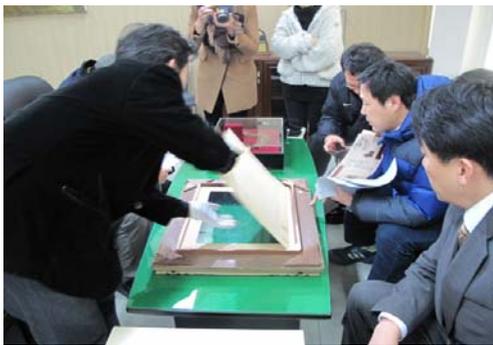
성분 분석은 금박 부분 1곳, 백색 부분 1곳을 측정하였고, 그 위치는 아래와 같다.



3) 조사 결과

가) 규격 및 구성

본 유물은 액자에 끼워넣어져 있는 상태로 종이 지지체 위에 백색의 안료와 금속박 형태의 상장을 붙인 것으로 직사각형의 형태를 갖고 있다. 액자의 규격은 가로 67cm, 세로 54.5cm이며 우승 상장의 규격은 종이 지지체의 가로가 50cm, 세로 38cm, 상장의 가로가 40cm, 세로 2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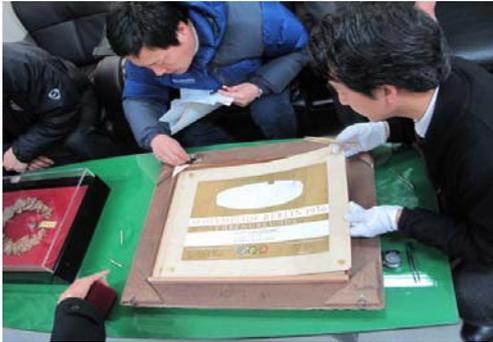


상장의 모습



우승 상장의 규격

액자의 경우 상표(스티커)를 보았을 때 일본의 백화점에서 구입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자 뒷판의 오동나무 상자는 과거 보수시 새로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벽에 거는 걸쇠와 올림픽 마크(오륜기)가 상장의 아래쪽에 위치한 것을 보았을 때 과거 보수시 상장이 위 아래를 반대로 하여 액자에 넣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금번 보존처리시 시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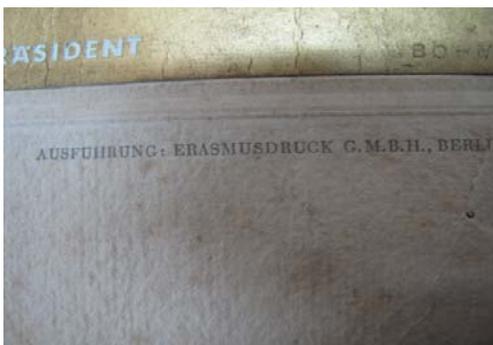
거꾸로 되어 있는 결쇠와 오류기



액자의 상표 (일본의 백화점)

나) 육안 및 현미경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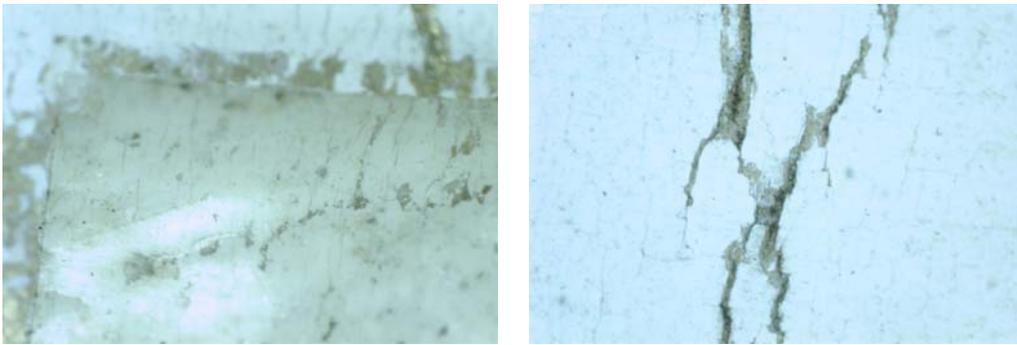
육안으로 관찰되는 본 대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종이의 산성화와 균열, 접착 테이프의 손상이었다. 종이의 산성화는 이미 진행되어 거의 누렇게 되어 있었고 백색의 안료가 칠해져 있는 베를린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의 모습과 금속박의 부분은 건조 및 취급상의 부주의 등에 의한 균열이 심각했으며, 'JAPAN' 글씨의 접착력은 감소하여 탈락되기 직전이었다. 그 밖에도 종이 지지체의 접착 테이프의 흔적과 찢어짐 등이 발견되었다.





우승 상장의 다양한 손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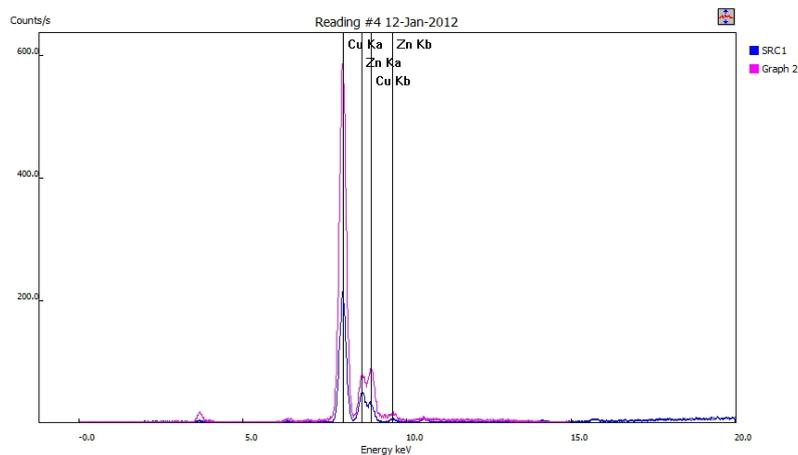
디지털 영상현미경을 통해 표면 상태를 관찰한 결과 접착 테이프의 얼룩과 백색 안료 부분의 균열이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접착 테이프 얼룩 및 표면 균열 (디지털 영상현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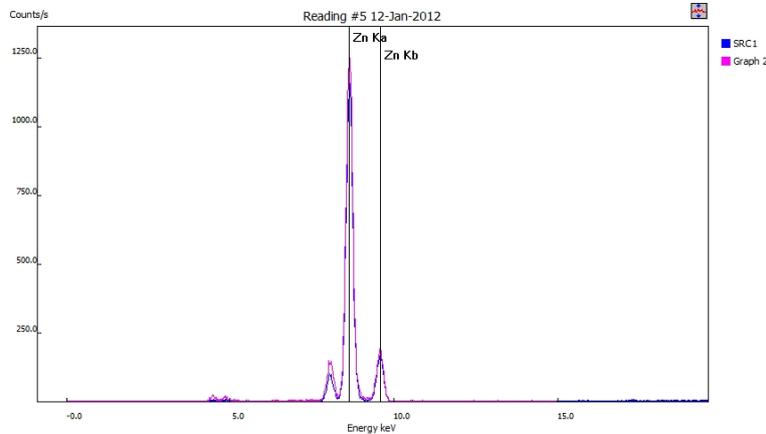
다) 성분 분석

우승 상장 ①의 P-XRF 분석 결과, 구리(Cu)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고, 아연(Zn)이 부성분으로 검출되었다. 구리(Cu)와 아연(Zn)이 함께 검출되면 일반적으로 구리-아연 합금으로 볼 수 있으며, 합금의 색상은 금색과 유사하다. 구리-아연 합금은 다른 용어로 황동이라고 하며, 상당의 금색 박의 경우는 금박이 아닌 황동의 금속박으로 추정된다.



우승 상장 ①의 분석 결과

우승 상장 ②의 P-XRF 분석 결과, 아연(Zn)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다. 이는 백색을 구현하기 위해 도료로도 흔히 사용되는 아연(Zn)을 사용하여 표면에 도금 형식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승 상장 ②의 분석 결과

4) 보존 관리 방안

이상으로 본 유물은 종이 지지체의 산성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고 백색 안료 부분의 균열이 심각하며, 종이 자체의 꺾임 및 주름이 발생하였고 접착 테이프에 의한 얼룩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탈산처리와 보존 환경(중성상자, 온·습도 조건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접착 테이프의 제거 및 전체적인 보존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종이의 경우 재질 특성상 자외선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필름이 부착된 램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충·균에 의한 생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적절한 보존 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 탈산처리

- 탈산처리(deacidification)는 화학적으로 종이에 생기는 산(酸) 또는 산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알칼리성 물질로 중화시킴으로써 기록물의 보존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또한 탈산처리 이후에도 잉여의 알칼리성 물질이 종이에 잔류하여 내부에서 추가로 발생하거나 외부의 대기 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침입하는 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지의 수명은 1000년, 양지는 100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탈산처리가 필요한 종이의 산성화(pH 4~7)는 우리 고유의 한지보다는 양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한지는 제조과정시 염기성인 잿물(산화칼륨, K_2O)로 삶은 다음 햇볕에 말려 표백하게 되는데, 이러한 잿물삶기 과정으로 인해 한지는 양지보다 서서히 산성화가 진행된다. 반면 양지는 나무로 만든 펄프가 주 원료로 펄프를 얻기 위해서는 황화나트륨이나 수산화나트륨으로 처리하여 섬유질을 용해시켜 제거하기 때문에 산성화가 보다 빨리 진행된다.
- 탈산처리에 앞서 종이의 산성도를 측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종이의 산성도는 냉수추출법, 온수추출법 등이 있으나 파괴적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유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다. 이에 비파괴적 분석 방법으로 평판 유리전극이 부착된 pH 측정기를 사용하여 종이표면의 산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산성도를 측정된 종이는 알칼리성 탈산 용액을 이용하여 침적 혹은 도포 후 수세하고 건조시키는 단계를 거친다. 따라서 수용성 잉크 등이 사용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탈산처리를 마친 유물은 고급중

성지로 제작된 보존상자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산성성분 및 오염의 차단 뿐만 아니라 온·습도, 자외선, 유해가스 등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테이프 보존처리

- 테이프는 우리 주변의 실생활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색이 없으며 사용이 빠르고 간편하기 때문에 잘못된 보존처리법으로 많이 사용 되어 왔다. 무분별하게 사용된 테이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접착 성분이 열화 되면서 지류 유물에 스며들어 노란색 얼룩을 남기게 되며(고무계 테이프; rubber-based adhesive tape), 또한 테이프가 수축하면서 유물에 주름을 발생시킬 수 있다. 테이프를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 지류 유물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히게 된다.
- 테이프의 제거 방법은 습포제법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톨루엔,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등의 용매 중 각 상황에 맞는 용매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 보존 환경

- 종이 재질의 문화재는 ‘살아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온·습도에 예민하다. 잘못된 보관 환경은 대상의 변형 및 오염을 발생한다. 이를 위해 20±2℃의 온도와 55~65%의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며, 대상을 변색·열화시킬 수 있는 자외선(UV)을 차단하기 위하여 자외선 차단 필름이 부착된 램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종합의견 : 본 유물은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과 함께 수여받은 우승 상장으로 황동의 금속박이 입혀져 있다. 산성화, 생물 피해, 균열 등의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탈산 및 훈증처리, 적정 온·습도 조건의 보관 등 종합적 보존처리 및 관리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교수(식물생태)>

1.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썼던 월계관의 식물학적 분류

손기정 선수의 월계관은 잎의 전체 모습과 잎 가장자리 형태가 물결치는 듯한 모양의 파상거치(波狀鋸齒)인 점, 그리고 윤기가 나지 않는 잎의 결면 등을 고려할 때 월계수(*Laurus nobilis*) 잎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독일에 자생하는 참나무(로부르 참나무(*Quercus robur*))로 추정됨)의 잎으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로부르참나무의 잎은 길이 약 10~15cm, 폭 약 5~8cm에 달한다.

월계수의 잎은 긴 타원형이며 길이 윤기가 도는 것이 특징으로 상록성이며 유럽의 중남부(그리스, 이탈리아, 남부 프랑스 등)에 자라고 있는데, 잎은 길이 약 5~8cm, 폭 3~4cm에 달한다.

참고로 왼쪽이 로부르참나무(*Quercus robur*)의 잎이고 오른쪽이 월계수(*Laurus nobilis*)의 잎이다.



<로부르참나무(*Quercus robur*)>



<월계수(*Laurus nobilis*)>

흔히 승리의 화환으로 월계관을 떠 올리게 되는데, 참나무도 그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월계수는 속죄와 정화의 능력이 있다고 믿어 그리스와 로마인들은 전쟁에 승리한 후 곧바로 그들의 무기와 깃발을 월계수 가지로 장식했으며 나중에는 승리와 개선 행진의 상징으로 바뀌었다. 로마에서는 승전보를 전하는 편지(litterae laureatae)는 항상 월계수 가지로 묶었으며, 승리를 축하하는 개선 행진에 최고 지휘관은 전리품과 승리의 상징으로 월계관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편 켈트족은 참나무를 신성시하였으며, 참나무(독일에는 로부르참나무(*Quercus robur*)와 페트레아참나무(*Quercus petraea*), 푸베센스참나무(*Quercus pubescens*) 등이 있음)로 만든 화환은 월계관과 마찬가지로 고대에 승리자나 국가와 민족에게 높이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이었다.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는 오른손에 참나무 잎으로 만든 화환을 들고 있다고 한다.

승리와 영웅의 상징으로서 참나무 잎은 1813년 독일 철십자에 최초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나치의 독일노동당 표장(標章)에도 독수리가 발톱으로 참나무잎으로 만든엽환(葉環)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나치 독일노동당 표장은 나중에 나치의 상징이 되었다. 특히 히틀러가 세계 재패를 꿈꾸며 유럽을 휘두르면 당시(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거행된 올림픽에 독일의 상징적 나무인 참나무를 승리의 화환으로 사용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편 1936년 베를린 올림픽과 관련된 독일의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사람들은 승리자를 존경하는 뜻으로 참나무 잎으로 만든 화환과 어린 참나무를 받았다(마리안네 보이헤르트, 2002, 「Flower and Tree」).” 손기정 선수가 우승한 후 시상대의 장면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표현이다.

2. 1936년 월계관이 현재까지도 온전한 상태로 보전이 가능한지의 여부

본인의 판단으로는 보전 가능하다. 일제강점기인 1900년대 초부터 나카이 타케노신(中井猛之進) 등과 같은 일본 식물학자들이 한반도에서 수많은 식물들을 채집하였다. 그들이 채집하여 보관한 식물들이 현재 국내 대학의 수목원이나 산림청 표본관 등에도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외국에서는 수백년이 넘는 식물 표본들도 있다. 특히 참나무 월계관은 손기정 선생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셔서 습기 제거 등을 위해 주변에 숯을 깔아 두는 등의 노력으로 비교적 원래의 상태대로 지금까지 잘 보존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14회 런던올림픽 후원권

- 1) 분 야 : 근대체육
- 2) 명 칭 : 제14회 런던올림픽 후원권
- 3) 소 유 자 : 대한체육회 한국체육박물관
- 4)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
- 5) 수 량 : 1점
- 6) 규 격 : 12.1×7cm, 외지 22.8×17.5cm
- 7) 재 질 : 종이
- 8) 발 행 처 : 올림픽후원회
- 9) 제작년도 : 1947년(발행일 1947년 12월 1일)

10) 현 상

- 런던올림픽후원권은 1948년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14회 런던하계올림픽에 파견할 우리 대표단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1947년 12월 1일에 발행된 복권형 후원권 140만매 중 ‘가乙 NO.000001’의 후원권임
- 후원권의 전면 중앙에는 런던올림픽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올림픽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었던 고 전경무¹⁾(1900-1947)의 그림이 삽입되어 있음. 후원권의 후면에는 후원권 발행의 목적, 액면가, 발행수량 및 발매처 등 각종의 사무사항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음
- 한국체육박물관 설립 초기에 전시를 목적으로 무명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것임

11) 등록가치(의견)

-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으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호로서의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 수립전인 1948년 신생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된 것으로 올림픽참가에 대한 당시의 국민적 열망을 알 수 있는 자료임(○○○)
- 국민적 열망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유물임(○○○)

12) 조사자 의견

<문화재위원 ○○○(서지학)>

- 명 칭 : 런던올림픽후원권(런던올림픽後援券)
- 소 유 자 : 대한체육회 한국체육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산223-19
- 수 량 : 1점
- 규 격 : 7×12.1cm
- 재 질 : 지류(紙類)
- 판 종 : 인쇄본
- 형 식 : 낱장물
- 조성연대 : 1947년
- 현 상

1) 전경무(1900-1947.5.29)는 평안북도 곡산에서 출생하여 1906년 하와이로 이주하였으며, 미국인에게 입양되어 미시간대를 졸업하였음. 하와이지역에서 거주하며 한인사회 발전과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임시정부를 후원하였으며, 1946년 재미한족국내파견대표단 외교위원으로 선정되어 올림픽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한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정식 회원으로 참가하는데 크게 이바지함. 1947년 6월 20일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제40차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던 중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함

- 書誌記述

런던올림픽後援券 / 올림픽後援會長. -- 活版本. -- [發行地不明] : [올림픽後援會], 1947年 12月 1日.

1枚 : 寫眞, 插圖, 7.0×12.1cm ; 17.5×22.8cm. 洋紙. 날장物.

額面價: 百圓

券番號: [가乙] NO000001

發行日: 1947年 12月 1日.

寫眞: 故田耕武先生遺影(黑白)

插圖: 太極(컬러), 五輪(컬러)

發行者: 올림픽後援會長 安在鴻

朱印: [올림픽後援會長之印]

臺紙: 五輪이 워터마크형으로 디자인된 洋紙(17.5×22.8cm)

裏面內容: 一、本券은一九四八年倫敦올림픽大會에派遣할代表團의經費를/充當키爲하야各道及서울市를 單位로한 各地區에서發行함

一、本券은額面을壹百圓也로하야總數壹百四拾萬張을發行하/야各地區에서發賣함

一、本券發賣時는各地區共히本券一張에對하야올림픽參加記念/郵票貳張式을添付贈與함

一、本券은本會及各地區地部에서發賣抽籤하야當籤金을出給함

一、各地區의當籤金出給方法은左와如함

拾四萬張一組에對하야(各組에「가」「나」「다」順으로符號/를記入함)但本券一組의番號는甲乙로分하야各七萬號式으/로함

一等 一張 當籤金 壹百萬圓

二等 二張 當籤金一張에對하야五拾萬圓

三等 三張 當籤金一張에對하야拾萬圓 [PONG CHO KOO]

四等 五張 當籤金一張에對하야五萬圓 [具鳳祖]

五等 拾張 當籤金一張에對하야壹萬圓

一、本券은本會事業을爲한寄附行爲로하야元金을償還치안이함

一、本券은一時에百張以上購賣하는時는올림픽記念章을贈呈함

一、發行日 西紀一九四七年十二月一日

一、發賣期間 自 西紀一九四七年十二月一日
至 " 一九四八年 壹 月末日

一、抽籤日及場所 西紀一九四八年貳月十五日本會(서울市/地區의分) 各地區本會地部(但抽籤日은各/地區事情에依하야變更할 수이슴)

一、當籤番號發表 西紀一九四八年參月一日本會各地部又는/日刊新聞、라디오等

一、當籤者登錄 西紀一九四八年參月十日限本會及各所屬/地區地部に當籤券符號、番號、住所、/聖明、年齡、男女別을登錄할것(서울市/地區의分은本會만에)

一、當籤者正式發表 西紀一九四八年參月二十日本會及各地部/又는日刊新聞、라디오等으로發表함

一、發行責任者 올림픽後援會長安在鴻

一、抽籤入會者 本會責任、警察官、各地區本會地部責任者

一、當籤者登錄期日까지登錄치안할時又는當籤券이汚損하야分/明치안한

것은此를 無效로함

- 現狀

調査文化財 <런던올림픽後援券>은 大韓體育會 산하의 韓國體育博物館이 博物館設立 초기에 展示를 목적으로 寄贈者 不明處로부터 受贈한 것이다.

調査文化財 <런던올림픽後援券>에 사용된 紙質은 洋紙이고 額子 속에 장식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낱장物이다.

調査文化財 <런던올림픽後援券>은 현재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23-19의 大韓體育會의 소유이며 韓國體育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調査文化財 <런던올림픽後援券>의 保存狀態는 外面上 양호한 듯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런던올림픽後援券>은 현재까지의 保存狀態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머지않아 급속한 酸化가 진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調査文化財 <런던올림픽後援券>을 維持·管理하고 있는 韓國體育博物館은 각종 施設·裝備의 면은 물론 學藝研究士·司書 등의 研究·管理要員도 전혀 없는 一般 展示室과 같은 施設規模이며, 名稱만 博物館일 뿐 施設·裝備·管理要員 등의 博物館 登錄要件을 갖춘 公式의 登錄된 博物館이 아니다.

현재 韓國體育博物館에는 調査文化財 이외에도 각종 文化財를 소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施設·裝備로는 소장된 각종 文化財의 保存狀態가 惡化一路에 놓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大韓體育會의 文化財와 博物館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나아가 현대적 시설을 갖춘 韓國體育博物館의 新築이 시급한 상황이다.

○ 내용 및 특징

調査文化財 <런던올림픽後援券>은 1948년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영국의 倫敦(런던)에서 개최되는 제14회 런던하계올림픽에 派遣할 우리 代表團의 經費를 充當하기 위하여 1947년 12월 1일에 발행된 福券形 後援券 중 ‘가乙 NO.000001’의 後援券이다. 後援券은 100圓을 額面價로 하여 서울시와 各道를 單位로한 各地區에서 140萬枚를 發行하여 各地區에서 發賣되었는데, 發賣 時에 後援券 1장에 ‘올림픽參加記念郵票’ 2장씩을 添付贈與하였다. 140萬枚 중 서울시支部에서 56萬枚를 판매하고 나머지는 地方에서 판매한 듯하다. 後援券의 發賣 후에 抽籤을 통하여 當籤金을 出給하였는데 14萬枚를 1組로 하여 1등(1장 100만원), 2등(2장 각 50만원), 3등(3장 각 10만원), 4등(5장 각 5만원), 5등(10장 각 1만원)의 當籤金이 지급되었다. 전체 販賣額 1억4천만원 중 組當 305만원의 14組의 當籤金인 4천2백70만원을 제외한 9천7백30만원이 後援金으로 사용되었던 듯하다. 後援券의 前面 중앙에는 大韓民國 政府가 수립되기도 전에 祖國의 再建과 後援을 위해 수고하고 런던 올림픽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올림픽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었던 故 田耕武(1900-1947)의 遺影이 삽입되어 있다. 田耕武는 당시 정부수립 이전에 대한민국이 런던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되기도 전에 呂運亨(1886-1947)의 親書를 휴대하고 美國으로 건너가 대한민국의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국 가입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등 왕성한 外交活動을 전개하여 적극적인 協助와 同議를 받아낸 인물이다. 그러나 1947년 6월 20일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國際올림픽委員會(IOC) 제40차 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하기 위하여 1947년 5월 29일에 美軍輸送機를 타고 출발하였던 그는 日本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아쓰기(厚木) 西方의 山岳地帶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不歸의 客이 되고 말았다. 後援券의 後面에는 後援券 發行의 目的, 額面價, 發行數量 및 發賣處, 當籤金出給方法, 發行日, 發賣期間, 抽籤日 및 場所, 當籤番號發表, 當籤者登錄, 當籤者正式發表, 發行責任者, 抽籤入會者, 無效處理方法 등 각종의 사무사항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본 後援券은 우리나라 최초의 福券으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호로서의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단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매된 後援券이라는 점에서 올림픽경기 참가에 대한 당시의 국민적 열망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을 간접적으로窺見할 수 있는 자료이다.

○ 문헌자료

- 文化財廳 近代文化財課, 2011 近代文化遺産 體育分野 目錄化調査報告書. 大田 : 文化財廳, 2011.
- 1956年 冬季올림픽 朝鮮서 開催하라, 李元淳氏 美國서 主張. 東亞日報 및 京鄉新聞. 1947年 6月 24日字.
- 나의 이력서: 李元淳 全經聯顧問. 每日經濟新聞. 1988年 4月 13일자, 4月 14日字.

○ 기 타

- 所藏·管理 : 調査文化財 <런던올림픽後援券>은 현재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23-19의 大韓體育會의 소유이며 韓國體育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韓國體育博物館은 각종 施設·裝備의 면은 물론 學藝研究士·司書 등의 研究·管理要員도 전혀 없는 一般 展示室과 같은 施設規模이며, 名稱만 博物館일 뿐 施設·裝備·管理要員 등의 博物館 登錄要件을 갖춘 公式의 登錄된 博物館이 아니다. 현재 韓國體育博物館에는 調査文化財 이외에도 각종 文化財를 소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施設·裝備로는 소장된 각종 文化財의 保存狀態가 惡化一路에 놓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大韓體育會의 文化財와 博物館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나아가 현대적 시설을 갖춘 韓國體育博物館의 新築이 시급한 상황이다.

- 關聯 事項

- 제14회 올림픽경기대회(The 14th Olympic Games): 1948년 영국의 런던에서 개최된 제14회 하계 올림픽 경기대회이다. 제14회 올림픽 경기대회는 1948년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최되어 58개국에서 4,092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2차례의 대회가 무산되고 12년만에 영국 런던에서는 제4회 올림픽대회 이후 2번째로 개최되었다. 제12회 대회는 1940년 일본 東京이 유치 후 핀란드의 헬싱키로 바뀌었다가 무산되었고, 제13회 대회는 1944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1939년 9월 1일 발발한 세계대전으로 무산되었다. 그동안 억압되었던 평화의 제전, 올림픽을 되살리려는 전 세계의 열망이 그대로 드러나 한국을 비롯한 15개국이 처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전범국인 일본·독일·이탈리아 등은 초청되지 않았다. 영국은 전쟁의 피해로 인해 올림픽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선을 다하여 대회를 준비했으며,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경기실황이 텔레비전으로 방송되었다. 경기는 17일에 걸쳐 18개 종목, 136개 세부종목으로 실시되었는데,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태극기를 들고 67명의 선수가 육상·축구·농구·역도·복싱·레슬링·사이클 등에 참가하여 58개국 가운데 24위를 차지, 아시아 국가로는 인도 다음의 좋은 성적이었다. 복싱의 플라이급에 출전한 한수안 선수와 역도의 미들급에 출전한 김성집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유일한 여성선수로 여자 창던지기의 박봉식 선수가 참가했다. 한국의 올림픽대회 출전에 앞서, 국내에서 조직된 올림픽후원회에서는 ‘올림픽후원권’을 발행하여 국민의 성금으로 올림픽출전경비를 마련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제14회 올림픽경기대회(The 14th Olympic Games)>

- 田耕武(1900-1947.5.29): 1900년 평안북도 광산에서 출생하여 1906년 부모를 따라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이어 미국 본토로 건너가 미국인에게 입양된 뒤

중학교까지 마치고 苦學으로 미시간대학 정치학과에 입학한 뒤 미식축구선수와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全美大學雄辯協會會長을 맡았으며, 졸업 후에는 하와이로 돌아가 자동차 도장업으로 재산을 모았다. 이후 하와이지역 한인사회의 발전과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데 앞장서 193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후원단체인 團舍會에 가입하는 한편,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韓國光復陣線의 결성에 참여해 8년간 임시정부를 적극 후원하였다. 1941년 8월 미주지역 한인들의 통합 단체인 재미한족연합위원회 議事部 委員을 맡아 임시정부 후원과 외교·선전사업을 추진하고, 이듬해에는 金乎와 함께 재미한족연합위원회 重慶特派員으로 파견되어 遠東과 美洲간의 민족운동정책에 관해 협의하기도 하였다. 1944년 워싱턴 외교사무소 외교원을 거쳐, 그해 10월 13개 한인단체를 통합해 조직한 駐美外交委員部 외교위원장 비서를 역임하였다. 1945년 4월에는 전후 평화를 준비하기 위한 연합국회의에 대비해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파견대표로 활동하였다. 1946년 1월 조국재건을 후원하기 위해 구성된 재미한족국내파견대표단 외교위원으로 선정되어 조국 땅을 밟은 뒤 올림픽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한국이 國際올림픽委員會(IOC) 정식회원국으로 런던올림픽에 참가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당시 조선체육회는 1946년 7월 올림픽대책위원회를 체육회내에 설치하고 위원장에는 체육회 부회장인 兪億兼이, 부회장에는 전경무와 李相佰이 맡아 그 준비사무를 보았다. 한편, 전경무는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인 브런디지(Brundage, A.)를 만나 우리나라의 올림픽 참가를 위한 협조요청에 승낙을 얻고 돌아오는 등 올림픽 참가를 위한 준비 작업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1947년 6월 20일 스톡홀름에서 國際올림픽委員會 제40차 總會에 참가하기 위하여 동(1947)년 5월 29일에 김포비행장에서 美軍輸送機 C514호에 탑승하여 日本 東京으로 날아가던 도중 午後 10시 30분경에 日本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아쓰기(厚木) 西方의 山岳地帶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동승한 41명의 승객·승무원과 함께 慘死하였다. 그의 體育葬은 1947년 6월 18일 서울운동장에서 체육회장 呂運亨, 부회장 유억겸, 민정장관 安在鴻 등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중장, 군정장관 아놀드 등 미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으며, 올림픽후원회는 고인을 추모하는 뜻에서 올림픽 파견비용 조달을 위한 복권발매를 고인의 사진을 넣어서 실시하기도 하였다.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되었다.

<<http://people.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전경무.>

- 安在鴻(1891-1965): 정치가 겸 사학자로 본관은 順興이고 호는 民世이다.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부친은 안윤섭이고 모친은 南陽 洪氏이다. 1907년에 단발을 하고 상경하여 皇城基督教青年會 中學部에 들어갔다. 이때 李商在·南宮憶·尹致昊 등과 교분을 가졌다. 1910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조선인기독교청년회에 계속 관여하여, 조선인유학생학우회를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1911-1914년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정경학부를 졸업하였다. 1915년 귀국하여 주로 언론계에 종사하다가, 1916년 상해로 망명하여, 李會榮·申采浩 등이 조직한 同濟社에서 활약하였다. 그 뒤 귀국하여 1915년부터 1917년까지 중앙고등보통학교 교감직을 역임하고 그해부터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 교육부 간사를 지냈다. 1919년 3·1운동 만세시위를 지도하는 한편, 비밀결사인 대한민국청년외교단에 가담하여 상해임시정부의 聯統府 역할을 수행하다가 일본경찰에 붙잡혀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23년 <時代日報> 창간에 참여하여 이사와 논설위원을 지내고, 1924년 <조선일보> 주필을 거쳐 부사장(1929-1931)과 사장(1931-1932)을 역임하여 10년 동안 언론인생활을 하였다. 이 동안에도 1925년

에는 조선기자대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조선사정연구회·태평양문제연구회에 참여하였으며, 1927년 신간회 총무간사로 활약하다가 잡혀 8개월 동안 투옥되었다. 동년에 在滿洲同胞擁護同盟委員長, 1929년 생활개선운동·귀향학생문자보급운동을 벌이면서 광주학생사건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주관하였다. 1932년에는 만주동포조난문제협회의 조사·선전부 책임을 맡기도 하였다. <조선일보> 시절에 겪은 일들은 글로 옮겨져 사설 980편, 시평 470편이 게재되었다. 이후 <與猶堂全集>의 간행 등 조선실학연구에 몰두하였다. 1936년 임시정부와의 긴밀한 활동이 탄로나 2년간 복역하였으며,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다시 2년간의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1937-1944년 틈나는 대로 평택군 향리의 桃陵山房에서 우리나라 상고사와 조선철학에도 정진하였다. 이는 일본학자들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였으며, 1945년 4월 일본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 呂運亨이 일본과 조국의 치안권인수문제에 관한 접촉이 이루어질 때 그 대안으로 민족대회의 결의를 받자는 주장을 폈다. 8·15광복과 동시에 생겨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었으나, 이 위원회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좌우되자 그해 9월 독자적으로 國民黨을 결성하여 당수가 되었다. 그 뒤 韓國獨立黨 중앙위원과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1946년에 <漢城日報社>를 창립하여 사장을 역임하고 비상국민회의의원·민주의원의원·좌우합작위원회 의원으로 활약하였다. 1947년 입법의원 의원이 되고, 미군정청 民政長官이 되어 한인체계에 의한 행정기반을 굳혔다. 정부수립 후 평택군에서 무소속으로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1950년 9월 21일 납북되어 1965년 3월 1일 풀려난 것으로 전해진다. 저서로는 「朝鮮上古史鑑」·「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한민족의 기본노선」 등이 있다.

<<http://people.aks.ac.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안재홍.>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調査文化財 <런던올림픽後援券>은 登錄文化財로 登錄하여 學術的으로 研究·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다.
- 調査文化財 <런던올림픽後援券>은 1948년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영국의 倫敦(런던)에서 개최되는 제14회 런던하계올림픽에 派遣할 우리 代表團의 經費를 充當하기 위하여 1947년 12월 1일에 발행된 福券形 後援券 중 ‘가乙 NO.000001’의 後援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福券으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호로서의 상징적 의미도 지니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올림픽에 참가할 선수단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매된 後援券이라는 점에서 올림픽경기 참가에 대한 당시의 국민적 열망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을 간접적으로 窺見할 수 있는 자료이다. 따라서 등록 문화재로 등록하여 학술적으로 연구·관리·보존할 가치가 있다.

○ 종합의견 : <런던올림픽後援券> 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학술적으로 연구·관리·보존할 가치가 있음

<한국체육대학교 ○○○ 교수(체육사)>

- 현 상 : 한국체육박물관 설립 시에 전시하기 위해 기증받은 것
- 내용 및 특징 : 올림픽후원권은 1948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것임. 100원짜리 후원권의 중앙에는 1948년 런던올림픽에 참가를 위한 올림픽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고 전경무(1900-1947)가 그려져 있음. 전경무는 한국이 런던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여 1947년 6월 IOC에서 한국올림픽위원회가 정식회원으로 승인되기 직전에

당시 조선체육회 회장인 여운형(呂運亨)의 친서를 휴대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의 IOC 가입 정당성을 설득하는 등 왕성한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 인물이었으나 1947년 5월 29일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IOC 총회 한국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미군용기를 타고 가다가 일본 후지산 부근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사망함. 당시 민정장관이었던 안재홍이 올림픽후원회의 회장을 역임함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올림픽후원권은 우리나라 정부 수립전인 1948년 신생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자 런던올림픽에 참가하고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된 것으로 올림픽참가에 대한 당시의 국민적 열망을 알 수 있는 자료임. 더욱이 올림픽후원권은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으로 1947년 12월에 발행되었고, 체육박물관에 소장된 이 후원권은 발행 번호 제1호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중앙대학교 ○○○ 교수(체육사)>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올림픽후원권은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48년 2월 발행되었다. 당시 동아일보 1947년 12월 11일자는 “一九四八년도 올림픽대회에 우리선수들이 가슴에 빛나는 태극기를 달고 (중략) 싸우는 마당에서 조금도 뒷걱정 없이 평소에 쌓고 쌓은 힘(力)과 열(熱)을 모조리 기우리어 싸우게 하고저 조선올림픽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각도를 단위로 一월말까지에 백원권 一백四十만장 一억四천만원의 올림픽후원권을 발행하기로 되었다”고 올림픽후원권 발행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 올림픽후원권의 발행은 1947년 7월 24일 구성된 올림픽후원회(회장 안재홍)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올림픽후원회는 올림픽후원권 발행 이외에, 영화 및 가극 공연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하여 올림픽 참가 경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후원회는 선수들의 환송회와 환영회, 그리고 격려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올림픽참가를 주도하였다.
 - 올림픽후원권은 1장에 100원으로 백사십만장이 발행되었다. 당첨금은 1등의 경우 1장으로 100만원, 2등은 2장으로 50만원, 3등은 3장으로 10만원, 4등 5장으로 5만원, 5등은 10장으로 만원이었다. 이와 같은 당첨금액은 상당한 금액으로, 당시 물가와 비교해 보면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광복 후 2년을 넘어서 당시 쌀 한가마 값은 8300원 정도, 금 한 돈은 5600원 정도였다. 또 소금 한 되(100원), 이발료는 120원 정도였다.
 - 올림픽후원권은 서울시와 각 지구별로 발행하였는데, 발행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인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발매기간과 당첨자 발표가 연기되기도 하였으며, 올림픽후원권을 한 장 구입하는 구매자들에게는 올림픽참가기념우표 2매를, 그리고 백장 이상을 구입하는 구매자들에게는 올림픽기념장을 증정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도 사정에 의하여 취소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올림픽후원권 발행은 조선사회의 이슈가 되어 당시 미군정청장인 하지 중장도 후원권을 구입하며 올림픽후원회에 서한을 보내어 조선민족의 거족적인 협력으로 조선의 이름을 세계에 떨칠 것을 독려하기도 하였으며, 올림픽후원권을 한 장 더 구입하고자 하는 캠페인이 신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올림픽후원권 당첨자 중 일부는 당첨권 일부를 지방교육사업에

써달라고 당국에 기부하는 등 훈훈한 모습이 전국에 전달되기도 하였다.

- 이처럼 본 유물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인 1948년 런던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점에서 올림픽참가에 대한 당시의 국민적 열망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물이다. 특히, 본 유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복권, 그리고 올림픽후원권 제1호라는 점에서도 그 가치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본 유물은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인 1948년 런던올림픽 참가에 대한 당시의 국민적 열망과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유물이라고 생각됨

라. 이원순 유물

- 1) 분 야 : 근대체육
- 2) 명 칭 : 이원순 유물
- 3) 규격 및 소유자(소재지)

유물명	규 격	재 질	제작년도	소유자(소유처)	소재지
여행증명서	21×30cm, 2매	종이	1947년	대한체육회 (한국체육박물관)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
런던올림픽 단복	길이 71cm, 도련 너비 53.5cm	모직	1948년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4) 현 상

- 여행증명서는 이원순(1890~1993)이 1947년 6월 20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40차 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타이핑하여 작성한 타자본 여권임. 제1면에는 이원순의 성명, 국적, 선친관계, 미국의 거주지와 가족관계, 개인신상사항, 사진, 자필서명 등의 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2면에는 각 출입국의 출입관리에 관한 사항이 필사 또는 스탬프되어 있음. 대한체육회 산하의 한국체육박물관이 전시를 목적으로 대한체육회 임원이었던 이원순으로부터 기증받은 유물임
- 런던올림픽 단복은 1948년 런던올림픽 한국대표팀의 고문자격으로 참가한 이원순(李元淳)의 단복으로 유물은 짙은 갈색 모직(wool) 더블 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의 블레이저(Blazer)로 왼쪽 가슴에 휘장이 달려있으며, 휘장의 위에는 KOREA, 아래에는 태극과 올림픽 마크가 있음. 소재는 약간 거칠고 두꺼운 울로 만든 홑옷이나, 소매와 어깨 앞길 부분에는 안감이 대어 있음. 이원순이 1986년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단복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런던올림픽 단복으로는 유일함

5) 등록가치(의견)

- 여행증명서
 - 대한민국이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원국으로 가입되고 런던 올림픽경기대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 IOC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런던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하여 정부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료로서,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개인여권임(○○○)
- 런던올림픽 단복
 - 신생국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세계무대에 등장한 첫 공식 활동의 단복으로 체육사는 물론 우리나라 외교사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임(○○○)
 - 1948년 런던 올림픽 당시의 단복으로 유일하게 남아있음(○○○)
 - 휘장의 자수기법과 자수상태로 보아 당시의 것으로 확인됨(○○○)

6) 조사자 의견

가. 여행증명서

<문화재위원 ○○○(서지학)>

- 현 황 : 비등록
- 명 칭 : 이원순국제올림픽위원회총회참가여행증명서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

- 소 유 자 : 대한체육회 한국체육박물관
-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산223-19
- 수 량 : 1점
- 규 격 : 30.0×21.0cm, 2매
- 재 질 : 지류(紙類)
- 관 종 : 타자본
- 형 식 : 낱장물
- 조성연대 : 1947년
- 현 상

- 書誌記述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 / 李元淳 作成. -- 打字本.
-- [發行地不明] : [李元淳타이핑], [1947年 6月 10日頃]

2枚 : 寫眞(李元淳證明, 黑白), 自筆署名(李元淳), 30.0×21.0cm. 洋紙. 낱장物.
製紙社: Ginn Paco Bond(워터마크)

內容: 第1面

AFFIDAVIT OF IDENTITY AND NATIONALITY

This is to certify that I, Won Soon Lee, have been / asked by the Korean Olympic Committee and the Athletic / Association of Korea to attend the International Olympic / Committee meeting at Stockholm, Sweden, to be held from June 18th / to 21st, 1947, as their representative, and also to negotiate / with the British Olympic Committee in London for the participation / of the 1948 International Olympic Games by Korean entries. This / request also came from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 in Korea. I intend to travel to Stockholm, Sweden by way of / London, England.

Name - Won Soon Lee

Born - Seoul, Korea, October 8, 1893

Father - Pil Sun Lee

Mother - Paik See

Entered United States of America October 8, 1914

Present address - 105-109 E. Houston Street, / New York 2, N.Y., U.S.A.

Lived in United States continuously for 33 years,

Lived in Korea 20 years

My wife, Mary S. Lee, was born in Korea, January 13, 1903.

Address: c/o USAMGIK, Seoul, Korea / U.S. Army Employee, /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 Welfare, / APO #235-2 c/o P.M. San Francisco

Personal description:

hgt-5'4" ;

Weight - 147 pounds

age - 53 years

color of hair - black; eyes - brown

Distinguishing marks - burn scar on top of left hand

I am making this Affidavit because the Korean / Government has no

diplomatic representative in this country at / present to this issue me a passport.

寫眞

Won Soon Lee(자필서명) Won Soon Lee

subscribed and Sworn to

before me this 10th day of

June, 1947.

第2面

BRITISH PASSPORT CONTROL OFFICE

NEW YORK

NO. 18370 DATE JUN 11 1947

VALID FOR

TO UNITED KINGDOM

VIA

PURPOSE OF VALID

SHORT VISIT

VALID FOR MONTHS FROM DATE.

P.C.O.

- 現狀

- 調査文化財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은 大韓體育會 산하의 韓國體育博物館이 展示를 목적으로 大韓體育會 任員이었던 故 李元淳(1890-1993)으로부터 受贈한 것이다.
- 調査文化財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 등에 사용된 紙質은 洋紙이고 <國際올림픽委員會會員國認證書>에 사용된 紙質은 1940년 대 당시의 感光의 複寫紙이며, 각각 額子 속에 장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결같이 낚장物이다.
- 調査文化財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는 현재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23-19의 大韓體育會의 소유이며 韓國體育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 調査文化財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의 保存狀態는 外面上 양호한 듯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은 현재 급속한 酸化가 進行되고 있다. 따라서 保存處理 專門機關을 통한 紙類文化財保存處理가 시급한 상황이다.
- 調査文化財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를 維持·管理하고 있는 韓國體育博物館은 각종 施設·裝備의 면은 물론 學藝研究士·司書 등의 研究·管理要員도 전혀 없는 一般 展示室과 같은 施設規模이며, 名稱만 博物館일 뿐 施設·裝備·管理要員 등의 博物館 登錄要件을 갖춘 公式의 登錄된 博物館이 아니다.
- 현재 韓國體育博物館에는 調査文化財 이외에도 각종 文化財를 소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施設·裝備로는 소장된 각종 文化財의 保存狀態가 惡化一路에 놓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大韓體育會의 文化財와 博物館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나아가 현대적 시설을 갖춘 韓國體育博物館의 新築이 시급한 상황이다.

○ 내용 및 특징

- 調査文化財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는 李元淳(1890-1993)이 1947년 6월 20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國際올림픽委員會(IOC) 제40차 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타이핑하여作成한 打字本旅券으로 오늘날의 일반적인 旅券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國家올림픽委員會(NOC)의 구성이 先行條件이었으나, 1947년 당시 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라 國內의 여건상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7년 6월 20일에 스톡홀름에서 國際올림픽委員會 제40차 總會가 개최될 때, 大韓(朝鮮)體育會副委員長이며 大韓(朝鮮)올림픽準備委員會委員長이던 田耕武(1900-1947)가 國際올림픽委員會의 초청으로 總會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의 올림픽參加與否를 협의·결정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田耕武는 동(1947)년 5월 29일에 김포비행장에서 美軍輸送機 C514호에 탑승하여 日本 東京으로 날아가던 도중 午後 10시 30분경에 日本 가나가와현(神奈川縣) 아쓰기(厚木) 西方의 山岳地帶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동승한 41명의 승객·승무원과 함께 慘死하였다. 田耕武의 조난 후에 大韓올림픽準備委員會에서는 당시 뉴욕에 거주하던 在美僑胞로서 韓美貿易商社社長이며 朝鮮商工會議所美洲派遣員이던 李元淳에게 田耕武의 업무를 대행하여 國際올림픽委員會 제40차 總會에 출석할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李元淳이 大韓올림픽準備委員會의 요청을 수락하여 1947년 6월 20일에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國際올림픽委員會 제40차 總會에 참가하기로 결정되었다. 본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는 당시 李元淳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國際올림픽委員會 제40차 總會에 참석하기 위하여 本人이 직접 타이핑하여 作成한 打字本旅券이다. 본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는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歐美委員會委員長이던 李元淳이 당시 독립 대한민국의 政府가 수립되지 않은 때 인지라 손수 타이핑하여 작성한 旅行證明書이다. 李元淳은 이 증명서로 스웨덴의 입국비자를 받은 후 스톡홀름 현지에 도착할 수 있었으며, 국제올림픽 위원회(IOC)는 대한민국의 올림픽경기 참가를 위한 각종 노력과 값비싼 代價의 희생을 치른 사건들을 잘 이해하고 마침내 滿場一致로 대한민국의 런던 올림픽경기대회 참가자격을 승인하였다.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의 제1면에는 李元淳의 姓名, 國籍, 先親關係, 美國의 居住地와 家族關係, 個人身上事項, 寫眞, 自筆署名 등의 사항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2면에는 각 出入國의 出入管理에 관한 사항이 筆寫 혹은 스탬프되어 있다. 본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는 당시 급박한 대한민국의 國內外的 상황에서 李元淳이 田耕武를 대신하여 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이 國際올림픽委員會 會員國으로 加入되고 런던 올림픽경기대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 문헌자료

- 文化財廳 近代文化財課, 2011 近代文化遺産 體育分野 目錄化調査報告書. 大田 : 文化財廳, 2011.
- 1956年 冬季올림픽 朝鮮서 開催하라, 李元淳氏 美國서 主張. 東亞日報 및 京鄉新聞. 1947年 6月 24日字.
- 나의 이력서: 李元淳 全經聯顧問. 每日經濟新聞. 1988年 4月 13일자, 4月 14日字.

○ 기 타

- 所藏·管理 : 調査文化財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은 현재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223-19의 大韓體育會의 소유이며 韓國體育博物館에 의해 維持·管理되고 있다. 韓國體育博物館은 각종 施設·裝備의 면은 물론 學藝研究士·司書 등의 研究·管理要員도 전혀 없는 一般展示室과 같은 施設規模이며, 名稱만 博物館일 뿐 施設·裝備·管理要員 등의 博物館 登錄要件을 갖춘 公式의 登錄된 博物館이 아니다. 현재 韓國體育博物館에는 調查文化財 이외에도 각종 文化財를 소장하고 있으나 현재의 施設·裝備로는 소장된 각종 文化財의 保存狀態가 惡化一路에 놓일 것으로 판단되는 바, 大韓體育會의 文化財와 博物館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나아가 현대적 시설을 갖춘 韓國體育博物館의 新築이 시급한 상황이다.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調查文化財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은 登錄文化財로 登錄하여 學術적으로 研究·管理·保存할 만한 가치가 있다.
- 查文化財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는 李元淳(1890-1993)이 1947년 6월 2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國際올림픽委員會(IOC) 제40차 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타이핑하여 作成한 打字本 旅券이다. 당시 급박한 대한민국의 國內外的 상황에서 李元淳이 田耕武를 대신하여 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에 참가하여, 대한민국이 國際올림픽委員會 會員國으로 加入되고 런던 올림픽경기대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학술적으로 연구·관리·보존할 가치가 있다.

- 종합의견 : <李元淳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參加旅行證明書>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학술적으로 연구·관리·보존할 가치가 있음

<한국체육대학교 ○○○ 교수(체육사)>

- 현 상 : 대한체육회 임원이었던 이원순씨가 한국체육박물관 설립 시 전시하기 위해 기증받은 것임
- 내용 및 특징 : 이 여행증명서는 일반여권과 많은 차이가 있음. 1947년 당시 우리나라는 독립된 국가가 성립되기 전이었고,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참가하려면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데, 국내여건상 그러한 과정을 거칠 수가 없었음. 원래 전경무 부위원장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 참석하기로 하였으나, 가는 도중 일본의 후지산에서 비행기추락으로 사망하자 조선체육회에서는 부랴부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이원순씨가 대신 참여하도록 주선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이에 이원순씨는 시급하게 직접 타이핑하여 여권을 만들어 스웨덴으로 가서 총회에 참석하였음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여행증명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미위원회 위원장 이원순씨가 직접 타이핑하여 만든 것임. 당시 한국은 독립은 되었으나 정부가 수립되지 않은 때여서 이원순은 손수 타이핑하여 만든 여행증서를 지참하여, 스웨덴 비자를 받은 후 스톡홀름 현지에 도착하였음. IOC는 한국의 올림픽 운동 참가를 위한 노력과 값비싼 대가를 치른 사건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만장일치로 한국의 올림픽 참가 자격을 승인하였음. 이 여행증명서는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원순씨가 전경무를 대신하여 IOC총회에서 우리나라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중앙대학교 ○○○ 교수(체육사)>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유물은 1947년 한미무역상사 사장이자 조선상공회의소 미주과견원인 이원순이 한국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가입을 위하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IOC총회에 참석할 목적으로 직접 타이핑하여 작성한 여권 대용 여행증명서이다.
 - 1947년 당시 우리나라는 1948년 제14회 런던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조직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하여야만 했다.
 - 이를 위하여 조선체육회는 1946년 6월 16일 런던올림픽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1947년 봄 런던올림픽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전경무는 에버리 브런디지(Avery Brundage) IOC 부위원장을 방문하여 한국의 올림픽 참가를 위한 협조를 교섭해 승낙을 얻었다. 전경무 부위원장은 에버리 브런디지의 권고로 같은 해 6월 15일부터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가는 도중 일본의 후지산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하자 조선체육회에서는 미국 뉴욕에 거주하고 있던 이원순이 대신 참여하도록 주선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 이 때, 이원순은 미국 시민도 아니며, 한국 정부가 수립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문서 용지에 타이핑으로 이름과 나이, 본적, 주소 등과 함께 “나는 한국인으로 KOC와 대한체육협회의 요청을 받아 IOC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영국올림픽위원회(BOC)와 1948년 런던올림픽 참가문제를 협의하려 한다”는 내용을 기입, 이를 공증받아 여권대용으로 사용하였다. 이원순은 개인적으로 만든 이 여권을 이용하여 영국총영사관과 덴마크, 스웨덴영사관에서도 입국사증(비자)를 발급받았고, 덴마크를 거쳐 스웨덴 스톡홀름에 입국하여 지그프리트 에드시트림 IOC위원장과 에버리 브런디지 부위원장에게 IOC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46년 6월 20일 IOC는 KOC를 승인하고 IOC에 가입시킴으로서 한국은 1948년 런던올림픽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참가할 수 있었다.
 - IOC 역사상 국가 성립 이전에 국가 단위의 올림픽위원회, 즉 NOC가 승인된 것은 KOC가 유일한 경우로, 이는 일제 식민지통치로부터 해방되어 신생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공인받은 것을 의미하는 주요한 사건이었다.
 - 본 유물은 광복 이후 미군정 상황 하에서 개최되는 첫 올림픽인 제14회 런던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료로서,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개인여권으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로, 이원순(1890~1993)은 1917년 하와이로 망명하여 대한독립단 회장, 대한민국임시정부 워싱턴 주재 구미위원 등을 지냈고, 1953년 귀국 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표, 한국경제인협의회 고문 등을 역임하였다.
- 종합의견 : 본 유물은 광복 이후 첫 올림픽인 제14회 런던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료라고 생각됨

나. 런던올림픽 단복

<한국체육대학교 ○○○ 교수 (체육사)>

- 현 상 : 이 유물은 1948년 런던올림픽대회 한국대표팀 임원과 대한체육회 고문을 지낸 이원순(李元淳)씨가 1986년 5월 직접 기증했음
- 내용 및 특징
 - 이 단복은 1948년 런던올림픽 한국대표팀의 고문자격으로 참가한 이원순(李元淳)의 단복이다. 서울 Tailor Top이라는 양복점에서 제작되어 모직재질로 되어 있음. 상의 왼쪽 가슴에 올림픽 한국대표선수단 로고와 대한민국 휘장이

있음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1948년 런던올림픽대회는 제2차 세계대전이후 첫 번째로 열린 올림픽으로써 패전국인 독일, 일본 등이 참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생국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세계무대에 등장한 첫 공식 활동이었음. 이렇듯 1948년 런던올림픽 참가는 체육사는 물론 우리나라 외교사에도 상당히 중요한 사건임. 이 단복은 런던올림픽에 참가한 한국대표팀이 입었던 2개 단복 중 1복으로 선수단 고문이었던 이원순씨가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왼쪽 가슴에 선명한 대한민국 올림픽 참가 휘장이 있고, 이 단복은 이원순이 기증한 대한민국 최초의 단복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유일함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써 가치가 충분히 있음

<서울여자대학교 ○○○ 교수 (한국복식사)>

- 명 칭 : 이원순 런던올림픽 단복
- 소 유 자 : 독립기념관
-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95
- 수 량 : 1점
- 규 격 : 남성용 상의
- 재 질 : 감색(紺色) 모직(毛織, wool)
- 형 식 : 서양 남자복 (blazer, doble breasted)
- 조성연대 : 1948년 추정
- 현 상

- 이 유물은 짙은 감색 모직(wool) 더블 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의 블레이저(Blazer)로 왼쪽 가슴에 휘장이 달려있으며, 휘장의 위에는 KOREA, 아래에는 태극과 올림픽 마크가 있다. 소재는 약간 거칠고 두꺼운 울로 만든 홉옷이다. 홉옷이나 소매와 어깨 그리고 앞길 부분은 안감이 대어있다. 길이 71cm, 도련 너비 53.5cm이다. 더블 브레스티드(double breasted)로 전면에 뿔[角]로 만든 단추가 3개씩 2줄로 달려있고, 소매에도 단추는 3줄이었으나 오른쪽 소매의 단추 1개는 유실되어 2개만 남아 있다. 안쪽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Tailor Top이라는 상호로 추측되는 라벨이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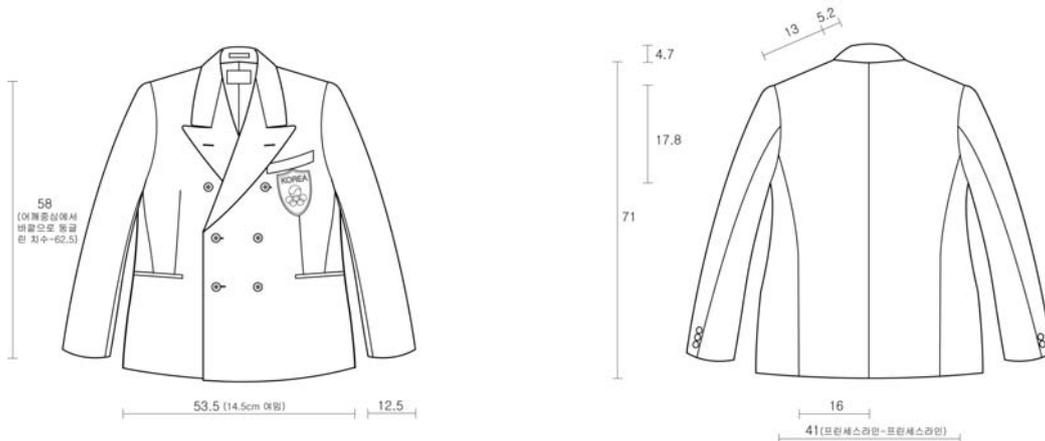


<그림1> 감색 상의에 부착된 휘장



<그림2> 감색 상의의 안감에 부착된 상호

현재 상태는 우수하여 별다른 보존처리는 필요하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좀이 슬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 내용 및 특징

- 2012년 1월 16일 조사 당일 문화재청에서는 1948년 런던 올림픽 게임 (1948.07.29~1948.08.14)에서 역도 동메달 수상자인 김성집 선생을 모셨다. 김성집 선생은 처음에는 감색 단복을 보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측에서 제공한 사진을 본 후 기억을 되살렸다. 당시에는 감색 상의와 회색 바지를 입었다고 한다.
- 이 감색 블레이저(blazer)는 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두꺼운 듯하나 훗날이고, 런던의 날씨를 생각하면 셔츠 위에 입을 수 있을 정도일 것 같다.
- 이 옷 외에 재일동포가 기증한 일본에서 만든 옷감을 가지고 한국에서 만든 회색 슈트(아래, 위 동일한 색의 옷감)를 1벌씩 지급받았다고 한다.

○ 문헌자료



<그림3> 1948년 런던 올림픽 단원 : (출처 독립기념관)

○ 기 타

- 이 유물은 1948년 런던 올림픽 대회 한국대표팀 고문과 대한체육회 고문을 지낸 이원순(李元淳, 1890~1993)씨가 1986년 5월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에 직접 기증했다고 한다.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원순(李元淳)씨가 기증한 검색 상의는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참가하였던 대한민국 대표단의 단복이다. 가슴에는 태극마크와 KOREA라고 하는 휘장이 선명하게 붙어있다. 1948년 런던 올림픽이 열릴 당시에는 아직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다. 1947년 가입 승낙을 이끌어냈고, 1948년 7월 런던올림픽 단장으로 선수와 임원을 이끌었다.
-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참가한 올림픽은 1948년 1월 스위스 생 모리츠에서 선수 4명과 임원 5명이 참가한 동계올림픽이었다. 이후 1948년 런던 하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남녀 70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였고, 참가국들 중 가장 먼저 입촌식을 가졌다.
- 이 검색 상의는 입촌식 사진과 그 외 대한민국 대표단 입장식 사진에서도 이원순씨가 착용한 것이 확인된다. 입촌식 때는 이원순씨만 검색 상의를 입고 있고, 나머지 단원들은 회색 슈트(상하의)를 입고 있으나 그 외 사진에는 일부 단원들이 검색 상의와 회색 하의를 입고 있다. 이는 1948년 런던 올림픽 역도 동메달 리스트 김성집씨의 회고와 일치하는 것이다.
- 이 검색 상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8년 런던 하계 올림픽에 참가한 KOC 단복으로, 현재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이다. 김성집씨의 회고에 의하면 “1950년 한국전쟁 때 태극기 휘장이 있는 옷은 생명의 위협과 연관되어, 모두 불태워 없앴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대한민국 근현대 복식유물은 만나기가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2012년 올해 하계올림픽은 런던에서 개최된다.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IOC에서 KOC 승인을 받고, 대한민국 대표단이 1948년 런던 하계 올림픽에 참가하여 대한민국 이 하계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2개의 동메달을 획득한 첫 올림픽의 단복으로 이 옷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매우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문화재로 등록해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 종합의견 : 이 유물은 1948년 런던 올림픽 한국대표팀의 고문으로 참가한 이원순(李元淳)이 기증한 단복 가운데 상의 1벌이다. 짙은 검색(紺色) 모직으로 만들어진 더블브레스트(double breasted)의 블레이저(blazer)로 한국에서 제작되었다고 한다. 왼쪽 상부 포켓에는 올림픽 한국대표단 로고와 대한민국 휘장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1948년 런던 올림픽 당시의 단복으로 유일한 것이므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국립민속박물관 ○○○ 학예연구관 (한국복식사)>

- 명 칭 : 이원순 런던올림픽 단복
- 소 유 자 : 독립기념관
- 수 량 : 1건 1점
- 규 격 : 전체길이 71cm, 가슴둘레 107cm, 소매길이 58cm
- 재 질 : 겉감은 모직, 안감은 면(등판은 안감 없음)과 합성섬유(소매안감쪽)
- 조성연대 : 1948년(런던올림픽 개최시 제작)
- 현 상
 - 명칭 : 테일러드 재킷(더블)
 - 색상 : 남색
 - 소재 : 모직(겉감, 짙은 남색), 면직(안감, 옅은 남색), 합성섬유(소매부분)
 - 단추 : 전면 6개(大), 소매(小 좌측 3개, 우측 2개 1개 결실)
 - 포켓 : 좌측 상단 1개, 하단 양옆에 2개
 - 올림픽 휘장 : 좌측 상단 포켓 밑에 부착(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KOREA’는 금사 자수, ‘태극’무늬는 홍색과 남색으로 자수, ‘오륜기’는 오색으로 자수마크의 가장자리는 금사자수

○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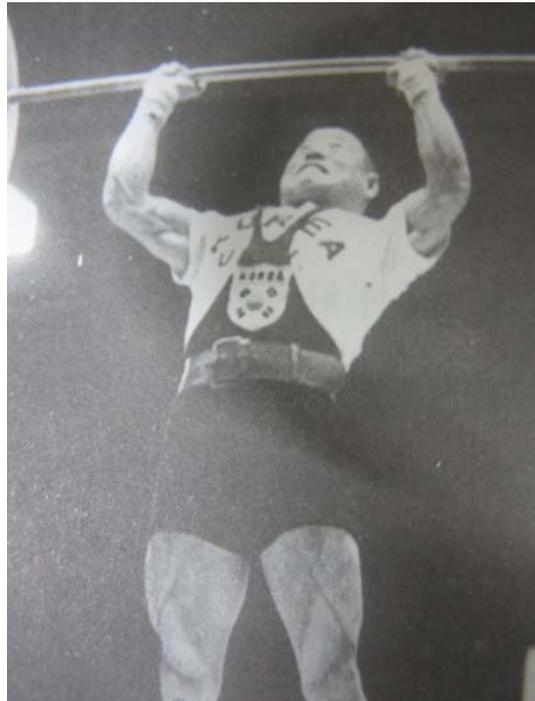
- 1948년 개최한 제 14회 런던올림픽의 단복의 하나[사진4]
- 당시 역도 동메달리스트인 김성집 옹의 증언[사진2, 3]에 의하면, 한국대표선수단은 2벌의 단체복이 있었는데, 한 벌은 회색수트였고, 다른 1벌이 남색재킷이었다. 회색수트는 당시 제일동포가 제작하여 기증한 것이고, 남색은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것이라고 하였다.
- 당시 선수들의 단체사진[사진6]을 보면, 회색으로 보이는 수트 차림새와 짙은색(남색으로 추정)재킷을 입은 모습 두 타입을 모두 볼 수 있다.
- [사진6]를 보면 회색수트의 재킷상의도 2버튼의 테일러드 재킷 스타일로 좌측 포켓 밑에 [사진1]의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사진6]에는 선수들은 모두 회색 수트이고, 중앙에 외국인과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은 남색재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람의 재킷에는 [사진2]의 역도선수가 부착한 휘장(태극기가 새겨진 휘장)과 같은 것을 하고 있다. 이로 보아 휘장의 종류가 2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이 재킷은 1948년에 개최한 제 14회 런던올림픽의 단복의 하나로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유일한 것이다.
- 재킷에 부착된 올림픽 휘장은 1948년 것으로 판단되며, 휘장의 자수기법과 자수상태로 보아 당시의 것으로 확인된다.
- 재킷의 직물은 모직물인데, 상당히 거칠고 두꺼운 것으로 질이 떨어진다. 옷감의 출처가 정확하지는 않으나, 김성집옹의 증언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작하였다고 하므로 당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한 원단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제 14회 런던올림픽은 7월 29일 개막하여 8월 15일에 폐막하였다. 기후는 상당히 더운 여름날씨였으나 재킷의 직물을 모직물로 사용한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러나, 습기가 많은 영국의 날씨를 고려한다면 개막식, 폐막식 등의 의례용으로 잠깐씩 입는 용도로는 입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옷을 제작할 때 옷의 형태를 잡기 위한 최소한의 부분만 안감을 대고, 등판부분에는 안감을 대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선수단단복을 하계올림픽 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에도 입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 모직물로 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근대문화재는 한국전쟁과 주거생활의 변화(아파트)로 이사가 잦아지고, 보관장소의 협소한 점 등으로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이다. 이 재킷과 사진 등의 런던올림픽 자료가 남아있었던 것은 그나마 기증자인 이원순 선생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자료의 소중함과 희귀성을 고려하여 잘 보관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소중한 근대문화재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보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사진1] 재킷에 부착되어 있는 제 14회 런던올림픽 휘장



[사진2] 런던올림픽에 참가중인 역도선수 김성집



[사진3] 런던올림픽 단복 조사모습



[사진4] 제 14회 런던올림픽 선수단이 착용한 재킷



[사진5] 재킷의 안감과 안감의 목부분에 부착되어있는 제작처 레이블



[사진6]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단체사진



[사진7] 런던올림픽에 참가한 한국 농구선수단

라.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 페넌트

- 1) 분 야 : 근대체육
- 2) 명 칭 :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 페넌트
- 3) 소 유 자 : 대한체육회 한국체육박물관
- 4)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
- 5) 수 량 : 1점
- 6) 규 격 : 아랫면 143cm, 높이 43cm, 빗면 143.5cm
- 7) 재 질 : 옹
- 8) 제작년도 : 1948년
- 9) 현 상

- 제14회 런던올림픽대회에 한국대표선수단이 가져간 페넌트(Pennant)로 약 150cm길이에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며, 페넌트의 좌측에 'KOREA', '1948'이 적혀있고 태극기가 새겨져 있음. 중앙에는 '조선올림픽대표단', 그 아래에 영문으로 'KOREAN OLYMPIC TEAM'이라고 써넣었음
 -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한국체육박물관에 기증한 것임
- 10) 등록가치(의견)
- 런던 올림픽스타디움에 기수가 들고 들어갔던 태극기가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와 KOREA를 세계에 알렸던 것으로 남아있는 유일한 페넌트임(○○○)
 - '조선올림픽대표단'이라는 명칭을 통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해지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좋은 유물임(○○○)
 - 1948년 런던올림픽에서 당당히 KOREA라는 이름과 태극기를 새겨 넣은 의미 깊은 페넌트임(○○○)

11) 조사자 의견

<한국체육대학교 ○○○ 교수(체육사)>

- 현 상 :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한국체육박물관을 만들 당시에 기증한 것임
- 내용 및 특징 : 이 런던올림픽대회 페넌트는 약 150cm길이에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페넌트의 좌측에 KOREA, 태극기, 1948가 있고, 중앙에 조선올림픽대표단이란 한글을 썼으며, 그 아래에 영문으로 KOREAN OLYMPIC TEAM이라고 하는 글을 써넣었음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1948년 런던올림픽 당당히 KOREA란 이름을 사용하고 태극기를 새겨 넣고, 조선올림픽대표단이라고 칭하였음. 한국에서 출발할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직 국호도 정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조선'이란 이름을 명기하였음. 런던올림픽은 체육활동은 물론 모든 외교무대에서 태극기를 사용한 첫 공식적 외교무대였음. 당시 런던 올림픽스타디움에 기수가 들고 들어갔던 태극기가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와 KOREA를 세계에 알렸던 것으로 유일한 페넌트로 등록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됨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중앙대학교 ○○○ 교수 (체육사)>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대회에 처음 참가한 것은 1932년 제10회 LA올림픽 때 부터이며, 그 주인공은 복싱의 황을수, 마라톤의 권태하와 김은배 선수였다. 그러

나 아쉽게도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한국이 아닌 일본 대표선수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그리고 1936년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손기정과 남승룡 선수 역시 일본 대표선수로 올림픽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 1948년 7월 런던에서 개최된 제14회 올림픽대회는 우리나라 체육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대회이다. 이 대회는 우리나라가 KOREA라는 국호 아래, 태극기와 국기를 가지고 참가한 최초의 올림픽대회이기 때문이다.
- 올림픽대회는 단순한 국제경기대회가 아니라 국가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스포츠외교의 정상무대이며 국제스포츠교류의 꽃이다. 제14회 런던올림픽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독립한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므로 우리로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런던올림픽대회에 꼭 출전해야만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태극기를 앞세우고 출전했던 런던올림픽대회는 한국체육사에 신기원을 이룬 동시에 올림픽 역사에서도 뜻 깊은 대회였다.
- 지금 같으면 10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 런던 길을 서울-부산-하카타-요코하마-상해-홍콩-캘커타-카이로-로마-암스테르담 등 10곳을 기차와 배 그리고 비행기를 갈아타며 무려 480시간의 살인적인 여정을 밟아 찾아갔다. 출전한 선수들 대부분이 30세 이상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잘 싸워서 우리나라의 국위를 크게 선양했다. 특히 역도 미들급에 출전한 김성집 선수에 이어 복싱 플라이급에 출전한 한수안 선수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하여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시상대에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당시 3천만 우리 민족에게 뜨거운 감격을 안겨 주었다.
- 본 유물은 우리나라가 KOREA라는 국호를 달고 처음 참가한 런던올림픽대회 때 대표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패넛트로 그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특히, 한글로 적혀 있는 '조선올림픽대표단'이라는 명칭을 통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해지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좋은 유물이라 할 수 있다.
- 종합의견 : 본 유물은 우리나라가 KOREA라는 국호를 가지고 참가한 첫 런던올림픽대회 때 조선올림픽대표단이 가지고 갔던 패넛트로, 그 상징적 가치가 매우 큰 유물이라 생각됨

<문화재전문위원 ○○○ (보존처리)>

1) 기본 내용

본 유물은 1948년 런던올림픽에서 당당히 KOREA라는 이름과 태극기를 새겨 넣은 의미 깊은 패넛트이다. 런던 올림픽은 7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열렸으며, 우리 축구선수단은 그보다 이른 6월 21일에 서울에서 출발하였다. 선수단이 떠나기 전 제헌국회에서 특별히 출전 선수들에게 보내는 격려 메시지를 채택하였고, 덕수궁에서는 서울 시민들이 환송 대회를 열어줄 만큼 관심이 높았다. 한국에서 출발할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국호를 정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조선'올림픽대표단이라고 칭하였으며, 본 패넛트는 대한올림픽위원회에서 보관용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한국체육박물관 건립 당시에 기증한 것으로, 약 150cm의 길이에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2) 조사 방법

가) 규격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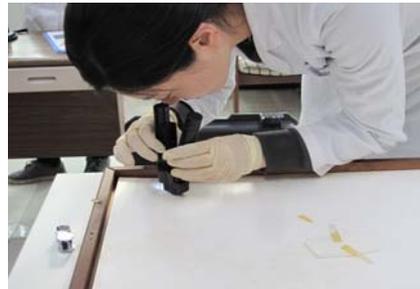
대상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하여 액자 형태를 해체한 뒤 규격과 구성을 조사하였다.



해체 및 규격 조사 모습

나) 육안 및 현미경 관찰

페넨트의 기초적인 보존 상태 조사를 위하여 육안 관찰 및 사진 촬영을 통해 현상을 기록하고 디지털 영상현미경(DG-3, Scalar社, JP, 30배)을 통해 직물의 미세관찰을 실시하였다.



현미경 관찰 모습

다) 색도 분석

현재 색의 관찰 및 기록을 위해 대표적 색상별 위치를 선정하여 색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색도는 KS A 0063의 규정에 의거하여 CIE 표색계의 L^* , a^* , b^* 값으로 표시하였다. 색도는 기본적으로 명도, 색상, 채도로 평가되며 L^* 값은 명도 수치로 0~100까지 표시되며, 낮을수록 명도가 어두워진다. a^* 와 b^* 는 색상과 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값이 높을수록 채도가 좋은 색상이며 $+a^*$ 는 적색, $-a^*$ 는 녹색, $+b^*$ 는 황색, $-b^*$ 는 파란색의 경향을 각각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BYK 社의 A-6800을 사용하였으며 한 측정 위치에서 3번을 측정하여 평균 값을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모습

분석 위치는 총 7곳으로 바탕직물인 암적색, 군청색의 2곳과 국소적인 흰색

4곳, 다홍색 1곳을 측정하였으며, 위치는 다음과 같다.



색도 분석 위치

3) 조사 결과

가) 규격 및 구성

페넌트는 유리액자에 넣어 펼쳐져 있는 상태로 분석을 위하여 잠시 해체하였다. 암적색 직물을 바탕으로 하여 군청색 직물을 덧댄 형식으로 도안에 따라 흰색 직물을 올려 바느질한 흔적이 보였다. 가로 143cm, 높이 43cm 였으며 변의 길이는 143.5cm, 3색 실의 길이는 100cm였다.



※ 태극기 크기 : 가로 12cm, 세로 8.5cm

나) 육안 및 현미경 관찰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으나 좀과 곰팡이에 의한 피해가 보였으며, 바느질 (weaving)의 울이 풀린 모습도 곳곳에서 관찰되었다. 육안 관찰 및 디지털 영상현미경 관찰을 통해 용 직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용 직물은 면사를 이용하여 평직 또는 능직으로 짠 후 보풀이 일게 한 직물로 촉감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며 흔히 플란넬렛(flannelette)으로 불리기도 한다.



얼룩이 진 모습



디지털 영상현미경 사진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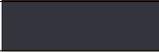


디지털 영상현미경 사진 (×100)

다) 색도 분석

색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색도 분석 결과

번호	색상	색상	L*	a*	b*	비고
1	암적색		14.41	15.93	4.84	바탕직물
2	군청색		22.52	1.72	-5.09	
3	흰색		74.95	3.17	14.35	한글
4	흰색		72.76	2.74	13.24	영문
5	흰색		67.55	4.47	17.37	깃
6	적색		35.48	39.49	25.77	양태극
7	흰색		60.24	2.73	15.91	음태극

4) 보존 관리 방안

본 유물은 육안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해 보이지만, 좀과 곰팡이 등 생물적 피해로 인한 갈색 얼룩 등이 곳곳에 발견됨에 따라 훈증과 용매를 이용한 얼룩 부분의 부분세척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평면형태의 직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펼쳐서 보관하며 습도의 통기가 불가능한 유리액자류가 아닌 개방된 평면 전시대에

보관하여 조습제 등을 사용함으로써 보관 장소의 온·습도, 조도 조건을 적절히 조절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 훈증처리

- 훈증처리에는 방법적 분류에 따라 피복 훈증, 밀폐 훈증, 포장 훈증, 감압 훈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유물에는 형태에 알맞게 포장 훈증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포장 훈증은 대형 건축물에 주로 사용되는 피복 훈증과는 달리 소형 서적류, 고문서류, 복식류 등 부피가 작은 유물을 훈증소독하는 방법이다. 메틸 브로마이드, 에틸렌 옥사이드 등의 약품이 사용되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친환경성 생물 방제 방법으로 많이 전환되는 추세이다. 이 밖에도 상황에 따라 살충을 위한 파라디클로로벤젠과 살균을 위한 티몰 등 대상을 밀폐한 후 약품을 휘발시켜 훈증하기도 한다.

○ 식물 문화재 보관

- 유기질 문화재의 보관은 적절한 환경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 식물 문화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온도 $20\pm 2^{\circ}\text{C}$, 습도 55~65%의 환경 기준을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재질 특성상 자외선(UV)에 의한 손상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필름이 부착된 램프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5) 종합의견 : 본 유물은 1948년 런던올림픽에서 당당히 KOREA라는 이름과 태극기를 새겨 넣은 의미 깊은 페넌트이다. 용직물로 짜여진 페넌트로 생물 피해에 의한 손상이 발견되어 부분세척과 훈증처리가 필요하며 직물류 문화재 보존환경기준에 따른 보관이 필요하다.

마. 제1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우승컵

- 1) 분 야 : 근대체육
- 2) 명 칭 : 제1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우승컵
- 3) 소 유 자 : 대한체육회 한국체육박물관
- 4)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
- 5) 수 량 : 1점
- 6) 규 격 : 높이 24.5cm, 컵의 지름 19.2~24cm
- 7) 재 질 : 금속
- 8) 제 작 자 : 아시아축구연맹(AFC)
- 9) 제작년도 : 1956년

10) 현 상

- 1956년 홍콩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의 우승컵으로 상단에는 ASIAN CUP이라고 쓰여져 있으며 중간에 축구공 모양이 있고 그 가운데 AFC가 새겨져 있음. 그리고 하단에는 1956, WINNER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음
- 이 우승컵은 1956년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한국선수들이 들어 올렸던 그 우승컵은 아니며,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아시안컵 초창기엔 우승국에게 우승컵을 수여하지 않았고, 대신 실물보다 작은 사이즈의 순은(銀) 우승컵을 만들어 우승팀 선수들에게 나눠주었던 우승컵임
- 대한체육회가 1985년 '뿌리 찾기' 캠페인을 벌였으며, 당시 축구협회로부터 1956년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기증받아 한국체육박물관에 소장·전시하고 있음

11) 등록가치(의견)

- 현재 아시아의 축구강국으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국축구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임(○○○)
- 축구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제1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서의 우승컵은 한국 축구역사에서 가지는 상징적 가치가 큼(○○○)
- 한국축구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 표면에 전체적으로 산화피막이 덮여있고, 녹이 발생한 상태임(○○○)

12) 조사자 의견

<한국체육대학교 ○○○ 교수(체육사)>

○ 현 상

- 대한체육회가 1985년 '뿌리 찾기' 캠페인을 벌였으며, 당시 축구협회로부터 1956년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를 기증받음
- 내용 및 특징 : 이 우승컵은 1956년 홍콩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의 우승컵임. 우승컵의 상단에는 ASIAN CUP이라고 쓰여져 있으며 중간에 축구공 모양이 있고 그 가운데 AFC가 새겨져 있음. 그리고 하단에는 1956, WINNER이라는 문구도 새겨져 있음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우승컵은 제1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우승을 차지해 받은 것임. 대회는 4개 팀이 풀리그로 진행했는데 참가국은 한국, 홍콩, 이스라엘, 월남이었으며, 경기결과는 3승 1무였음. 이 대회로 한국축구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는데 1957년 대한축구협회가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축구발전의 기틀을 만들었음. 한국은 제2회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음. 이 우승컵은 현재 아시아의 축구강국으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FIFA월드컵 7회 연속출전이

라는 아시아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국축구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임

- 그러나 이 우승컵은 1956년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한국선수들이 들어 올렸던 그 우승컵은 아님.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아시안컵 초창기엔 우승국에게 우승컵을 수여하지 않았고, 대신 실물보다 작은 사이즈의 순은(銀) 우승컵을 만들어 우승팀 선수들에게 나눠주었음. 현재 한국체육박물관에 전시 중인 우승컵이 국내 유일한 우승컵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등록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중앙대학교 ○○○ 교수 (체육사)>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본 유물은 1956년 홍콩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우승하였을 때 참가 선수들에게 수여된 순은 우승컵이다. 아시안컵 초창기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우승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대신 실물보다 작은 사이즈의 순은 우승컵을 만들어 우승팀 선수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 제1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는 동·서·남·북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예선과 준결승전을 홈앤드어웨이로 치룬 후, 지역에서 승리한 4팀들이 결승리그를 통하여 우승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개최되었다.
 - 동부지역에 속한 한국은 필리핀과의 예선전을 2대0(마닐라, 2월 25일)과 3대0(서울, 4월 21일)으로 승리한 후, 준결승전을 자유중국(현, 대만)과 가졌다. 준결승전에서도 2대0(서울, 8월 26일)과 2대1(타이페이, 9월 2일)로 자유중국을 완파하고 결승리그에 진출하였다. 결승리그는 1956년 9월 홍콩에서 한국, 홍콩, 이스라엘, 월남(현 베트남) 4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경기 결과, 한국은 2승 1무로 우승을 차지하였고, 2위는 이스라엘, 3위는 홍콩, 4위는 월남에게 돌아갔다.
 - 제1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는 한국의 우승으로 끝났다. 그러나 한국이 우승을 차지하기까지는 많은 역경을 극복하여야만 했다. 한 예로, 필리핀과의 마닐라 1차 예선 참가가 무산될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대한축구협회는 지금과는 달리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1954년 한국은행으로부터 14,060불을 빌려 싱가포르 원정을 다녀왔다. 대한축구협회는 부채를 청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 대한체육회 총재였던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대회 참가 재가를 받지 못하여 대회 참가가 무산될 뻔 했다.
 - 이처럼 우여곡절 속에서 일구어낸 제1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서의 우승은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의 국제대회 우승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대회에서의 우승을 계기로 1957년 대한축구협회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여 한국 축구발전의 기틀을 만들었으며, 현재 아시아의 축구강국으로서 FIFA월드컵 7회 연속출전이라는 아시아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한국축구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최초의 국제대회 우승이자 축구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제1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에서의 우승컵은 한국 축구역사에서 가지는 상징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종합의견 : 본 유물은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최초의 국제대회 우승이자 축구발전의 기초가 되었던 제1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우승컵으로 문화재로 등록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됨

<문화재전문위원 ○○○(보존처리)>

1) 기본 내용

현재 한국체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우승컵은 대한축구협회에서 85년에 기증한 유물로 1956년 홍콩에서 개최된 제1회 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의 우승컵이다. 우승컵의 상단에는 ASIAN CUP이라고 쓰여져 있으며 중간에 축구공 모양이 있고, 그 가운데 AFC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1956, WINNER이라는 문구도 새겨져 있다.

본래 이 우승컵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승 당시 선수들이 들어올렸던 우승컵은 아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아시안컵 초창기에 우승컵을 수여하고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대신에 실물보다 작은 사이즈의 순은(銀)으로 제작된 우승컵을 선수들에게 나눠줬다. 따라서 본 유물은 그 당시의 선수 중 한 명이 받았던 우승컵이다. 1985년에 대한체육회에서 “뿌리찾기”라는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그 일환으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기증받은 유물이다.

한국은 제1회, 제2회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였고, 제2회가 열렸던 1960년 이후로는 우승을 못했고, 현재 제2회 아시안컵의 우승컵의 행방은 모르는 상태로 본 유물은 유일무이한 아시안컵 우승컵으로 한국축구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제1회 아시안컵 축구대회 참가 선수 및 우승컵

(출처 : 2012.1.18., 중앙일보

“애타게 찾던 1956년 아시안컵 우승 트로피, 눈앞에 있었네”)

2) 조사 방법

가) 규격 측정

정확한 규격을 측정하기 위해 실측용 자를 이용하여 mm단위로 측정하였고, 지름과 두께를 측정하고, 전자저울(제품명)을 이용하여 금메달의 중량을 3번 측정한 후, 평균 중량을 구했다.



트로피 규격 측정

나) 육안 관찰

육안으로 확인되는 우수컵의 상태를 ‘점검정보기본카드’에 기입하고, 육안으로 관찰되는 손상상태를 확인하였다.



점검정보기본카드 작성

다) 성분 분석

우수컵의 성분 분석을 위해 휴대용 형광 X선 분석장치(이하 P-XRF) 분석기기(Innov-X System社의 Portable XRF Analyzer)를 사용하여, 조사경 5mm, alloy mode 및 soil mode로 모든 시료에 동일한 조건(40kV, 4W, Measurement Time 30sec)을 유지하여 원자번호 15번(P, 인) 이상의 원소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P-XRF를 이용한 성분 분석

성분 분석은 우수컵 5곳을 측정하였고, 그 위치는 아래와 같다.



성분 분석 위치

3) 조사 결과

가) 규격 측정

우승컵의 전체 높이는 24.5cm이고, 컵이 하단부의 지름은 19.2cm, 상단부인 컵의 지름은 24cm로 확인되었다.



나) 육안 관찰

우승컵은 은으로 구성된 유물로 본래는 광택을 갖는 은색을 띠지만 산화로 인해 검은색의 피막이 형성되었다. 전반적으로 검은색의 피막이 발생했지만 부분적으로 본래의 은색을 띠는 곳이 있으며, 피막과는 다르게 부분적으로 검은색의 황화은(silver sulfide, α, β -Ag₂S) 부식생성물이 발생한 곳도 육안으로 확인되었다.



산화로 인한 표면 변색 및 부식생성물

또한 이전에 우승컵 표면에 부착되었던 접착물질로 인한 오염도 확인되었다.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부착물 자체의 오염과 주변에 잔재해있던 접착물질에 먼지 등의 외부오염물질이 흡착되면서 2차적인 오염을 발생시켰다.



인위적으로 발생된 오염물(접착제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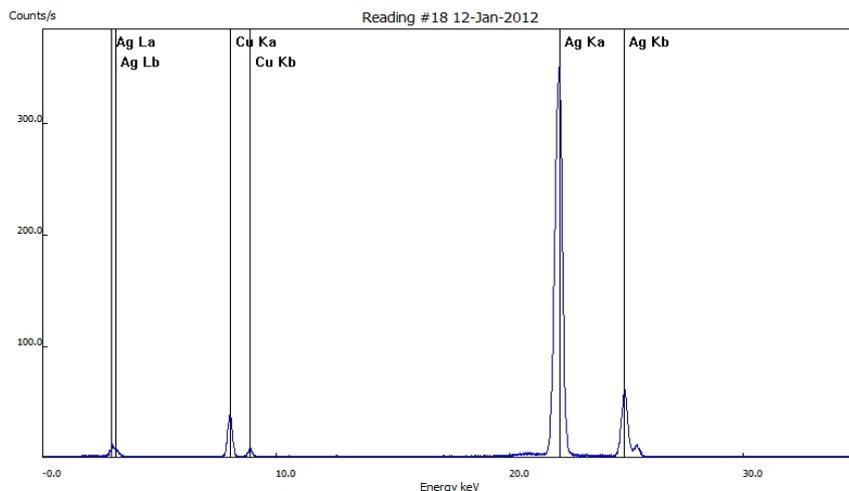
그 외에 우승컵의 하단부인 플라스틱 부분이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일부 깨져서 탈락된 부분이 있었으며, 우승컵 바닥에 있는 직물 또한 이전의 테이프자국과 여러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본래의 색상을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 및 직물 오염

다) 성분 분석

P-XRF 분석 결과, 은(Ag)이 주성분으로 검출되었고, 구리(Cu)가 부성분으로 검출되었다. 분석은 총 5곳을 측정하였으나 각각 검출원소의 Counts/s가 약간의 차이만 있고, 피크의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우승컵 ①번 포인트 분석 결과

육안으로 확인된 피막으로 은제품으로 추정되었고, 분석 결과로 은(Ag)으로 구성된 우승컵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리(Cu)가 부성분으로 검출되었고 5곳의 측정위치에서 5~9%의 함량이 확인되어 이는 불순물로 판단할 수 없다. 은제 유물에 구리가 들어 있는 부분은 차후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보존관리 방안

본 유물은 전체적으로 은으로 구성된 것으로, 은은 그 물리적 성질이 물러서 외부의 가벼운 물리적 충격에도 쉽게 흠이 발생하며, 아황산가스(SO₂), 황화수소(H₂S) 등과 반응하여 황산은(AgSO₄)과 황화은(Ag₂S)으로 되고 염화물과 반응하면 염화은(AgCl)으로 된다. 이러한 부식생성물은 부식이 점차 심해지면 분말로

변하여 금속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또한 표면에 전체적으로 검은색의 부식물(황화은, Ag_2S)이 덮여 있을 때도 있다.

은제유물은 표면이 흑화 되면서 부식이 진행되는데, 우승컵의 표면을 덮고 있는 산화 피막과 국부적으로 발생된 검은색 녹이 이에 해당하며 증류수 또는 에탄올을 면봉 또는 유리섬유솜을 이용하여 얇은 녹층을 제거해준다. scalpel과 같은 뾰족한 소도구를 사용하여 녹을 제거할 때는 표면에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해야 한다. 녹을 제거한 후 외부공기와의 차단을 위해 Paraloid B-72 용액으로 표면에 코팅처리를 한다. 은제유물은 표면을 외부공기와 차단시키면 부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강화 처리할 때 주의를 기울여서 처리해야 한다. Paraloid B-72는 농도가 올라갈수록 표면에 광택이 발생하므로 되도록 저농도인 10~20%로 적절히 조절하여 강화처리 한다.

IIC(국제문화재보존학회), ICOM(국제박물관회의), ICCROM(국제보존수리복원센터) 등에서는 금속유물의 온습도에 관한 보존환경을 $20\pm 2^\circ C$, 45%이하로 권장하고 있다. 본 유물 또한 동일한 환경에서 전시하고 보관해야하며, 두 조건을 모두 맞추기 어렵다면 상대습도 45%이하 기준을 우선적으로 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식생성물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우승컵을 상설 전시할 경우, 단독으로 전시될 경우 쇼케이스 내의 온습도를 위의 기준에 맞춰줘야 하고, 다른 유물과 함께 전시될 경우, 되도록 쇼케이스 내부는 동일한 금속유물끼리 배치시키고 온습도를 맞춰줘야 한다. 쇼케이스 자체에 기기설비가 되어있지 않아 온습도 유지가 어려울 경우, 쇼케이스 내부에 제습제를 전시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위치시켜 내부의 습도를 45%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5) 종합의견 : 본 유물은 한국축구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조사결과 은제유물이고, 표면에 전체적으로 산화피막이 덮여있고, 국부적으로 녹이 발생한 상태이다. 원래의 가치를 드러내고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보존처리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7.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유물

- 일제치하의 암울한 시기에 우리 민족의 긍지를 심어준 쾌거의 부상품이라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해외 유물로는 유일하게 보물(제904호)로 지정되어 있는 청동투구의 가치와 더불어 현재 손기정기념재단에 소장되어 있는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 『금메달』, 『우승상장』, 『우승월계관』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체육유물이라고 사료된다.
- 손기정 선생은 일제치하의 암울했던 시기에 일본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2011년 12월 15일 IOC는 대한체육회(KOC)의 요청을 수용해 75년 만에 손기정 선생의 손을 들어주었다. IOC는 일본의 식민지 시절 손기정이 한국 선수였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일본식 이름인 '손기태'에서 한국식 이름인 '손기정'으로 바로잡았다.
- 그러면서 "당시의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알게 돼 더욱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록 손기정의 국적은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여전히 남아있지만 올림픽 역사에 그의 이름 석 자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 손기정 선생은 우리 마라톤 역사는 물론이요 한국인이 세계 스포츠계로 뻗어나가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 준 인물이다. 더불어 한국인의 긍지와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 그러므로, 손기정 선생에게 수여된 제11회 베를린올림픽대회 마라톤 『금메달』, 『우승상장』, 『우승월계관』은 한국체육사에 의미 있는 유물이라 사료되어 동 유물들이 문화재에 등록된다면 체육인의 사기가 충전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 대한체육회 소장 유물

- 한국체육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체육관련 유물중 정부수립 이전에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IOC(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올림픽대회에 KOC(한국선수단)가 최초로 참가할 수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 첫째, 한국올림픽위원회가 IOC에 가맹하게 된 회의(1947년 스톡홀름 총회)에 참석한 이원순 선생의 「여행증명서」, KOC가맹을 IOC로부터 승인 받은 「IOC가입승인서」, 1948년 런던올림픽 참가 경비마련을 위하여 발행한 한국최초의 복권인 「올림픽 후원권」 런던올림픽 참가지 한국선수단이 만들어간 「폐넌트」 등은 오늘날 한국이 올림픽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역사적으로 귀중한 자료라 사료된다.
- 또한, 대한민국 축구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된 1956년 제1회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서 자랑스럽게 우승한 「우승컵」은 한국체육사에 의미있는 유물이라 사료되어 동 유물들이 문화재에 등록이 된다면 체육인의 사기가 충전되고 우리나라가 세계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8. 유물 현황사진

<p>가. 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유물(금메달)</p>	<p>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유물(상장)</p>	<p>제11회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우승 유물(월계관)</p>
		
<p>나. 제14회 런던올림픽 후원권</p>	<p>다. 이원순 유물(여행증명서)</p>	<p>이원순 유물(런던올림픽 단복)</p>
		
<p>라. 제14회 런던올림픽 참가 패너트</p>	<p>마. 제1회 아시안컵축구대회 우승컵</p>	
		

2. 「부산 전차」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동아대학교 소장 「부산 전차」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동아대학교에서 등록신청한 「부산 전차」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1.17)를 실시하고, 등록예고 기간('12.2.16~3.17)을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동아대학교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 명칭 : 부산 전차(釜山 電車)
 - 소유자 : 동아대학교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구덕로 225
 - 보관처 : 동아대학교박물관
 - 수량 : 1량
 - 형식 : 전·후 운전 반강제 보기(Bogie)식 노면전차
 - 구조 및 규모 : 길이 14m, 높이 3.2m, 폭 2.4m
 - 제작사 : Cincinnati Car Company, GP&L 893호
 - 제작년도 : 1927년
- (3) 주요 추진경과
 - '11.11.30 문화재 등록 신청(동아대학교 박물관)
 - '12.1.17 문화재 등록 조사
 - 조사자 : ○○○ 한국철도박물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12. 2. 2 근대문화재분과 제1차 문화재위원회 검토
 - 등록예고
 - 기간 : '12.2.16~3.17(30일간)
 -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심의내용 : 문화재 등록 심의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1.17)>

- 한국철도박물관 ○○○ 등 3인 의견 : 붙임 참조

<근대문화재과 검토의견>

- 부산에서 운행하던 전차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차로 역사성이 있으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등록 가결
- 출석 9명, 찬성 9명

- 붙임 1. 부산 전차 문화재 등록조사 보고서('12.1.17) 1부
2. 동아대학교박물관 제출자료 1부

<붙임 1>

「부산 전차」 문화재 등록조사 보고서

1. 명 칭 : 부산 전차(釜山 電車)
2.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구덕로 225번지 동아대학교박물관
3. 소유자 : 동아대학교

4. 대상물 개요

- 명 칭 : 부산 전차
- 보관처 : 동아대학교박물관
- 구조 및 규모 : 길이 14m, 높이 3.2m, 폭 2.4m
- 형 식 : 전·후 운전 반강제 보기(Bogie)식²⁾ 노면전차
- 제작사 : Cincinnati Car Company
- 제작년도 : 1927년
- 차량 부품별 사양 및 규격

구 분		사양 또는 규격	비 고
전 차		Cincinnati Car Company에 주문번호 2960으로 제작의뢰한 860-899시리즈 중 893호	Georgia Power Company에서 제작의뢰
전 차 부속품	운 전 대	General Electric의 K-35-JJ LB-4형	손잡이 복원 제작
	제동제어대	Westinghouse의 M28A형	
	공기압축기	Westinghousedml DH-15형	
	동력장치	Motor GE 265A형	
	집 전 기	뷔겔(Bugel)형	

5. 현 상

- 동아대학교 소장 「부산 전차」는 1927년 미국 Cincinnati Car Company에서 제작한 반강제(半鋼製) 보기식(Bogie式) 궤도차량으로 미국 애틀란타에서 운행되었던 전차임. 1952년 무상원조로 수입되어 부산에서 운행된 전차 20량 중에서 1968년 마지막까지 운행된 전차 중의 1대임
- 이 전차는 한국전력(주)의 전신인 ‘남선전기(주)’에서 인수하여 운행 중 1968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동아대학교에서 1969년 2월 학습용으로 기증받아 구덕캠퍼스에 보관하면서 1980년 노후 파손부분 보완 및 도색과정을 거쳤음
- 2010년 12월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로 옮겨와 2011년 보존처리 및 복원 작업을 실시하여 동아대학교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전시하고 있음

2) 보기(Bogie)식은 차체의 중량을 각 차륜에 고루 분담시킴과 동시에 차체에 대해 자유로이 방향을 전환하여 차량의 주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 또는 이와 같은 장치를 가진 차량을 뜻함(출처 : 기계공학용어사전)

6. 등록가치(의견)

- 도입과 이용 시기 등 역사성과 부산시민의 애환이 담긴 문화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소장한 유물임(손길신)
-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여, 부산에서 운행했던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부산전차로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오래된 전차임(홍용기)
- 현재 남아있는 부속품은 전차가 운행할 당시에 사용했던 것으로 대부분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음(정광용)

7. 조사자 의견

<한국철도박물관 ○○○(철도)>

- 현 황 : 1927년 미국에서 제작되어 운행 중 1952년 부산시에 도입되어 1968년까지 운행했던 전차로 1969년 동아대학교(구덕캠퍼스)에 학습용으로 기증되어 보존했던 차량을 2010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로 이전하여 2011년 보존처리 작업을 완료하고 일반에게 공개 중
- 명 칭 : 부산전차
- 소 유 자 : 동아대학교박물관장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 수 량 : 1대
- 규 격 : 길이 14m, 높이 3.2m, 폭 2.4m
- 재 질 : 반강제(半鋼製)
- 형 식 : 전·후 운전 Bogie식 노면전차
- 조성연대 : 1927년
- 현 상
 - 한국에서의 전차 운행은 1899년 5월 4일 서울의 동대문과 홍화문 구간 운행을 시작으로 평양에서는 1907년 1월17일 평양~중성교간 전차운행이 시작되었고, 부산에서는 1909년 12월 20일 부산진~동래간 전차운행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국은 1951년 디젤전기기관차 반입에 이어 1952년 반입한 전차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전차로서 1927년 미국에서 제작되어 운행 중이었던 차량으로 도입 후 노후 정비 등으로 각종 부품이 사용되어 도입 당시의 원형은 보전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차는 한국전력(주)의 전신인 '남선전기(주)'에서 인수하여 운행 중 도로 자동차교통의 발달에 따라 서울시내 전차와 함께 1968년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1969년 2월 동아대학교(구덕캠퍼스)에 학습용으로 기증되었고, 1980년 노후 파손부분 보완 및 도색과정을 거쳤으며 2010년12월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로 이전 보전처리작업 완료 후 일반 공개 중이다.
- 내용 및 특징
 - 노면전차는 도로상에서 자동차와 함께 운행되어 선로면은 도로 표면과 동일한 위치여야 함에도 현재 유치 현황은 일반철도 궤도상에 있어 이의 보완이 필요하며, 전차의 전원은 전차선과 집전장치의 접촉을 통하여 공급되었기 때문에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 허공을 향해 있는 pantagraph와 접촉되는 전차선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 유물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는 관람객의 내부 출입은 통제되어야 하며, 내부출입 허용 시 통로 바닥 보전을 위하여 특수매트 등 보완재를 깔아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문헌자료 : 朝鮮鐵道史(1937년 조선총독부 철도국)

- 종합의견 : 도입과 이용 시기 등 역사성과 부산시민의 애환이 담긴 문화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소장한 유물로 등록문화재로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철도)>

- 명 칭 : 부산전차
- 소 유 자 : 동아대학교 박물관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구덕로 225번지 동아대학교 박물관
- 수 량 : 1량
- 규 격 : L14,000mm, W2,400, H3,200mm
- 재 질 : 철재·목재
- 형 식 : 반강제보기 전차
- 조성연대 : 1927년 미국 Cincinnati Car Company 제작
- 현 상
 - 1927년 미국 Cincinnati Car Company에서 제작한 반강제(半鋼製) 보기식(Bogie式) 궤도차량으로 미국 애틀란타에서 운행되었던 전차임.
 - 약25년 사용한 전차를 1952년에 도입, 1968년까지 부산 시내에서 운행되었던 전차임
 - 1969년 동아대학교가 운영회사(한국전력의 전신인 남선전기)로부터 기증 받아 보관해 오고 있음
 - 2011년 동아대학교에서 원형에 가까운 보존처리 작업을 실시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 내용 및 특징
 - 차체외부 및 주행장치
 - 지붕위의 집전장치 뷔겔(Bügel)의 보관상태가 양호함
 - 차체 외형은 원형에 가깝도록 철관 보강 작업과 페인팅 작업이 이루어짐
 - 차체를 지지하고 주행하는 부분인 대차(臺車)장치는 판스프링 등이 평편해지는 등 약간의 변형이 있지만 원형대로 보존되고 있음
 - 선로 장애물제거장치인 배장기(排障器)가 목재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임
 - 운전제어실 및 차체내부장치
 - 이 부산전차는 1량의 양쪽끝단에 운전대와 제동제어대를 구비하고 있어, 1량에서 양방향으로 운행할 수 있는 구조임. 운전대와 제동제어대는 보존상태 양호함
 - 객실내 제동장치밸브는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동절기에 동결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됨
 - 좌석은 좌우측에 2인용 각 12개씩 좌우측이 반대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바닥은 목재로 되어 있음
 - 출입문이 좌우 2개씩 4개가 설치되어 있고, 한쪽이 10개씩 모두 20개의 창문이 있음
 - 동아대학교에서 2011년 세심한 부분까지를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여, 부산에서 운행했던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부산전차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등록 가치
 - 역사, 문화, 사회, 경제, 생활 등의 분야에서 기념이 되고 귀중한 가치가 있음
 - 부산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를 널리 인식함.
 - 1950~1960년대 국내교통의 기술발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갖고

- 있음
- 판단에 대한 근거 기술
 - 국내 보존 전차 총 3량 중 1량으로써 미국에서 제작한 유일한 차량. 2량은 일본에서 제작한 차량임
 - 1927년 미국의 Cincinnati Car Company가 전차를 제작하여 애틀란타 시내에서 Georgia Power회사에 의해 약 20년 이상 운행되었던 차량을 도입(1952)하여 부산에서 1968년까지 운행한 것이어서 현존 전차 중 가장 오래된 전차임
 - 현재,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는 양호하고,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문화재로써 등록할 가치가 높음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용어 변경
 - 전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조종부 또는 속도제어기 → 운전대
 - 제동장치 → 제동제어대
 - ※ 운전대 옆의 제동장치는 제동제어대이며, 제동제어대를 포함한 공기파이프, 밸브장치 등을 통틀어 제동장치라고 함
 - 객실 내를 계속해서 개방할 경우 체크사항
 - 차체를 지지하고 있는 대차장치의 무게균형이 잘 맞는지 점검이 필요함.
 - 한 번에 많은 인원이 탑승하여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도록 유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교수(보존처리)>

- 현 황 : 노면전차
- 명 칭 : 부산전차
- 소유자 : 동아대학교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
- 수 량 : 1량
- 규 격 : 길이 14m×높이 3.2m×폭 2.4m(집전장치 제외)
- 재 질 : 외장-철제, 내장-목재
- 형 식 : 미국제
- 조성연대 : 1927년
- 현 상
 - 부산전차는 1927년 미국 신시내티에서 만들어져 애틀란타에서 운행되다 1952년 무상원조로 도입되어 1968년까지 부산시내에서 운행되었던 전차이다. 당시 이 전차는 미국에서 사용하던 중고차여서 폐차할 수준이었으나 FOA자금을 배분받아 전차관련 각종 부속품들을 사들여 노후된 차량을 정비하였다.
 - 이 후 전차운행이 중지되자 동아대 설립자인 고 석당 정재환 박사는 한국전력 측에 전차 1량을 기증해 줄 것을 요청해 남선전기 주식회사로부터 학습용으로 기증받아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에 보관해 왔다. 별도 시설 없이 야외에서 보관된 이 전차는 노출로 인한 부식과 훼손 등으로 1980년 전후면부 철판 완전교체, 지붕과 내부 목재 완전교체와 도색작업 등 대대적인 수리작업을 하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간이 보관동을 설치하여 보관해 왔다. 동아대학교 박물관 부민캠퍼스 이전과 서구청의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 작업에 맞춰 일반 시민 개방을 목표로 2010년 12월 전차를 부민캠퍼스로 옮겨와 전시와 관람을 위해 2011년 보존처리 작업을 실시하였다.
- 내용 및 특징
 - 전차 내부에 있는 전기배선 및 설비 UL plate를 통하여 이 전차의 생산지와 차

량번호를 파악할 수 있는데 부산전차는 1927년 Cincinnati Car Company에서 만들어진 GP&L 860-899 시리즈중 893호이다.

- 전차의 외형은 집전장치, 차체, 바퀴부 등 전체적으로 운행하던 당시의 모습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집전장치(Bow collector)는 도입시 가장 고전적 집전장치인 집전봉(Trolley Pole)형이었으나 후에 독일제인 뷔겔(Bugel) 형으로 교체되었을 것이다.
 - 차체는 표면이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철판을 덧대어 보강 조치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도장은 상부는 미색계통, 하부는 녹색계통, 중앙은 V자형 빨간 띠부분이 있다. 전차에서 샘플링한 페인트 층 분석결과를 보면 이 부산전차의 최초의 색은 올리브그린색과 크림색 계통의 페인트로 관찰되나 이는 1920년대 미국 운행 당시의 층으로 생각되며, 그 이후 도장층에서는 현재 도장되어 있는 미색계통과 녹색계통이 관찰된다. 이 관찰 결과를 보면 한국 도입후 운행(1952)~중지(1968)까지 미색계통과 녹색계통의 외부 도장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전차의 하부 동력장치와 바퀴부는 앞뒤로 두쌍이 있는데, 노후되어 기능적인 면에서 활용할 수는 없지만 전시적인 면에서 구성품이 원형대로 잘 남아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주기적인 관리만 유지한다면 보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내부는 앞뒤로 조정석, 2명씩 앉을 수 있는 좌석 24개, 각각의 미닫이문과 승하차 알림벨 등이 있다. 주로 바닥, 좌석, 문, 천장 등은 목재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부재는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안정성이 있다.
 - 전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조종부는 미국 GENERAL ELECTRIC 의 K-35-JJ 로 K-35 컨트롤러는 4개의 모터-컨트롤러로 이루어져 있다. 컨트롤러에 있는 손잡이 장치는 GE LB-4이다. 손잡이와 키는 복원품이지만 K-35-JJ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형태와 기능을 고려해 원형 그대로 복원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전차의 제동장치는 미국 Westinghouse 의 M 28A형으로 압축공기의 힘으로 제동을 거는 장치이고 제동장치용 공기압축기는 Westinghouse (Traction Brake Co) DH-15 형으로, 에어컴프레서는 90기압의 분당 10cubic feet의 성능을 가진다.
 - 제동장치용 손잡이도 분실로 인하여 M 28A형의 도면을 바탕으로 원형복원한 복원품이다.
- 등록가치 및 근거기준
- 부산전차는 1927년 미국 애틀란타에서 운행되다 1952년~1968년까지 부산 온천장~동래~서면~부산역~남포동~대신동 구간에서 운행하던 전차로 20세기 중반 부산시의 교통방식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유물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 1968년 전차운행이 중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미제 노면전차이다. 현존하는 전차는 서울에 남아있는 전차 2대로 전차 363호(등록문화재 426호), 전차 381호(등록문화재 467호) 모두 일제전차로 그 희소성이 있다.
 - 현재 남아있는 부속품은 전차가 운행할 당시에 사용했던 것으로 대부분 원형 그대로 잘 남아 있으며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이 대중화 되지 않았던 시절에 대한 교육 및 전시자료로 활용가치가 충분하다.

8. 유물 현황사진



<붙임 2-1>

부산 전차 보존처리보고서(요약)

1. 연 혁

- 부산 전차는 1927년 미국 신시내티에서 만들어져 애틀란타에서 운행되다 1952년 무상원조로 도입되어 1968년까지 부산 시내에서 운행되었던 전차임
- 미국에서 사용하던 중고차여서 전차 관련 각종 부속품을 사들여 1955년 3월까지 노후화된 차량을 정비
- 전차 운행이 중지되자 학습용으로 1969년 2월 23일 기증받아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에 보관되어 있다가 1980년 전후면부 철판 교체, 내부 목재 등을 교체하고 도색 작업을 실시하여 간이 보관동에 보관해 옴
- 1910년 12월 전차를 부민캠퍼스로 옮겨와 2011년 보존처리 작업 실시

2. 보존처리 공사

가. 보존처리 개요

- 공사내용 : 부산 전차 외장 및 내장 보존처리
- 공사기간 : 2011.1.17~2011.4.9(90일)
- 발 주 처 : 동아대학교
- 도 급 자 : 서진문화유산(대표 : 김선덕)
- 자문위원 : 문화재위원 이오희, 서울역사박물관 양필승

나. 공사내용

1) 외부 복원

- 지붕 : 전면 재시공
- 몸체
 - 전후면 철판부는 상태가 양호하여 재도장만 실시
 - 측면부 철판은 부식이 진행되어 철판부 일부 보완, 재도장
- 하부 기계부분 : 녹 제거 후 녹 안정화 처리, 보호코팅 처리
- 뷁겔 : 녹과 이물질 제거 후 표면처리, 방청 및 보호코팅 처리

2) 내부 복원

- 의자 및 창문 : 부실한 부분만 보완하여 교체 및 수리, 재도장
- 조종부와 제동장치 : 페인트 제거, 조종부와 제동장치 손잡이 복원

<붙임 2-2>

대상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서

1. 현 황

부산에서 전차운행이 1968년에 중지되자 한국전력의 전신인 남선전기주식회사로부터 학습용으로 기증받아 1969년 2월 23일 동아대학교 구덕캠퍼스 간이 보관동에 보관해 오던 것을 박물관 부민캠퍼스 이전과 서구청의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 작업에 맞춰 일반 시민 개방을 목표로 2010년 12월 전차를 부민캠퍼스로 옮겨와 2011년 보존처리 작업을 실시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2. 보존 상태 및 관리

2011년 보수정비(보존처리보고서 참조)를 하여 현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우천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전차에 대한 훼손 방지 억제용으로 CCTV를 설치하여 상시 주시하고 있으며 경비를 수시 순찰토록 하여 조치하고 있다.

3. 활용계획

대상 문화재를 보다 안전하고 장기간 보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계획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 외관 관람 : 연중 관람 가능

나. 내부 탑승 체험

1) 탑승 시간 : 오후 3:00~4:00 (단체 신청 : 수시 가능)

2) 탑승 방법 : 탑승권 소지자에 한함(박물관 접수대에서 무료 배부)

3) 탑승 인원 : 1일 100명 내외(단체관람객 제외)

4) 탑승 제한

가)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

나) 폭우, 눈 등의 기타 전차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람 제한

다) 전차 안에는 음료,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음

3. 등록 제169호 「대전 선화동 구 사범부속학교 교장 사택」 등록말소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소재 등록 제169호 「대전 선화동 구 사범부속학교 교장 사택」의 등록 말소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재 피해('11.12.19)를 입은 「대전 선화동 구 사범부속학교 교장 사택」에 대하여 소유자의 등록말소 신청이 있어 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루시모자원장
- (2) 대상문화재 : 대전 선화동 구 사범부속학교 교장 사택(등록 제169호)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6-20
 - 등록일 : 2005.04.15
 - 소유자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 건물현황
 - 구조/양식 : 목조/일식, 서양식
 - 수량 : 1동, 지하1층, 지상 1층
 - 건축면적/연면적 : 293.21㎡/311.93㎡
 - 건립시기 : 1930년대
- (3) 진행경과
 - '11.12.19 : 화재발생(전기콘센트 발화)
 - '11.12.21 : 현지조사
 - '12.01.30 : 복구관련 의견서 전달(대전시)
 - '12.02.02 : 문화재위원회 검토
 - '12.02.20 : 소유자 등록문화재 등록말소 의견 제출(우리청 방문)
 - '12.03.02 : 등록말소관련 관계자 회의 개최(대전시청)

- '12.03.05 : 소유자 등록말소 신청서 진달(루시모자원장)
- '12.03.23 : 소유자 등록말소 재신청
 - 소유자 의견
 - 루시모자원장 임우현 면담(2.20) 및 등록말소 신청서 제출(3.05/3.23)
 -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일제잔재인 건물을 세금로 복원하는 것은 부적합함
 - 소유자는 동 부지에 한 부모 가정을 위한 복지센터와 「구 사범학교 교장사택」 과 관련된 각종 유물을 전시하는 미니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복원 건물로는 이러한 시설의 수용이 어려워 등록말소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4) 심의 요청사항 : 문화재 등록말소 심의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1.12.21)>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는 화재 피해가 상당하여, 최종 가치 여부를 문화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 함

<문화재위원회 검토의견('12.02.02)>

- 등록가치 검토 보류
 - 복원 범위, 기준 등에 대한 검토

<근대문화재과 검토의견>

- 소유자가 등록말소를 강력히 희망하고, 화재 피해가 상당하여 복원하더라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등록 말소 가결
- 출석 9명, 찬성 9명

4. 사적 제258호 「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시 중구 소재 사적 제258호 「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7차 회의(2010.12.2) 결과 “조건부 가결”된 사적 제258호 「명동성당」의 주변 현상변경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서울시 중구 명동2가 1)
- (2) 대상문화재명 : 명동성당(사적 제258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1
- (3) 신청내용 : 다목적홀 구조물 보강 공사
 - 사업위치 : 서울시 중구 명동2가 1-1 외 22필지
 - 사업내용

구 분	허가사항('11.4.7)	변경 안
다목적홀(사도회관)	현상유지, 지하1층/지상2층	현상유지를 위한 구조 보강 가시설물 설치

- 이격거리 : 명동성당으로부터 76m
-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심의구역)
- (4) 심의사항 : 구조 보강을 위한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적정성 심의

라. 추진경과

- '10.03.05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문화재위원 ○○○(근대건축사), 문화재전문위원 ○○○(건축구조)·○○○(건축사)·○○○(건축사)
- '10.04.01 : 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위원회 심의(보류)
- '10.04.06 : 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자문위원회 구성(근대문화재분과 ○○○ 등 7명)

- '10.04.08 : 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자문위원회(제1차) 개최
 - 자문위원 : ○○○, ○○○, ○○○, ○○○, ○○○, ○○○(6명)
 - 자문결과 : 명동성당 본당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입증 자료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검토하기로 함
 - 명동성당 본당 기초 등 하부 구조를 포함, 현 상태에 대한 정밀구조 진단 자료
 - 명동성당 본당 하부 암반의 입체적 모식도 작성
 - 성당건물이 조적조 건물임을 감안, 건물 신축 및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한 지하 굴착에 따른 진동, 지하수위 변동, 지반 변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확인 등
- '10.07.28 : 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자문위원회(제2차) 개최
 - 자문위원 : ○○○, ○○○, ○○○, ○○○, ○○○(5명)
 - 자문결과 : 명동성당 본당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입증 자료 검토 결과 미비한 부분이 있어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재검토하기로 함
 - 성당 현 상태에 대한 정밀구조진단 자료와 관련하여
 - ① 2002년도 자료가 아닌 2010년 현황 분석 자료를 제출(필요 부분 벽돌·목재 등 시료 채취하여 조사한 자료 포함)
 - ② 성당 기초부 시굴 조사
 - ③ 벽돌과의 접합부 등을 포함한 목조트러스의 안전 상태 확인 자료 제출
 - 하부 암반의 입체적 모식도와 관련하여 3D 분석자료를 작성 제출
 - 지하수위 변동 관련하여 성당 후면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자료 작성 제출
 - ※ 각 조사에 관련한 책임연구자 등을 명기·서명 제출
- '10.10.13 : 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자문위원회(제3차) 개최
 - 자문위원 : ○○○, ○○○, ○○○, ○○○, ○○○, ○○○(6명)
 - 자문결과 : 명동성당 본당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등에 대한 보완자료 보고서의 검토결과 안전성에 대하여 확인함. 단, 종탑의 안전, 발굴부 단면도, 구조안전진단서 등도 포함하여 보완된 사항을 첨부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토록 함.
- '10.11.4 : 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위원회(보류)
 - 신축되는 교구청 신관의 건물층수를 조정하도록 함
 - 명동성당의 진입로, 광장 등은 그 역사성이 보존되도록 함.
- '10.11.23 : 보완서류 제출
- '10.12.2 : 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관련 문화재위원회(조건부 가결)
- '11.4.12 : 명동성당 주변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 관련 문화재위원회(가결)
 - 교구청신관 층수 감소(12F→10F), 연면적 감소(약 896㎡)

마. 관계전문가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3.28)〉

○ 문화재위원 ○○○, ○○○

- 명동성당 사도회관(구주교관)은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서양식 벽돌조 건물로 원형 보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해 가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설계된 가시설(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사도회관은 콘크리트 바닥 슬라브 설치, 내벽 일부, 계단실, 외벽 마감재 등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보수이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자문위원의 자문없이 해체이전 보관중인 옥외 돌계단의 확인과 발굴된 건물지의 보존안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

- 제시된 보강을 위한 가시설물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함
- 가시설 설치과정에서 사도회관 기초지반의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말뚝과 어스앵커 시공에 유의하기 바람
- 가설되는 철골트러스와 벽체 사이의 고무PAD는 신축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하기 바람
- 가설 시설물 철거 시까지 사도회관 구조벽체에 대한 계측(진동)을 수행하기 바람

○ 구조기술자 ○○○

- 가설 보강파일은 무소음, 무진동 공법에 의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설치 시 계측관리를 통해 시공 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사용 고무패트는 탄성변형률값이 낮은 재료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오며, 제거 시 접합부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람

〈근대문화재과 의견〉

- 사도회관의 보존을 위하여 가시설이 필요하므로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바. 심의결과 : 현상변경 가결

- 현상변경 가결
- 출석 9명, 찬성 9명

5. 사적 제213호 「우정총국」 문화재 구역 내 동상 설치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소재 사적 제213호 「우정총국」 문화재 구역 내 동상(흉상) 설치를 위한 현상변경허가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213호 「우정총국」 문화재 구역 내 동상 설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우정사업본부장(서울시 종로구 종로6)
- (2) 대상문화재명 : 우정총국(사적 제213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9-7
- (3) 신청내용 : 동상(흉상) 설치(작가:이상갑, 서울교대 미술교육과 교수)
 - 사업위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39-7
 - 사업내용 : 우정총국 문화재 구역 내 동상(흉상) 설치
 - 전체 규격 : 가로 75×세로 200×폭45cm(흉상부: 가로 60cm×세로85cm)
 - 재질 : 기단부→화강석, 흉상부→청동, 명판→청동, 설명판→청동 또는 알루미늄
 - 이격거리 : 우정총국 문화재구역 내
 - 현상변경허용기준: 문화재구역
- (4) 심의사항 : 2m 높이의 동상(흉상) 설치 적정성 심의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12.3.28)>

- 문화재위원 ○○○,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재 제시된 위치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설치되는 동상의 좌대는 단순한 형태가 바람직함
 - 설치되는 동상의 높이를 낮추기 바람
 - 동상을 설치하는 것은 인정되나 위치·형태를 심도있게 고려하여 변경하기 바람

〈근대문화재과 의견〉

- 설치되는 동상의 받침대를 축소하여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바. 심의결과 : 현상변경 부결

- 현상변경 부결
 - 외부에 동상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음
- 출석 9명, 찬성 9명

검 토 사 항

【검토사항】

안건번호 근대2012-02-006

6. 근대조각유물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근대조각분야 유물 중 역사적·사료적·예술적 가치가 큰 유물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근대문화유산 조각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용역」(2011년)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및 등록조사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유물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러들로 흉판' 등 6점

번호	유물명	작가	제작년도	크기(cm)	소유자	소장처	비고
1	러들로 흉판	김복진	1938	73×64×1.5~1.9	연세대학교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50(신촌 세브란스병원)	
2	최송설당 상	윤효중	1950	동상173×79×66 좌대 165×82×82	김천중고등학교	경북 김천시 송설로 137(송설역사관)	
3	해방	김만술	1947	70×30×30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 과천시 광명길 209(국립현대미술관)	
4	피리부는 소녀	윤승욱	1941	148.8×35×33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 과천시 광명길 209(국립현대미술관)	
5	현명	윤효중	1942	165.8×119×36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 과천시 광명길 209(국립현대미술관)	
6	소년 입상	김경승	1942	140.5×38×34.4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 과천시 광명길 209(국립현대미술관)	

(3) 주요 추진경과

- '11.3.30~9.30 근대문화유산 조각분야 문화재 목록화 조사
 - 용역기관 :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단장 ○○○ 교수)
 - 조사대상 : 근대기(대한제국~1960년) 조각품 (예술작품, 동상 등 공공조각)
 - 조사결과 : 기념조각 9건, 순수조각 21건, 종교조각 2건 등 32건 세부 조사
- '11.12.16 근대조각유물 문화재 등록추진 자문회의
 - 자문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근현대사학회 ○○○

- 자문결과 : 문화재 등록 조사 대상 유물 선정(7건 7점)

- 선정기준

- 조사된 조각작품 중 예술성, 역사성을 기준으로 작품 선정
- 1950년 이전작품으로 하고, 주요 작가별 작품을 안배함
- 역사적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의 경우 추후 검토하기로 함

○ '12.2.24/2.27/2.28 등록조사

- 조사자 : 가천대학교 교수 ○○○(미술사), 문화재전문위원 ○○○(근대미술사), 한남대 교수 ○○○(근대미술사)

- 조사처 :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등 4개소 7점

(4) 검토내용 : 문화재 등록 검토

라. 조사결과

순서	작품명	조사자 의견		
		○○○	○○○	○○○
가	러들로 흥판	○	○	○
나	최송설당 상	○	○	○
다	해방	○	×	○
라	피리부는 소녀	○	×	○
마	현명	△(보류)	○	△(보류)
바	소년입상	△(보류)	○	△(재고)

1) 러들로 흥판

- 현존하는 최고의 작품으로 김복진의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음(○○○, ○○○, ○○○)

2) 최송설당 상

- 한국 근대조각의 대표적 작가 윤희중이 6·25전쟁 이전에 제작한 것으로, 현존 전신 동상으로는 가장 이른시기의 작품(○○○, ○○○, ○○○)

3) 해방

- 광복의 기쁨을 주제로 한 것으로 시대상황에 의해 제작된 작품(○○○, ○○○)
- 희소성은 있으나 작품의 상태가 좋지 않고, 청동상이 지나치게 많이 주조됨(○○○)

4) 피리부는 소녀

- 원형에 가깝게 수리된 것으로, 작가의 유존작품이 희귀함(○○○, ○○○)
- 원작의 형상은 유지하나 보수를 통해 진정성이 상당히 훼손되었음(○○○)

5) 현명(弦鳴)

- 표현력은 훌륭하나, 친일작가로 작품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있으므로 보류

(○○○)

○ 현존하는 목조각이 거의 없고, 근대기 어떤 작품보다도 주목할 만한 작품
(○○○)

○ 근대문화재의 상징성으로 볼 때 추후 재논의가 필요함(○○○)

6) 소년 입상

○ 1942년 석고 원작은 없고, 1971년 제작한 청동작품이므로 보류(○○○)

○ 작가 생존시에 원본을 청동으로 주조한 유일한 작품이므로 가치높음
(○○○)

○ 석고 원형은 존재하지 않고, 근대문화재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등록 재고
(○○○)

마.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2.24/2.27/2.28)>

○ 가천대 교수 ○○○ 등 의견 : 붙임 참조

<근대문화재과 검토의견>

○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에 따라 등록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러들로
홍판」, 「최송설당 상」은 등록 예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자 3인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유물 4건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등록 예고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바.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등록 예고 조건부 가결

- 2건 2점 등록, 「러들로 홍판」, 「최송설당상」으로 등록 예고함

○ 출석 9명, 찬성 9명

붙임 : 근대조각유물 문화재 등록조사 보고서('12.2.24/2.27/2.28) 1부

<붙임>

근대조각유물 문화재 등록조사 보고서

1. 목 적

- 우리나라 조각 분야 중 역사적·사료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등록·보존
- 근대조각 유물의 문화재적 평가 및 가치 부여를 통해 근대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환경 조성

2. 추진경과

- '11.3.30~9.30 근대문화유산 조각분야 문화재 목록화 조사
 - 용역기관 :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단장 ○○○ 교수)
 - 조사대상 : 근대기(대한제국~1960년) 조각품 (예술작품, 동상 등 공공조각)
 - 조사결과 : 기념조각 9건, 순수조각 21건, 종교조각 2건 등 32건 세부 조사
- '11.12.16 근대조각유물 문화재 등록추진 자문회의
 - 자문위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근현대사학회 ○○○
 - 자문결과 : 문화재 등록 조사 대상 유물 선정(7건 7점)
 - 선정기준
 - 조사된 조각작품 중 예술성, 역사성을 기준으로 작품 선정
 - 1950년 이전작품으로 하고, 주요 작가별 작품을 안배함
 - 역사적 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의 경우 추후 검토하기로 함

3. 등록조사 대상(7점) : 초상조각 2점, 순수조각 5점

번호	유물명	작가	수량	재질	제작 년도	크기(cm)	소장처	조사일	비고
1	러들로 흉판	김복진	1	청동	1938년	73×64×1.5~1.9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250 (연세대 동은의학박물관)	2012. 2.27(월)	
2	최송설당 상	윤효중	1	청동	1950년	동상173×79×66 좌대 165×82×82	경북 김천시 송설로 137 (김천중고등학교)	2.28(화)	
3	해방	김만술	1	석고	1947년	70×30×30	경기도 과천시 광명길 209 (국립현대미술관)	2.24(금)	
4	피리부는 소녀	윤승욱	1	청동	1941년	148.8×35×33	경기도 과천시 광명길 209 (국립현대미술관)	2.24(금)	
5	현명	윤효중	1	나무	1942년	165.8×119×36	경기도 과천시 광명길 209 (국립현대미술관)	2.24(금)	
6	소년 입상	김경승	1	청동	1942년	140.5×38×34.4	경기도 과천시 광명길 209 (국립현대미술관)	2.24(금)	
7	조모상	김종영	1	석고	1936년 (추정)	37×22×20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3-2 (김종영미술관)	2.27(월)	

4. 등록조사 결과

- 가. 조사일자 : '12.2.24(금)~2.28(화) / 기간 중 3일
- 나. 조사자
 - 가천대학교 미술대 교수 ○○○(미술사)

- 문화재전문위원, 홍익대학교 대학원 부교수 ○○○(근현대미술사)
 -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근현대미술사)
- 다. 조사내용 : 조각유물 현지 조사 및 문화재적 가치 검토
 라. 조사대상 :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등 4개소 7점

5. 조사자 의견 (요약)

순서	작품명	조사자 의견		
		○○○	○○○	○○○
가	러들로 흥판	○	○	○
나	최송설당 상	○	○	○
다	해방	○	×	○
라	피리부는 소녀	○	×	○
마	현명	△(보류)	○	△(보류)
바	소년입상	△(보류)	○	△(재고)
사	조모상	×	×	×

가. 러들로 흥판

- 현존하는 최고의 작품으로 김복진의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음(○○○, ○○○, ○○○)

나. 최송설당 상

- 한국 근대조각의 대표적 작가 윤희중이 6·25전쟁 이전에 제작한 것으로, 현존 전신 동상으로는 가장 이른시기의 작품 (○○○, ○○○, ○○○)

다. 해방

- 광복의 기쁨을 주제로 한 것으로 시대상황에 의해 제작된 작품 (○○○, ○○○)
- 희소성은 있으나 작품의 상태가 좋지 않고, 청동상이 지나치게 많이 주조됨 (○○○)

라. 피리부는 소녀

- 원형에 가깝게 수리된 것으로, 작가의 유존작품이 희귀함 (○○○, ○○○)
- 원작의 형상은 유지하나 보수를 통해 진정성이 상당히 훼손되었음 (○○○)

마. 현명(弦鳴)

- 표현력은 훌륭하나, 친일작가로 작품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평가가 있으므로 보류 (○○○)
- 현존하는 목조각이 거의 없고, 근대기 어떤 작품보다도 주목할 만한 작품 (○○○)
- 근대문화재의 상징성으로 볼 때 추후 재논의가 필요함 (○○○)

바. 소년 입상

- 1942년 석고 원작은 없고, 1971년 제작한 청동작품이므로 보류 (○○○)
- 작가 생존시에 원본을 청동으로 주조한 유일한 작품이므로 가치높음 (○○○)
- 석고 원형은 존재하지 않고, 근대문화재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등록 재고 (○○○)

사. 조모상

- 제작연도 불분명, 소품의 습작, 작가의 대표작 아님 (○○○, ○○○, ○○○)

6. 등록기준(안)

- 작품이 역사적,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것
- 초기 작품 중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 작품의 원형이 잘 남아있고, 작가의 대표작인 것
- 동일한 작품으로 석고와 청동이 있는 경우에는 모본인 석고제품을 등록함
- 모본인 석고가 없는 청동작품인 경우 희소성 및 예술성이 있는 것

7. 유물별 세부 내용 및 가치

가. 러들로 흉판(러들로 胸板)

- 1) 명 칭 : 러들로 흉판(러들로 胸板)
- 2) 작 가 : 김복진(金復鎭)
- 3) 소 유 자 : 연세대학교
- 4) 소 재 지 :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50(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 5) 수 량 : 1점
- 6) 규 격 : 73×64×1.5~1.9cm
- 7) 재 질 : 청동
- 8) 형 식 : 부조
- 9) 조성연대 : 1938년
- 10) 조사자 의견

<가천대 교수 ○○○(미술사)>

- 본 작품은 1938년 서울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현재 연세대학교)가 작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다. 이는 평면의 청동 흉판으로 상단은 원형의 곡선으로, 하단은 직선의 형태로 윤곽선을 처리했다. 중앙에 별도의 원형 구획을 마련하여 주인공인 러들로의 측면 얼굴모습을 양각으로 표현했다. 형상기법은 매우 사실적이면서 섬세하여 마치 실물을 직접 대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주인공은 학위모를 쓰고 있으며, 왼쪽 아래로 늘어뜨린 장식 수술 끝은 눈썹까지 흘러내리게 했다. 얼굴모습은 날카로운 콧날 등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표현했고 등 뒤의 옷자락에 주름을 넣어 변화감을 주었다. 주인공의 외양과 성격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우수한 작품이다.
- 작품의 중앙에는 영문으로 러들로 교수의 재직기간(1912-1938)을 기리는 문장을, 우측에는 '교수 러들로 박사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하여'를, 좌측에는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직원 및 동창일동 근정'을 표기했다. 여기서 '세브란스'는 일본어 문자를 사용하여 제작시기가 일제 강점하임을 알려준다.
- 작품의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후면의 경우, 얼굴부분의 원형 테두리는 움푹 파였고, 전체의 윤곽선에는 시멘트 가루가 고착되어 있어 주물 작업 당시 혹은 작품의 시멘트 벽면 부착 당시의 흔적으로 보여진다. 특히 현재의 작품은 벽면 부착용 고리를 절단해 낸 자국이 남아 있다. 이같은 단면을 통해 청동 재질의 밀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바, 방짜처럼 양질의 청동 재료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작품은 세브란스병원 외과병동 입구에 부착되었으나

병원 신축 이전 등의 문제로 외과병동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필자(윤범모)가 확인하여 그 존재를 미술계에 보고했다.(중앙일보, 2008, 3, 18). 현재 원본은 동은의학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외과병동에는 복제본을 부착해 놓았다.

- 알프레드 어빙 러들로(Alfred Irving Ludlow, 1875-1961)는 미국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출신으로 외과 전문의이다. 그는 1912년 내한하여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와 세브란스병원 외과의사로 26년간 봉직하다 1938년 63세로 은퇴했다. 러들로는 한국 의학발달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이유복, 박형우 공저, 『알프레드 어빙 러들로의 생애 -동양 최고의 외과의사』, 연세대 출판부, 2000, 참조). 1938년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졸업앨범에는 러들로와 학생들이 도열하여 촬영한 기념사진을 수록했다. 이 사진의 중앙에 문제의 러들로 작품을 등장시켜 기념으로 삼았음을 확인하게 한다. 러들로 흉판 작품이 졸업앨범에 등장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이는 이 작품이 1938년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 김복진(1901~1940)은 일제 강점하인 1920-30년대 활동한 근대기 최초의 조소작가이면서 문예운동가로 명성을 떨친 선구자이다. 그는 나체상과 같은 일반 창작을 비롯 <최송설당 동상>과 같은 기념조형물, <금산사 미륵전 본존상>과 같은 불상 등 다수의 작품을 제작했다. 하지만 그의 동상 작품은 일제말 공출로 파괴되었고 그 이외의 작품은 6.25전쟁 기간 중 파괴되어 유존작품 전무의 작가로 표기되어 왔다. 근래에 그의 작품이 발굴되어 작품성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김복진은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KAPE)의 중심적 인물로 문예운동의 일선에서 활약했고,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에서 활동하다 일제치하에서 5년 이상의 옥중생활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의 독립정신을 인정하여 1993년 광복절에 고인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바 있다. 이는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것으로 미술인 가운데 보기 어려운 사례에 해당한다. 김복진은 근대 최초의 조소작가 혹은 문예운동가로 역사에 남는 인물이다. (윤범모 지음, [김복진 연구], 2010, 참조).
- 그동안 그의 유존작이 희귀해 작가적 평가에서 대중적 지지를 얻는데 불리했으나 이제 그의 작품이 확인됨에 따라 마땅히 재평가 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근대기 청동 작품 혹은 기념조형물로서 현존 최고, 최초의 작품인 <러들로 흉판>은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전문위원 ○○○(근현대미술사)>

- 명 칭 : 러들로 상
- 현 상 : 초상 주인공이 원형 안에 부조로 조각되어 있다. 주인공이 옆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여, 초상조각으로는 매우 특이하게 주인공을 묘사한 점이 흥미롭다. 부조의 판은 전체적으로 위는 원형, 아래는 직사각형이 서로 맞물리게 결합한 형태이며, 그 테두리를 양각으로 두르고 테두리의 좌우 중앙에 장식을 넣었다. 인물을 원형 안에 배치하고 그 둘레에 초상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Professor of Surgery / director of Research / 1912-1938/ Dedicated in grateful memory of his service to Korea by the Staff and Alumni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이 글씨 오른쪽에는 “교수 러들로 박사의 공적을 기념키 위하여” 좌

측에는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직원 급 동창일동 근정”이라 양각하였는데 ‘세브란스’라는 글씨는 가타가나로 표기되어 있어 제작시기가 일제강점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 한국 최초로 서양식 조각교육을 동경미술학교에서 공부한 김복진의 청동부조 작품이다. 초상의 주인공인 알프레드 어빙 러들로(Alfred Irving Ludlow, 1875-1961)는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이자 세브란스병원 외과의사로 26년간 봉직하였던 인물로, 1938년에 은퇴할 때 그의 제자와 교직원들이 초상조각을 의뢰하였다. 아쉽게도 작가의 사인이 없으나 문헌적 기록(조은정 논문 참조)으로 김복진 작품으로 간주된다. 김복진은 1935년부터 1940년 작고할 때까지 여러 점의 초상 형식의 동상을 제작했으나 대부분 일제강점기에 공출되어 현존하는 작품이 거의 없다. 2008년에 윤범모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어 소개되었고 현재 의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 문헌자료
 - 조은정, 「한국동상조각의 근대이미지」, 『한국근대미술사학』, 제9집, 2001, p. 234.
 - 윤범모, 「한국 첫 근대조각가 김복진 작품 햇빛」, 『중앙일보』, 2008. 3. 18.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일제강점기에 살아있는 인물을 초상조각으로 제작하여 기념하는 형식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이후 적잖은 초상조각들이 청동상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동안에 대부분 공출되어 현존 작품이 거의 없다. 더구나 제작자가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조각을 공부했던 김복진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 역사적 가치가 있다. 보존상태도 매우 좋고 원본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김복진의 조각 솜씨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단, 상의 명칭을 “러들로우”가 보다는 “러들로(Ludlow)”로 표기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 제작자인 김복진은 한국 최초로 서양식 조각을 공부한 작가인데, 그의 작품은 대부분 파손되어 현존 작품이 매우 희귀하다. 현재 이 동상은 김복진의 조각 솜씨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한남대 겸임교수 ○○○(근현대미술사)>

- 명 칭 : 러들로 상
- 현 상
 - 청동 부조판은 기본적으로 위는 타원형, 아래는 직사각형 형태를 결합한 것으로 이 둘을 결합한 듯이 테두리를 두르면서 중앙에 매듭무늬를 넣었다. 중앙 상부에 둥글게 띠를 둘러 원형을 마련하고 그 안에 얇은 부조로 인물의 옆모습을 새겼다. 인물상의 위에는 러들의의 이름이, 아래에는 “Professor of Surgery / director of Research / 1912-1938/ Dedicated in grateful memory of his service to Korea by the Staff and Alumni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라는 문구가 양각되어 있다. 이 글씨 오른쪽에는 “교수 러들로 박사의 공적을 기념키 위하여” 좌측에는 “세브란스 연합의학전문학교 직원 급 동창일동 근정”이라 양각하였는데 ‘세브란스’라는 글씨는 일본 문자로 써져 있어서 일제강점기의 제작품임을 알 수 있다.
 - 러들의의 모습은 학위복에 학위모를 쓰고, 등을 보인 채 앞으로 살짝 숙이고

있으며, 옆얼굴은 높이 솟은 콧날과 함께 입과 눈, 귀까지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특히 귀가 원형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부조면 중에서 가장 높게 솟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다. 얼굴이나 주변의 바탕 등에서 빠르게 흠을 밀거나 다듬은 작가의 빠른 터치가 나타나 있어, 모델링 당시의 속도감이 느껴진다. 메달 형태로 인물상을 표현하는 것처럼 전통적인 부조방식이지만, 사실적이면서도 또한 숭고한 면이 보이는 이상적인 인물상을 보여준다.

○ 내용 및 특징

- 알프레드 어빙 러들로(Alfred Irving Ludlow, 1875-1961)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출신의 외과의였다. 26년간이나 한국에 거주하며 외과 의사로서 봉직한 그를 위한 기념조각은 그동안 ‘러들로 동상’으로 알려져 왔다. 현존하는 기념동상은 등신대의 동상이거나, 흉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러들로 상을 통해 부조판(흉판)으로도 제작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귀한 예이다. 근대기 기록이나 언급에서 ‘동상’이라고 일컫는 대상이 흉상이나 심지어 부조일 때조차 ‘동상’으로 말하고 있어서, 상의 형식이나 크기가 아닌 재료에 집중해서 말해온 관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 일제강점기에 제작한 대부분의 동상이 일제 말기에 공출로 인하여 사라진 지금, 1938년작이라는 정확한 제작년대와 제작 경위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 유존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특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조각가인 김복진의 불교상을 제외한 순수조각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물을 다룬 이 작품은 의미가 깊다.

○ 문헌자료 : 이 작품의 존재에 대해서는 김복진 유작전을 기념하는 글이 실린 『삼천리』 제 12권 제 10호, 1940년 12월 1일 발간의 「천재조각가 김복진 씨」의 작품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 타 : 알프레드 어빙 러들로(Alfred Irving Ludlow, 1875-1961)의 청동 부조 초상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이자 세브란스병원 외과의사로 26년간 봉직하였던 러들로가 1938년에 은퇴할 때 그의 제자와 교직원들의 의뢰로 제작된 것이다. 당시 조각가로 이름높았던 김복진이 의뢰를 받아 ‘흉판’을 만들었고, 완성작은 수술실에 걸리게 되었다. 연구자 조은정에 의해 1937년까지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교실을 운영한 러들로가 의과교실을 퇴임하는 것을 기념하여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러들로 동상’을 의뢰하였음을 밝혔으나 실물을 찾지 못하다가(「한국동상조각의 근대이미지」, 한국근대미술사학, 제9집, 2001, p.234.), 2008년에 윤범모 교수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옛 세브란스병원 외과 실내에 걸려 있다가 새로 건물을 지어 병원이 옮기면서 행방불명된 것을 연구자 윤범모가 외과병동 창고에서 찾아내 김복진의 작품임을 확인하였다.(‘한국 첫 근대조각가 김복진 작품 햇빛’, 중앙일보, 2008. 3. 18.)

○ 등록가치 : 현재 유존작이 전하지 않는 김복진의 순수기념 조각이라는 점이나, 1938년 당시 제작한 흉판으로서 유례가 귀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작품의 조형성에서도 인물 표현이 탁월하여 보존의 가치가 높다.

나. 최송설당 상(崔松雪堂 像)

- 1) 명 칭 : 최송설당 상(崔松雪堂 像)
- 2) 작 가 : 윤효중(尹孝重)

- 3) 소 유 자 : 김천중고등학교
- 4) 소 재 지 : 경북 김천시 송설로 137(송설역사관)
- 5) 수 량 : 1식
- 6) 규 격
 - 동상 : 173×79×66cm
 - 좌대 : 165×82×82cm
- 7) 재 질 : 청동
- 8) 형 식 : 환조 입상
- 9) 조성연대 : 1950년
- 10) 조사자 의견

<가천대 교수 ○○○(미술사)>

- 명 칭 : 최송설당 동상
- 김천중고등학교 소장 윤희중 작품 <최송설당 동상>은 6.25 전쟁 직전(1950. 4월) 건립한 작품이다. 동상의 후면 명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일본 나라가 일으킨 소위 대동아전쟁 때 할머니의 동상도 응소를 당하여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니 해방후 할머니를 추모하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그 은혜를 받은 여러 사람은 전반에 제작자 김복진 님의 제자 윤희중 님의 손을 빌어 단기 4283년 4월 일에 다시 세움” 원래 김복진 작품은 1935년 11월 제막식을 거행한 것이었다.
- 5년 이상을 옥중에서 보낸 김복진은 1935년 2월 출옥하여 본격적으로 작가생활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최송설당 동상>은 그것의 첫 번째 성과물이었다. 동상작품의 수주 경위와 작가의 동상문화론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어 참고가 된다.(김복진, 『수록일천리』, 조선중앙일보, 1935, 8, 윤범모 외 편저, 『김복진전집』, 참조) 동상 작품은 실물대의 크기로 한복차림의 할머니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고개를 들어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주인공은 두 손을 아래로 내리고 서 있는 모습이다. 왼발을 약간 치맛자락 밖으로 내밀어 단조로운 형태에 변화감을 자아냈다.
- 김천고등학교 송설역사관 소장 『최송설당 동상 건립지』(1938)에 의하면, 동상 건립을 위한 모금 총액은 5백여명에 의한 5천9백여원이었다. 이 모금액 가운데 동상 및 명문 주조비로 1,715원이 배정되었다. 1935년 제막식 행사에 참석한 인사는 최규동, 백남훈, 여운형, 송진우, 이인, 방응모 등 중앙의 거물급을 포함하여 1천여명이었다. 명망가들은 축사를 통하여 주인공인 송설당의 업적을 기리면서 동상 제막의 의의를 드높였다.
- 최송설당(1855-1839)은 서당의 훈장이었던 부친으로부터 한학 공부를 했고 뒤에 자수성가하여 재산을 모았다. 그는 40대에 엄비의 총애를 받게 되어 영친왕이은의 보모 역할을 맡았다. 10년 정도의 궁중생활 뒤에 엄비로부터 받은 토지를 바탕으로 재산을 축적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막대한 재산을 사회봉사에 사용했고, 그것의 대미는 교육기관의 설립이었다. 이렇게 하여 전 재산(30만원 이상)을 희사하여 김천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송설당은 이렇듯 육영사업가로 이름을 남기었지만 한시 등 창작활동 이외 여성운동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윤희중은 도쿄미술학교 조각과를 졸업했고, 해방 이후에는 홍익대학 교수로 활

동했다. 현재 김천고등학교는 윤희중의 작품을 보존 문제로 송설역사관 실내로 이관하여(2011. 5월) 전시중이고, 야외의 원위치에는 복제본을 건립한 상태이다.

- 등록가치 : 김복진 제작의 송설당 동상은 일제말(1943) 공출로 파괴되었으나 그의 제자인 윤희중은 원작을 바탕으로 복제하다시피 새롭게 제작하여 1950년 건립했다. 윤희중 작품은 해방 이후 1950년대 초반의 흔치 않은 현존 동상 작품이라는 점에서, 특히 1930년대의 동상 원형을 복원한 희귀한 사례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전문위원 ○○○(근현대미술사)>

- 현 상 : 실제 인체보다 약간 크게 제작되어 있으며 조각의 솜씨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현재 이 동상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등신대 동상 중에서 가장 제작연대가 올라가는 작품인데, 특히 1950년 우리나라 동상기술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예를 들어 용접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에 리벳으로 청동판을 연결시켜 조각상을 만들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 현재 김천중고등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최송설당 상>은 1950년 6·25 발발 직전에 제작한 동상이지만, 원래는 1935년에 김복진이 출옥한 후에 처음으로 동상을 의뢰받아 제작했던 작품을 재현한 작품이다. 우리나라에 1920년대부터 동상이 건립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동상제작은 일본인이 도맡았다. 김복진은 「수륙일천리」라는 글에서, 출옥 후 최송설당의 동상 제작 의뢰를 받았고 김천에 내려가서 최송설당을 직접 만나보았으며 실제 동상을 만들 때는 최송설당의 사진을 보고 제작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근대기에는 학교 설립자들의 동상이 상당히 세워졌다.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휘문학교의 민영휘, 양정학교의 엄주익, 공주 영명학교의 윌리엄 등이 있으나 대부분 일제 때 공출되어 원작은 사라졌고 후대에 다시 건립되었으나 이 상들 역시 대부분 6·25전쟁 때 훼손되었고 그 이후에 재제작된 동상인데 비해, <최송설당 상>은 전쟁 이전에 건립되었으나 다행히 전쟁 동안에 파손되지 않아, 현존하는 동상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동상이다. 1935년에 김복진이 제작한 최송설당 동상은 1945년에 일제에 의해 공출되었고, 현재 최송설당 동상은 김복진의 제자이자 후배인 윤희중이 1950년에 제작한 것이다. 김복진이 제작한 원작의 사진을 토대로 재제작한 것인데, 원형의 모습을 비교적 충실이 재현하였다.
- 윤희중(1917~1967)은 우리나라 최초로 동경미술학교에서 목조를 전공하고 귀국, 홍익대학교 미술학부를 설립하여 조각교육에 전념하였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최송설당 상>은 한국 최초로 조각 공부를 했던 김복진이 첫 번째로 제작한 동상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현재 동상의 제작자인 윤희중 역시 한국 최초로 목조각을 전공한 조각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학교 설립자들의 동상이 건립되었지만 대부분 공출되었고 후대에 다시 동상을 건립했지만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경우는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상과 최송설당 상 등 매우 드물다. 언더우드상은 해방 직후에 재제작했지만 6·25 전쟁 동안에 파손되어 현재는 제3차 재건립 동상이다. 반면 최송설당 상은 원본의 모습을 충실히 재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작 시기가 현존 하는 전신상 중 매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1950년 제작 당시의 우리나라 동상제작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동

상의 좌대 역시 1935년 원래의 동상을 서울 당시의 상태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 최송설당 동상은 현재 김천중고등학교 교내에 있는 최송설당 기념관에 옮겨져 소장되어 있다. 원래 좌대에는 원본을 틀로 새로 동상을 주조하여 세웠는데, 현재의 좌대 역시 근대기에 일제에 의해서 새롭게 도입된 석공예의 기술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 <최송설당 상>을 원래 제작한 김복진과 재제작자인 윤효중 모두 한국의 근대조각의 대표적 작가이며, 동상은 현존하는 전신 동상으로는 시기가 가장 올라가는 작품으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다.

<한남대 겸임교수 ○○○(근현대미술사)>

- 현 상 : 현재 송설당기념관에 보존되고 있는 동상은 등신대보다 좀 커서 동상의 목적을 잘 드러낸다. 비교적 풍화에 의한 훼손도 있지만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얼굴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으며 쪽진 머리는 <현명>에서와 유사한 처리를 보여 작가가 목조와 소조 모두에서 작가적 양식을 발휘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두 손은 아래로 내리고 긴 저고리에 발밑까지 내려오는 치맛단은 앞에서 신발의 코가 드러나게 주름져 있다. 부드러운 미소의 노인을 묘사하고 있으며 후덕함이 드러나는 인격적 조각이다.
- 내용 및 특징
 - <최송설당>은 김복진이 동경미술학교를 졸업한 이후 동상을 제작한 첫 번째 작품이다. 우리나라에 1920년대부터 동상이 건립되기 시작했는데, 일본인이 도맡아 제작했다. 김복진은 「수륙일천리」라는 글에서, 출옥 후 최송설당의 동상 제작 의뢰를 받고 김천에 내려가서 최송설당을 직접 만나보았고 실제 동상을 만들 때는 최송설당의 사진을 가지고 제작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 근대기에는 학교 설립자들의 동상이 상당히 세워졌다. 연세대학교의 언더우드, 휘문학교의 민영휘, 양정학교의 엄주익, 공주 영명학교의 윌리엄 등이 있으나 대부분 일제 때 공출되어 원작은 사라졌고 후대에 다시 건립되었으나 대부분 6·25전쟁 이후의 동상이다.
 - 이 동상은 김복진이 제작한 것은 아니나 전쟁 이전에 건립되었고 전쟁 동안에 파손되지 않고 남아있어 현존하는 동상 중에서 매우 이른 시기의 동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기 타 : 김복진이 제작한 동상은 1945년에 일제에 의해 공출되었다. 1950년 6·25전쟁 직전에 김천중고등학교 동창회 발의로 윤효중이 재제작하였는데, 김복진이 제작한 원래 동상의 사진이 남아있어 윤효중이 이를 참조해서 현재 동상을 만들었다.
- 등록가치 : 근대 조각가 김복진이 세운 동상이 공출된 뒤 윤효중에 의해 재건된 작품으로, 6.25전쟁 이전에 조성된 몇 안되는 동상 중 하나이다. 김복진의 작품과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윤효중이 만든 송설당상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여 볼 때 중요한 이 시기 동상작품의 예이다.

다. 해방(解放)

- 1) 명 칭 : 해방(解放)

- 2) 작 가 : 김만술(金萬述)
- 3) 소 유 자 : 국립현대미술관
- 4)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 5) 수 량 : 1점
- 6) 규 격 : 70× 30×30cm
- 7) 재 질 : 석고
- 8) 형 식 : 환조 입상
- 9) 조성연대 : 1947년
- 10) 조사자 의견

<가천대 교수 ○○○(미술사)>

- 김만술(1911-1996)은 1940년대 조소작가로 입문하여 경주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 작가이다. 그의 작가활동은 활발하지 않았지만 <김유신동상>(1976, 경주 황성공원) 등 약간의 기념조형물이 남아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의 <해방>은 작가 개인의 경우는 물론 동시대 미술계의 상황으로 보아도 아주 희귀한 사례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비록 소품(높이 70cm)이지만 해방을 주제로 한 이례적인 미술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
- 이 작품은 젊은 남성의 입상으로 몸을 약간 구부린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허리부분에 묶여져 있는 밧줄이다. 허리와 오른쪽 팔뚝에 묶여 있는 밧줄을 왼손으로 풀어내고 있는 모습으로 이는 ‘해방’을 의미한다. 얼굴은 약간 옆으로 돌려 먼 곳을 응시하고 있으며 두 발은 벌려 안정감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근육질의 인체와 풀려지고 있는 포승줄의 표현을 통해 작가는 해방의 진정한 의미를 형상화하고자 했다. 원작은 석고로 제작했고 오른쪽 발 뒷부분 좌대에 ‘1947, 7 金萬述 作’이라는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해방기인 1947년 여름 제작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소중한 가치를 보이고 있다.
- 기왕에 청동 복제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은 2011년 석고작품을 마저 구입하여 함께 소장하고 있다. 석고작품은 검은 색깔의 먼지와 때가 많이 끼어 있고 부분적으로 떨어져나가 석고 속이 하얗게 묻어나기도 한다. 특히 얼굴의 턱 부분이 떨어져 나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수리를 요하고 있다. 석고작품은 그동안 개인 소장자의 손을 거치면서 청동작품으로 복제되었는 바, 10여점이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의 석고상과 청동상을 나란히 세워놓고 비교 조사하니 석고상에 비해 청동상의 크기가 약 3mm 정도 작은 것처럼 보였다. 특히 청동상은 주물 과정에서 부실하게 처리되었음인지 원작의 섬세한 부분을 재현하지 못한 느낌을 주고 있다.
- 김만술의 <해방>은 해방기인 1947년 작품이라는 점에서, 특히 당시 미술계의 일반적 상황과 달리 해방이라는 주제를 내세워 제작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게다가 주제의식의 탁월한 형상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전문위원 ○○○(근현대미술사)>

- 현 상 :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는 석고상과 이를 주조한 청동상 1점이 소장되어 있다. 원본인 석고상은 <광복40주년 기념전>(1984, 국립현대미술관)에 한

번 전시된 이후 어떤 전람회에도 출품된 바 없으나 작품에는 “1947. 7 金萬述作”이라는 서명이 있어 제작연대를 알 수 있다. 석고로 제작된 <해방>은 10점 정도의 청동상으로 주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청동상은 주조 기술의 질이 떨어져서 원본의 섬세한 표현과 터치가 거의 전달되지 못할 뿐 아니라 주조 과정에서 원본에 검정색 얼룩이 생기는 등 원본 석고상에 손상이 일어났다. 원본 석고상의 석고의 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미 석고상의 얼굴에 훼손이 생겼다.

○ 내용 및 특징

- <해방>은 몸에 묶은 밧줄을 풀어버리는 순간의 형상으로 민족의 ‘해방’을 은유한 조각이다. 왼손으로 밧줄을 짊어 움켜쥔 채 몸을 묶은 포승을 풀고 있는 단단한 근육질의 남자는 상체를 약간 기울이며 앞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드러난 근육질의 몸과 크고 강한 손, 치켜 뜬 두 눈은 해방이 되었으나 정치사회적으로 혼란과 대립이 극심했던 시대에 대한 응축된 분노를 전달해준다.
- 김만술(1911~1996)은 일본 히나코지츠조(日名子實三) 조각연구소에서 수업하고 경주예술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경주에 정착하여 기념조형물을 다수 제작하였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작가의 서명이 있고 1940년대 조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희소성의 가치가 크지만, 김만술이라는 작가의 미술사적인 지명도가 높지 않으며 작품의 보존상태가 좋지 않고 지나치게 여러 점의 청동상으로 주조된 점에서는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 높지 않다.

<한남대 겸임교수 ○○○(근현대미술사)>

○ 현 상

- 몸에 밧줄을 감은 청년이 굳은 얼굴로 양미간을 찌푸린 채 단호하게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위로 들어 쳐다보고 있다. 몸을 쥔 밧줄 끝이 풀리고 있어 해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드러난 근육질의 몸과 크고 강한 손, 치켜 뜬 두 눈은 해방이 되었으나 정치사회적으로 혼란과 대립이 극심했던 시대에 대한 응축된 분노를 전달해준다.
- 대좌의 우측 발 바깥쪽에 작가 사인이 있어 제작년도와 작가를 확인할 수 있다. 석고는 안에 마대를 풀어 넣은 흔적이 있어 근대기 일본에서 유래한 제작법임을 알 수 있으며 속이 노란 색을 띠고 있어 테라코타로 알려져 있음 또한 알 수 있다. 밑바닥을 통해 완전히 흰색의 석고가 아니라 노란빛을 발견할 수 있음은 혹시라도 테라코타와 석고의 조합이 있었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 석고 표면에 검은색 칠 자국이 있어 아마도 청동주조시에 생긴 것일 가능성이 있다. 현재 턱 부분 석고 일부의 박락이 있어서 희게 드러나 있다.

○ 내용 및 특징 : ‘1947. 7 金萬述作’이라는 사인이 있어 제작년도가 확실하며 1940년대 조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희소성의 가치가 크다.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을 맞은 감회를 역동적으로 표현한 수작으로 예술적 가치가 크다. 역사적 시대 상황을 은유한 작품으로 역사적·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 문헌자료 : 『해방기념 40년전』, 국립현대미술관, 1984.

○ 기 타 : 석고 <해방>은 김만술의 제자인 서양화가 관성 김준식이 소장하고 있다가 화상에게 넘어갔으며 현 소장자가 이를 구매하였다. 현 소장자는 석고 원형으로 틀을 떠서 청동 3점을 주조하였는데 그 중에서 2점은 현 소장자와 그

의 자매가 나누어 소장하고 있으며, 나머지 1점은 다른 이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청동 주조물이 10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조 기술의 질이 떨어져서 원본의 섬세한 표현과 터치가 거의 전달되지 못할 뿐 아니라 주조 과정에서 원본에 검정색 얼룩이 생기는 등 손상이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원본 석고상은 광복40주년 기념전(1984, 국립현대미술관)에 한번 전시된 이후 어떤 전람회에도 출품된 바 없다.

- 등록가치 : 광복의 기쁨을 주제로 한 작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현재, 미술가의 역사인식이나 시대상황에 의해 제작된 작품의 유존은 존재만으로도 귀한 경우이다. 비교적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보존가치가 높다.

라. 피리부는 소녀

- 1) 명 칭 : 피리부는 소녀
- 2) 작 가 : 윤승욱(尹承旭)
- 3) 소 유 자 : 국립현대미술관
- 4)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 5) 수 량 : 1점
- 6) 규 격 : 148.8×35×33cm
- 7) 재 질 : 석고 (청동주조 작품이 있음)
- 8) 형 식 : 환조 입상
- 9) 조성연대 : 1941년
- 10) 조사자 의견

<가천대 교수 ○○○(미술사)>

- 휘문고등학교 시절 장발(서울대 미대 학장 역임)의 지도로 미술에 입문한 윤승욱(1915~1950?)은 뒤에 도쿄미술학교 조각과를 졸업했고, 서울대 미술대의 초기시절 교수생활을 했다. 그는 1940년 전후에 조선미전에 몇 차례 출품한 경력이 있지만 관련 작품은 남아 있지 않다. <피리부는 소녀>는 1941년 조선미전 특선작으로 매우 희귀한 예의 유존작품이다. 이 작품은 8등신의 전신 나체 소녀입상으로 두 손을 들어 피리를 연주하는 모습이다. 오른쪽 다리에 무게의 중심을 두었고, 왼쪽 무릎은 구부러져 약간의 삼굴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변화감을 준 하체 표현과 피리를 든 두 손의 자세는 이 작품의 안정감과 더불어 신체의 곡선적 율동을 자아내는 작용을 한다. 피리부는 단발머리의 소녀를 사실적 조형감각으로 형상화한 작가의 기량은 동시대의 우수작품으로 평가하게 한다.
- <피리부는 소녀>의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경위와 작품 수복관계의 내용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이를 위해 서울대 미술대 교수를 역임한 ○○○ 작가의 증언(○○○ 녹취) 내용의 요지를 소개한다. 윤승욱의 딸 ○○○은 미국 이민을 가면서 문제의 작품을 ○○○에게 넘기고 출국했다. 당시 <피리부는 소녀>의 상태는 오른쪽 어깨부터 손 부분 그리고 발목 부분이 파괴되어 있었다. 석고상인 이 작품은 석고 속에 마대를 넣어 1cm 내외의 얇은 두께로 뜯 탁월한 기법의 작품이었다. ○○○은 원작의 사진을 참조하여 부서진 부분을 복원하였다. 석고 원형에 오른손을 붙이다보니 미세한 차ий이겠지만 피리의 기울기가 약간 달라졌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그후 이 작품은 ○○○ 관장에 의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게 되었다. 당시 ○○○은 이 석고 채색작품을 2점의 청동상

으로 제작하여 미술관과 유족이 각각 보관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 소장 등 3점 확인).

- 등록가치 : 윤승욱의 <피리부는 소녀>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을 그의 제자 ○○○이 수리했지만 원형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청동 주물작업 이후의 석고상은 원형 파괴가 심한 상태에서 수복처리했지만 그것의 청동상은 보다 원형에 가깝게 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작가의 유존작품이 희귀한 상황에서, 게다가 1940년대 초기 조소작품의 유존례가 드문 상황에서, 이 작품은 근대 문화재로 등록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문화재전문위원 ○○○(근현대미술사)>

- 현 상 : 현재 이 석고상은 이미 연구자들이 밝힌 대로(보수를 담당했던 ○○○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원작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나 3차례의 보수를 거쳤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이외에 2점의 브론즈 작품(그 이상을 복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큼)이 있다.
- 내용 및 특징
 - 단발머리의 소녀가 누드상태로 서서 양손으로 피리를 들고 부는 모습이다. 전체적인 자세는 전형적인 그리스 고전기 조각상의 특징인 콘트라포스트 자세를 취하고, 무게중심을 오른쪽에 다리에 두고 편하게 서 있다. 고전기 조각에서 보이는 자세는 물론 꼼꼼한 모델링 솜씨는 동경미술학교의 아카데미한 조각교육 영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동경미술학교 소조부를 졸업(1939)한 윤승욱은 1938년부터 꾸준히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인체 조각상을 출품하여 작가로 성장을 했는데, <피리부는 소녀>는 1941년 조선미전에 출품하여 특선을 한 작품이다.
 - 현재 과천 현대미술관에서는 1937년 작품으로 밝히고 있으나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 윤승욱의 졸업 작품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졸업하던 1939년이나 그 다음해에는 전혀 다른 작품을 조선미전(1939년: <한일> <소품습작> <육녀>; 1940년 <어떤 여자>)에 출품했기 때문에 제작연도는 조선미전에 출품하여 특선했던 1941년일 것이다.
 - 윤승욱(1915~1950?)은 휘문고등학교에서 장발에게 지도받고, 동경미술학교 소조부를 졸업(1939)하였다. 1938년부터 꾸준히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인체 조각상을 출품하여 작가로 성장을 했는데, 1946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조각과 교수가 되었고, 6·25때 행방불명되었다.
- 문헌자료 : 『조선미술전람회』 도록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윤승욱은 한국 근대기의 대표적인 조각가이며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작가이다. <피리부는 소녀> 역시 조선미전에 출품하여 특선을 했던 작품으로 윤승욱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심하게 파손되고 다른 조각가의 손을 거쳐 보수를 거쳤기 때문에 유물의 진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원작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보수를 거치면서 원본의 진정성이 상당히 훼손되었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남대 겸임교수 ○○○(근현대미술사)>

- 현 상 : 얼굴은 동글 납작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띠는 듯하기도 하며 단정한 단발머리에 나체의 소녀상은 세로로 피리를 들고 왼손은 피리의 위쪽에, 오른손은 아래쪽에서 손바닥을 바깥으로 하여 잡고 있다. 무게중심은 오른쪽에 두어 왼쪽 무릎이 구부러져 있다. 사각의 대좌에 오른발은 앞을 향하고 왼발은 옆을 향하여 변화를 주고 있다. 현재 석고상은 다시 철판의 대좌 위에 고정되어 있다. 부분적으로 세심히 살펴보면 보수의 흔적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신체의 프로포션이 유려하며 세장한 맛이 살아 있다.
- 내용 및 특징
 - 소녀상이나 소년상 등은 동경미술학교에서부터 훈련을 받은 충실한 인체묘사의 대상이었다. 윤승욱은 이러한 단순 나체상에 피리라는 도구를 결합하여 이야기 구조를 실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악비천상의 도상을 원용함으로써 전통의 계승을 실현하였다. 1940년대 들어 스즈가와 아사히(鈴木旭)라고 창씨개명까지 하고 열심히 조선미술전람회에 참여하였던 그는 1943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정공(征空)>이라는 군국주의적 작품을 출품하였다. 1941년 20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특선을 한 <피리부는 소녀>는 작가가 정치적인 성격의 작품을 제작하기 이전의 순수한 감정과 미의 표현을 추구한 작품으로서 인체의 골격과 근육, 피부 등을 표현하는 데 힘을 기울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피리부는 인물의 도상은 이후 ‘소리’라는 매체를 조각에 도입한 많은 작품들의 원조 격이 되었다.
 - 연구자 ○○○은 윤승욱의 석고작품 <피리부는 소녀>는 국립현대미술관에 파손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것을 윤승욱의 서울대학교 제자인 ○○○이 복원한 것이라고 하였다.(『한국현대조각사연구』,아트북스, 2007). 이경성은 ‘1972년 <한국근대미술 60년전>에 출품하였던 이 작품은 오른쪽 팔뚝이 망가졌었는데 이를 보수하여 청동으로 주조하였으며, 보수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작가가 직접 제작한 손맛 그대로’라고 하였다.(『한국근대미술』 15, 동화출판공사, 1975.) 국립현대미술관 수리복원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석고원형은 내부, 특히 다리 부분이 뒤틀리기 시작하여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다리에 철심을 박아 보강하였다고 한다.
- 문헌자료 : 『제20회 조선미술전람회』 도록, 1941.
- ○○○-○○○ 면담
 - (○○○) 석고와 청동제 2점의 피리부는 소녀상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본인이 작성하였는데, 이 조각의 상태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 교수가 보았을 때 완파되어 있었다는 기록과 1972년도에 몇 군데 손을 본 것 이외에는 작가의 숨씨라고 하였던 기록의 상이점을 이해할 수 없다.
 - (○○○)
 - 이야기는 윤승욱 선생님 따님인 ○○○이 1965년 서울대 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이민가려고 짐을 꾸릴 때 시작되었다. ○○○이 윤승욱 선생님 작품을 리어카에 끌고 와서는 내게 맡겼다. 그때 상태는 발목은 파괴되었고 오른손이 어깨부분부터 없었고 왼손은 있었다. 상태를 보니 윤승욱 선생님께서 옛날에 아주 얇게 석고를 뜨셨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주 기술자였다! 석고는 1cm 내외의 두께였던 것이다. 속에 마대를 넣어서 얇게 뜨는 게 가능했던 것

이다. 내부에는 각목을 3 내지 2cm로 잘라서 가로 세로로 얹어 침목을 넣었다. 윤혜근은 작품을 맡기고 가면서 내게 작품 사진을 주고 갔다. 사진은 우편엽서 크기였다. 사진을 보니 왼손에 피리가 들려 있었고 오른손으로 그것을 받치고 있는 형태였다. ○○○은 내 연구실이 작품을 보관하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노라고 부탁하고 떠났다.

- 여름방학 동안 사진을 보고 오른손을 만들었다. 석고로. 그런데 피리가 제대로 잘 안 되었다. 자세히 보면 피리의 기울기가 좀 달라져 있다. 흙으로 형태를 만들어 석고원형에 붙여서 왼손의 형태에 맞추어 석고로 뜬 다음 다시 원형에 갖다가 붙이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각도가 조금 차이가 나서 피리가 원작보다 잘 안되었다고 생각한다. 팔을 연결하다보니 피리의 각도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그건 나만 알겠지만 항상 마음에 미진함이 남아 있다.
- 이것을 내 연구실 벽에 세워놓았는데 ○○○ 선생님이 내 연구실에 들러 이게 무어냐고 물었다. 해서 윤승욱 선생님 꺼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귀중한 것은 현대미술관에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였다. 그도 그럴 것 같았다. ○○○ 선생님은 그때 브론즈로 뜨고 하나는 유족이 갖고 다른 하나는 미술관이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브론즈는 2개, 석고작품은 1개.
- 등록가치 : 이 작품은 1970년대 제작한 청동상을 보존하고 있지만 1941년 이전에 만든 것이 확실한 작가가 직접 만든 석고본의 모습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점은 보존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윤승욱의 유일한 작품으로 조선미술전람회 출품작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마. 현명(弦鳴)

- 1) 명 칭 : 현명(弦鳴)
- 2) 작 가 : 윤효중(尹孝重)
- 3) 소 유 자 : 국립현대미술관
- 4)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 5) 수 량 : 1점
- 6) 규 격 : 165.8×119×36cm
- 7) 재 질 : 나무
- 8) 형 식 : 전신 환조 입상
- 9) 조성연대 : 1942년
- 10) 조사자 의견

<가천대 교수 ○○○(미술사)>

- 윤효중의 <현명>(높이 165.8cm)은 1944년 조선미전 출품작으로 창덕궁상을 수상한 목조작품이다. 좌대의 뒤에 '1942, 6 尹孝重 作'이라는 음각 서명이 있어 실제 제작년도는 1942년임을 알게한다. 작품 내용은 한복차림의 젊은 여성이 활을 쓰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입상이다. 주인공은 얼굴을 들어 멀리 과녁을 바라보고 있고, 왼손은 앞으로 길게 뻗어 굽어진 활의 중앙을 잡고 있고 오른손은 어깨위로 구부려 화살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 늘씬 여체와 더불어 한복의 자태는 이 작품의 우수한 조각기법에 의해 훌륭하게 표현되었다. 작가는 '조선 의복의 미'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소감을 피력한 바 있듯 이 작품의 특징으로 한복 표현을 주목하게 한다.

- <현명>은 창덕궁상 수상 이후 조선총독부 관저에 보관되었다가 이승만 정권의 경무대로 승계되었고, 4.19혁명 이후 이화장으로 옮겨졌다가 1972년 프란체스카 여사의 기증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이 되었다. 미술관은 2009년 부러진 활과 활대부분을 본격적으로 수복처리했다. 부러진 활 부분은 직각방향으로 나무 조각을 넣어 목공용 접합제를 사용하여 접합시켰다. 활대 부분은 흙을 판 다음 황동봉을 삽입하고 그 위에 나무로 보강처리했다. 접합된 부분과 균열된 부분은 에폭시페티로 메우면서 성형처리했고 아크릴 물감으로 표면 색깔을 맞추었다.
- <현명>은 1940년대의 목조 대작이라는 점에서, 한복차림의 활쏘는 여성을 훌륭하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가치평가를 높게 받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하지만 시각에 따라 일제말기의 암흑기에 조선색을 표현한 작품으로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전시체제의 시국색의 표현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무엇보다 윤희중은 대표적 친일작가라는 점과, <현명>의 시국색 표현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엄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근대기 조소작품의 첫 번째 등록 작업으로 친일작가의 작품 지정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근대문화재 등록 대상작품에서 보류하고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국민 정서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전문위원 ○○○(근현대미술사)>

- 현 상 : 한복을 입고 쪽찐 머리를 한 여인이 허리를 묶고 결의에 찬 표정으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목조작품이다. “一九四二, 六, 尹孝重 作”이라는 서명이 있어 1944년 조선미전에서 창덕궁상을 받았지만 제작연대가 1942년임을 알 수 있다. 등신대 크기의 전신 입상을 목조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맞고 표면에 일정한 끝 자국으로 질감을 내는 표현 방식은 윤희중이 동경미술학교 목조과에서 배운 솜씨를 최대한 발휘한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 내용 및 특징
 - 이 작품이 1944년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되었을 때, “낙랑과 경주에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마음과 기술을 현대에 나타낸 반도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신흥조소의 발흥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최고의 봉공이다”이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으며 창덕궁상을 수상하였다. 작가는 “시국의 진전에 따라 조선 여성들이 각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자태와 아울러 조선 의복의미를 재현하려고 했다”고 당선 소감을 발표함으로써 해서 후대에 시국적인 내용의 작품으로 평가를 받기도 했다.
 - 윤희중(1917~1967)은 우리나라 최초로 동경미술학교에서 목조각을 전공하고 귀국, 홍익대학교 미술학부를 설립하여 조각교육에 전념하였다.
- 문헌자료 : 『근대를 보는 눈 - 조소』, 국립현대미술관, 1999.
- 기타 : 1942년 작품으로 서명이 되어 있지만 1944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수상한 작품이며, 이화장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였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내용적으로 시국색을 띤 작품이라는 해석이 대두되었으나 작품의 질에 있어서는 근대기 어떠한 작품보다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특히 현존하는 목조각이 거의 없는 현 상황에서 작가의 기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존 상태도 좋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남대 겸임교수 ○○○(근현대미술사)>

- 현 상 : 한복 입은 여인이 활쏘기 하는 모습을 일본 전통 목조기법인 평끝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쳐내는 나타보리(駝彫り)기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한껏 뻗은 왼팔에는 소매를 감아 활을 쏠 때 편리하게 하는 팔찌를 착용하였고 손에는 활이 들려 있다. 왼손과 일직선이 되도록 오른손은 주먹을 쥔 채 가슴 앞에 들려져 있다. 그런데 활의 공간이 뒤로 당겨지면서 궁체가 줌손을 중심으로 쌍곡선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선이 활과 일직선을 이루고 있어 시위와 화살이 표현되지 않았지만 시위를 엮은 순간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인은 몸에 꼭 맞는 저고리를 입었고 치맛자락을 오른쪽으로 둘러입고 궁대를 허리에 매고 살을 치고 있다. 둥근 나무의 성격의 그대로 드러나는 대좌에는 과녁을 향하여 바로 딛은 왼발과 발 기장보다 약간 뒤로 끌어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는 발디딤의 원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작가가 국궁이라는 사실에 충실한 묘사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화살촉의 일부는 보수하였으며 뒷부분의 이음은 떨어져 나간 곳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목조의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 내용 및 특징 : 이 작품은 시대에 따라 한국 여인의 전통을 잘 표현하였다거나 친일의 의지를 표명한 부끄러운 작품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존재한다. 하지만 어떠한 역사적 평가를 받건 불변하는 것은 석고나 동상 제작 등 서구적인 기법이 유행하며 전통적인 조각의 제작방식이 사라져가던 당시에 등신대에 가까운 목조를 보여줌으로써 전통의 재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 매우 우수한 신체 비례와 조각수법을 보인다는 점이다. 근대기 조각작품으로서는 유존례가 많지 않은 목조이면서, 이전의 목조와는 다른 세련된 인체 비례와 주변공간으로 극대화한 덩어리로서 공간감의 구현, 매우 사실적인 묘사 등이 뛰어난 작품이다.
- 문헌자료
 - 『한국근대미술』 15, 동화출판공사, 1973.
 - 『근대를 보는 눈-조소』, 국립현대미술관, 1999.
- 기 타 : 이 작품은 1944년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낙랑과 경주에 선조들이 남겨놓은 그 마음과 기술을 현대에 나타낸 반도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신흥조소의 발흥이야말로 국가에 대한 최고의 봉공이다’라는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창덕궁상을 수상하였다. 작가는 “시국의 진전에 따라 조선 여성들이 각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자태와 아울러 조선 의복의 미를 재현하려고 했다”고 당선 소감을 발표하였다. 작품은 전람회 직후 당시 아베 조선총독이 고가로 구입하였다고도 전하는데, 당시 총독관저에 소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대통령관저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무대’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 관저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었으므로, 이 작품은 그대로 경무대에 보관되어 있다가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실각하자 그의 사저인 이화장으로 옮겨졌다. 이후 이대통령의 유족인 프란체스카 여사에 의해 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 처리되었다.
- 등록가치 : 근대기 목조로서 크기가 크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하지만 근대문화재로서의 상징성으로 볼 때 차후 재논의가 필요하다.

바. 소년입상(少年立像)

- 1) 명 칭 : 소년입상(少年 立像)

- 2) 작 가 : 김경승(金景承)
- 3) 소 유 자 : 국립현대미술관
- 4)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 5) 수 량 : 1점
- 6) 규 격 : 140.5×38×34.4cm
- 7) 재 질 : 청동
- 8) 형 식 : 환조 전신 입상
- 9) 조성연대 : 1943년
- 10) 조사자 의견

<가천대 교수 ○○○(미술사)>

- 김경승의 <소년입상>은 두 손을 허리 뒤로 잡고 서 있는 소년의 입상을 표현한 작품이다. 고개를 약간 숙여 아래를 쳐다보며 뭔가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팬티 차림의 나신으로 사실적 인체표현을 보여주는 전형적 구상작품이다. 왼발은 앞으로 내밀면서 동세의 변화를 주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의 이 작품은 1943년 조선미전 출품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작품 좌대의 왼쪽 뒤에 '1942 景承'이라는 서명이 새겨져 있다.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의 수복기록 카드에 1943년작으로 표기된 것의 재검토를 요한다.
- 문제는 미술관 소장품은 석고 재료를 사용한 원작이 아니고 작가가 1971년 청동 주물로 재제작했다는 점이다. (석고 두상은 홍익대 미술관 소장 추정) 그러니까 김경승의 <소년입상>은 1942년 석고 재료의 원작은 존재하지 않고 1971년 재제작의 청동 작품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 작품은 근대문화재 등록 대상작품에서 일단 보류를 요하고 있다.

<문화재전문위원 ○○○(근현대미술사)>

- 현 상
 - 반바지 차림으로 콘트라포스토(contrapposto) 자세로 서 있는 소년의 모습은 고대 그리스 쿠로스 조각상으로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면서도 아카데믹한 사실적인 묘사와 인체표면에 미묘한 질감을 살리는 표현방식은 일본인 선생 아사쿠라 후미오(朝倉文夫, 1883~1964)의 영향이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 근대기 인체조각의 전형적인 양식이 되었다.
 - 근대기에는 적잖은 인체조각상이 제작되었지만 대부분 석고로 제작되었고 이는 6·25전쟁을 겪으면서 파손되어 현존하는 작품이 거의 없다. 더구나 등신대 크기의 전신상은 원형이 유지된 상태로 현존하는 예가 거의 없어 매우 귀중한 작품이다.
 - 현재 이 조각상은 청동으로 주조되어 있는데, 원래는 석고상이었다가 1971년에 청동으로 주조했으며, 작가 자신의 대표작으로 언급한 바 있다(김경승, 『미술인이 펼치는 조형세계(1): 나의 대표작』 (한국일보), 1983. 2. 22.). 6·25전쟁을 거치면서 전혀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유일한 전신상이며 근대기 조각 작품에서 작가가 생전에 청동으로 주조한 경우 역시 매우 드문 경우이다.
- 내용 및 특징
 - <소년입상>은 1943년에 열린 제21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추천작가로서 출품했

던 작품이다. 조선미술전람회 출품 당시에는 <流>라는 제목으로 출품했으나 후에 작가 자신이 <소년입상>으로 부르면서 <소년입상>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작가는 냇가에서 흐르는 물을 내려다보며 서 있는 소년을 보고 착상한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 <流>라는 제목의 기원을 짐작할 수 있다.

- 김경승(1915~1992)은 1934년에 동경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하여 1939년에 졸업한 한국의 근대조각의 1세대에 속하는 인물이다. 1939년에 <소년입상>을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특선을 했고 이후에 <목동>(1940), <어떠한 감정>(1941), <여명>(1942)을 출품했다.
- 문헌자료 : 김경승, 『미술인이 펼치는 조형세계(1): 나의 대표작』, 『한국일보』, 1983. 2. 22.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우리나라 근대조각은 일본을 통해 서양의 조형언어를 수용하면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조각은 대부분 석고로 제작되었는데, 석고로 제작된 작품들은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6·25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 파손되었다. 청동으로 주조된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공출을 면치 못했던 탓에 근대조각의 현존작품은 매우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경승의 <소년입상>은 전혀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었다가 1971년에 작가 생존 시에 청동으로 주조되어 작품의 원형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는, 보기 드문 작품이다. 김경승은 우리나라 근대조각의 1세대 조각가로서 광복 이전에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광복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창작활동을 지속했던 작가이다.
 - 석고의 원형은 현존하지 않지만, <소년입상>은 작가 생존시에 원본을 청동으로 주조한 유일한 작품이다. 석고상과 청동상의 관계에서는, 청동 주조를 한 연도를 작품의 제작연도로 간주하지 않고, 석고원본의 제작연도를 작품 제작연도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김경승의 청동으로 된 <소년입상>은 원래 석고상이 제작된 1943년을 작품 제작연도로 간주해야 한다. 김경승의 한국근대조각사에서의 비중이나 작품의 상태로 보아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한남대 겸임교수 ○○○(근현대미술사)>

- 현 상 : 김경승의 <소년입상>은 한층 극대화된 리얼리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충실한 인체에 대한 묘사이면서도 하의와 기다란 사각바지가 상체와 하체의 긴밀한 조화를 받쳐주고 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소년은 두 손을 뒤로 한 채 밑을 내려다보고 있다. 상체는 왼쪽으로 올리고, 하체는 원다리를 구부려서 쇠골의 방향과 반바지의 방향이 서로 어긋나 있어서 전체에 동세를 부가하고 있다. 쇠골의 방향과 하의 윗선 방향의 대조는 작가의 면밀한 계산을 보여준다. 또한 뒤로 맞잡은 손은 정면에 한정된 시각에서 전체성을 획득한 완벽한 환조(丸彫)의 영역을 보여준다. 적어도 이 작품은 시선, 팔, 다리에서 작가의 상상력이 가미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다. 성실한 자세로 대사의 묘사에 주력되 작가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려 애쓴 이 작품은 근대조각에서 추구한 구상성을 잘 나타내는 예이다.
- 내용 및 특징 : 근대조각은 대부분 석고로 제작되었는데, 석고로 제작된 작품들은 파손되기 쉽기 때문에 6·25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 파손되었다. 청동으로 주조된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공출을 면치 못했던 탓에 근대조각의 현존작품은 매우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경승의 <소년입상>은 전혀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었다가 1971년에 작가 생존 시에 청동으로 주조되어 작품의 원형을 충실히 유지하고 있는, 보기 드문 작품이다.

- 문헌자료 : 김경승, 『미술인이 펼치는 조형세계(1): 나의 대표작』 (한국일보), 1983. 2. 22.
- 기 타 : 이 작품은 작가가 명동의 한 다방에 빌려주었다가 그대로 둔 채 6.25 전쟁을 맞았다. 서울이 폭격되고 명동에 나가보았을 때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이 작품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작가는 적고 있다. 1971년 작가가 청동으로 주조하였다.
- 등록가치 : 제작연도가 확실한 작품이다. 석고원형은 1943년에 제작되었지만 1971년 청동으로 주조한 뒤 없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 생존시 작가에 의해 주조되었지만, 근대조각의 상징적인 의미에서 재고하여 볼 필요가 있다.

사. 조모상(祖母像)

- 1) 명 칭 : 조모상
- 2) 작 가 : 김종영(金鍾瑛)
- 3) 소 유 자 : 김종영미술관
- 4)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53-2
- 5) 수 량 : 1점
- 6) 규 격 : 37×22×20cm
- 7) 재 질 : 석고
- 8) 형 식 : 환조 두상
- 9) 조성연대 : 1936년 추정
- 10) 조사자 의견

<가천대 교수 ○○○(미술사)>

- 김종영의 <조모상>(김종영미술관 소장)은 석고 재료를 사용하여 작가의 조모 두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높이 37cm)이다. 1982년 작가의 아들(○○○)은 창원 생가의 다락방에서 우연히 이 작품을 발견했고, 이를 병상의 작가는 1936년 제작한 것이라고 증언했다(중앙일보 1983, 2, 24). 제작년대 관련하여 근래 작가의 미망인에게 확인한 바, 진주만 폭격 때(1941)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이 작품을 본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1936년이면 김종영이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도쿄미술학교에 입학한 해이다. 과연 대학 1학년 학생의 작품일까, 재검토를 요하고 있다. (1989년 호암갤러리 회고전에서 이 작품은 1935년 작품으로 출품된 바 있다.)
- <조모상>과 함께 발견되었다는 석고 재료의 <소녀상>은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땀은 소녀의 두상을 사실적으로 제작한 것이다. 그동안 <조모상>과 <소녀상>은 동시기의 작품으로 알려졌으나, <소녀상>을 서울대 부산 피난시절에 보았다는 제자의 증언도 있어 이 작품을 1952년작으로 수정한 논고도 있다. 김종영미술관 발행의 김종영작품집(2002)에 의하면 두 작품의 제작년도를 모두 1936년으로 표기한 바, 이는 재검토의 대상이다. 작품 제작년도에 대한 작가의 기억은 100% 정확할 수 없다.
- <조모상>의 경우, 제작년도의 불투명, 소품의 습작, 더군다나 작가의 대표적 예술성과 무관한 사실적 인물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대문화재 등록 대상 작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문화재전문위원 ○○○(근현대미술사)>

- 현 상 : 김종영의 <소녀상>과 함께 1982년 1월 조각가의 본가 다락방에서 발견된 작품으로, 쪽찢 머리를 한 여인의 두상이다. 비교적 사실적으로 얼굴이 재현되어 있으며 표면에는 채색이 되어 있으나 색이 부분적으로 벗겨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수정되는 등 보존 상태가 좋지 않다. 작품의 제작 연대는 1936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당시 병상에 있던 작가는 이 작품들을 1936년 동경미술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고향에 들렀을 때 제작한 것으로 기억하였다고 전해지는 작품이지만, 같이 발견된 <소녀상>은 1950년대 초반의 작품이라고 김종영의 제자인 홍성문이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조모상> 역시 제작 연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요구된다.
- 내용 및 특징
 - <조모상>은 작가 자신의 조모상을 제작한 것으로, 깊은 눈매와 코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얼굴의 특징이 살아 있어 작가의 기량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 보존 상태는 나쁘나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1930년대 석고상으로서 자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 김종영(1915~1982)은 동경미술학교를 졸업(1943년)하여 사실 재현적인 인체 조각을 공부했지만 현재 해방 이전의 작품으로 남아 알려진 작품이 거의 없다. 다른 조각가들과는 달리 조선미술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경미술학교 졸업 작품의 사진만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김종영에 대한 미술사적인 평가는 근대기 사실작품이 아니라 현대의 추상조각에서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작품은 작가 자신의 습작기에 속하는 작품이며 근대기 조각사의 흐름에서도 중요성을 찾기 어렵다.
-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근대기 제작된 많은 작품이 석고 소조상이었지만, 거의 다 망실되고 남아 있는 예가 거의 없다. 이러한 가운데 1936년 작품으로 추정되는 <조모상>은 그 보존 상태는 나쁘나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1930년대 석고상으로서 자료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작가의 대표작으로 보기 어려우며, 김종영의 사실조각이라는 측면에서는 작가 개인에게는 중요한 작품이지만, 제작연대가 불확실하고 보존 상태가 좋지 않으며 김종영의 대표작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다.

<한남대 겸임교수 ○○○(근현대미술사)>

- 현 상 : 김종영이 자신의 조모를 보고 제작한 것으로, 깊은 눈매와 코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얼굴의 특징이 자신 있게 모델링 되어, 그 기량을 짐작하게 한다. 피부색의 갈색 안료가 채색되어 작가가 대상의 실제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석고는 아주 얇게 떠진 것을 후에 보강하기 위해 내부에 석고를 더 발라넣은 것으로 보인다. 1cm 이하로 소조에서부터 얇은 석고 떠내기 방식은 동경미술학교에서 배운 방식으로서 근대기 석고 제작을 보여주는 귀중한 작품이다.
- 내용 및 특징 : <소녀상>과 함께 1982년 1월 조각가의 본가가 소재한 창원 소담리의 다락방에서 발견된 작품이다. 당시 병상에 있던 작가는 이 작품들을 1936년 동경미술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 고향에 들렀을 때 제작한 것으로 기억하였다. 실지로 당시 작가의 조모는 생존해 있었을 것이다. 김종영은 한국 현대

추상조각의 선구자로서 초기 구상시기의 작품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특히 다른 조각가들과는 달리 유학시절 일본의 전람회나 조선미술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하지 않아 그의 동경미술학교 재학 중의 작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견된 <조모상>은 작가의 학습기를 알려주는 작품으로서 자료적인 가치를 지닌다.

- 기 타 : 이 작품은 조각가의 아들 김익태가 창원 고향집에 내려가 다락방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하였다. 이후 서울로 가져와 병석에 있던 김종영으로부터 직접 작품의 내력을 확인하였다. 이후 신문기사 등을 통해 1936년작임이 알려졌다. 근대기 석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 등록가치 : 이른 시기에 제작된 근대기 석고조각상으로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조각가의 대표작으로는 보기 어려운 습작기의 작품으로서 한계가 있다.

8. 유물별 사진

가. 러들로 흉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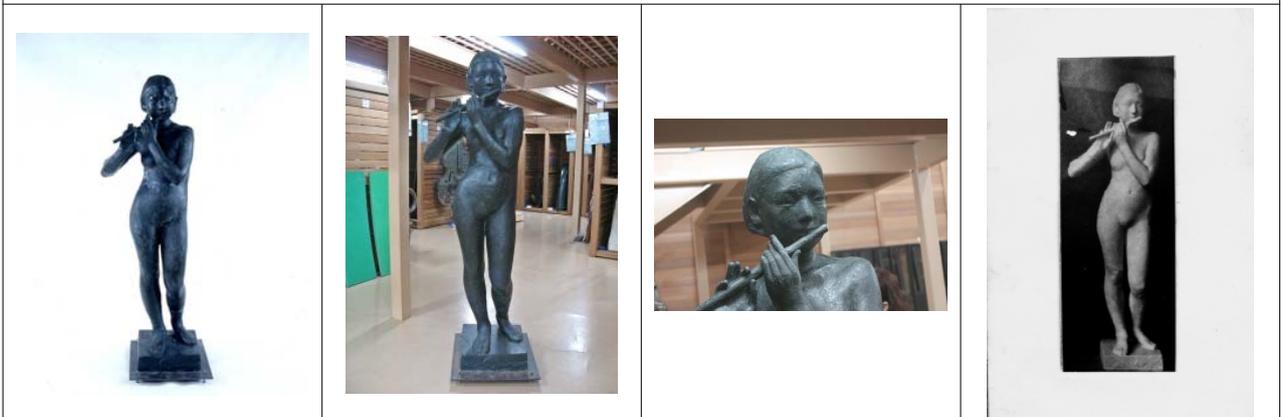
나. 최송설당 상



다. 해방



라. 피리부는 소녀



마. 현명



바. 소년 입상



사. 조모상



7. 「서울 상암동 구 군인 관사」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소재 「서울 상암동 구 군인 관사」를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상암동 구 군인 관사」에 대하여 등록문화재 등록예고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SH공사
- (2) 대상문화재
 - 명 칭 : 서울 상암동 구 군인 관사
 - 소재지
 - 원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728, 762번지
 - 현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870, 872번지 등
(관사단지 내에서 약 110~130m 이측)
 - 소유자 : SH공사
 - 수 량 : 관사 2동, 방공호 1기
 - 건물현황

구분	전시관	주민 생활관	방공호
구조	목조트러스, 조적조, 목조	목조트러스, 조적조, 목조, RC조	철근 콘크리트조
지붕	맞배 시멘트기와	맞배 시멘트기와	
층수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1층	
면적	건축면적 98.82㎡ 연면적 98.82㎡	건축면적 75.33㎡ 연면적 156.6㎡	길이 7.7m, 폭 1.7m, 높이 1.6m
활용	전시실	지하 수장고, 1층 주민 모임공간	

- 건물연혁
 - 1937년 직후에 건립된 일본 주둔군 관사 건물로 추정됨(약 8년간 사용)
 - 1945년 해방 후 국군의 관사로 사용(약 11년간 사용)
 - 1956년 개인에게 불하되어 민간 소유가 됨
 - 2004.12.03 : 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2008.03월 ~ 2010.09월 : 22개동 중 2개동 이측
- (3) 검토사항 : 등록문화재 등록예고 여부 검토

라.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3.8)>

○ ○ ○ ○ 문화재위원(건축사)

- 본 등록대상은 상암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있었던, 일본군 관사 22개 동 중 보존상태가 양호한 728번지와 762번지의 관사를 인접한 근린공원(현 상암월드컵파크 10단지 근린공원) 내에 이축한 것임
- 본 대상은 일제강점기 군관사 건물로서는 드문 희소가치가 있고, 네거티브 유산으로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으며, 현지보존이 어려운 경우의 건축유산을 이축하여 야외박물관으로 활용하는 좋은 사례로서 또한 의미가 있음. 문화재 명칭은 정확한 년대와 구체적인 명칭이 밝혀지지 않는 한 '상암동 일본군관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 ○ ○ ○ 문화재전문위원(근대건축)

- 흔치 않은 일본군 관사인 점과 그 동안의 문화재청과 서울시, 마포구가 협의하여 일을 진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 ○ ○ 문화재전문위원(충남대학교 교수, 건축사)

- 본 건의 근대문화재 등록은 최초 택지개발 당시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통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였고, SH공사 및 중앙건설 등이 문화재 등록을 전제로 기록화 작업 및 해체복원공사를 시행 한 점, 그리고 이축 후 박물관 및 주민공간으로 전시 및 활용되고 있는 점 등 근대시기 문화재의 바람직한 보전 및 활용모델로 판단되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로 등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의견>

○ ○ ○ ○ 전 서울시문화재위원(근대건축)

- 1920~1930년대의 관사 건물중에서 군대 관련 관사촌으로서는 드물게 남아 있었던 유구로서, 상암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당시 문화재 등록을 검토하였던 사안임
- 개발 계획 당시 해당 유구(728, 762번지)를 이축 복원한 후 등록 절차를 밟을 것을 권유 받았으며, 그에 따라 전문가들의 자문과 철거전 실측, 고증을 통하여 비교적 충실한 복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수색과 용산으로 이어지는 일제, 일본군의 관리계통이 이어졌음을 알려주

는 유구로서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단, 문화재 명칭은 사료 발굴, 보완 작업을 통하여 문화재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음

○ ○○○ 서울시문화재위원(근대건축)

- 2개동의 관사와 방공호 1식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이축 복원을 하면서 한국 근대사의 일면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전시장으로 탈바꿈하였음
- 이것들은 건축사, 군제사, 생활사 등의 여러 측면에서 좋은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됨
- 또 공사가 적극적으로 근대유산의 보존과 홍보에 앞장 선 것이 타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됨

<근대문화재과 의견>

- 본 등록대상은 상암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있던 구 일본군 관사 22개동 중 보존상태가 양호한 2동을 역사적·교육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인접지역에 이축한 후 등록을 추진하기로 한 것임
- 관사 내부에는 일본군의 대륙침략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실과 주민이 유적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임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역사 교육의 장으로 충실히 활용·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등록예고시 명칭(안)

- (제1안) 서울 상암동 구 군인 관사
 - 1937년(목재 연륜연대 분석으로 추정) ~ 1945년까지 8년간 일본 주둔군 관사로 사용되다 1945~1956년까지 11년간 국군 관사로 사용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문화재 등록시 명칭을 ‘군인 관사’로 함
- (제2안) 서울 상암동 구 일본군 관사
 - 일제강점기에 일본 주둔군 관사로 건립된 점을 고려하여 문화재 등록시 명칭을 ‘구 일본군 관사’ 또는 ‘구 일본 주둔군 관사’로 함

마. 심의결과 : 원안가결

- 등록 예고 가결, 「서울 상암동 구 군인 관사」로 등록 예고함
- 출석 9명, 찬성 9명

- 붙임 1. 「서울 상암동 구 군인 관사」 조사 보고서 1부
2. 등록문화재 등록 관련 추진현황 1부

<붙임 1>

서울 상암동 구 군인 관사 조사보고서('12.3.8)

1. 명 칭 : (현) 개발사업으로 이축 (구) 관사
2. 용 도 : (현) 주택 (원) 주택
3. 소재지
 - 원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728, 762번지
 - 현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870, 872번지
(관사단지 내에서 약 110~130m 이축)
4. 소유자 : SH공사
5. 수 량 : 관사 2동, 방공호 1기
6. 건물개요

구분	전시관	주민 생활관	방공호
구조	목조트러스, 조적조, 목조	목조트러스, 조적조, 목조, RC조	철근 콘크리트조
양식	일본식 목조주택	일본식 목조주택	
지붕	맞배 시멘트기와	맞배 시멘트기와	
층수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1층	길이 7.7m, 폭 1.7m, 높이 1.6m
면적	건축면적 98.82㎡, 연면적 98.82㎡	건축면적 75.33㎡, 연면적 156.6㎡	
활용	전시실	지하 수장고, 1층 주민모임공간	

7. 연 혁

- 1937년 직후에 건립된 일본 주둔군 관사 건물로 추정됨(약 8년간 사용)
- 1945년 해방 후 국군의 관사로 사용(약 11년간 사용)
- 1949년 서울시에 편입
- 1956년 개인에게 불하되어 민간 소유가 됨
- 1970년대 초 인근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됨
- 1956년에 개인에게 불하되어 민간 소유가 됨
- 1970년대 초 인근 지역이 그린벨트로 지정됨
- '04.12.03 : 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05.11.18 :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06.08.10 : 구 일본군 관사 이전 복원 조사연구보고서 제출
- '06.12.13 : 구 일본군 관사 22동 중 2동 이축 후 등록추진 계획 통보
- '07.01~'08.03 : 실측조사, 이축 대상 선정 및 복원 설계
- '08.03~'10.09 : 이축 공사 시행

8. 조사자 의견

○ ○ ○ ○ 문화재위원(단국대학교 교수, 건축사)

- 본 등록대상은 상암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있었던, 일본군 관사 22개동 중 보존상태가 양호한 728번지와 762번지의 관사를 인접한 근린공원(현 상암월드컵파크 10단지 근린공원) 내에 이축 복원한 것임
- 728번지의 것은 거의 원형대로 복원하여 일본의 침략과 생활상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꾸몄으며, 762번지의 것은 콘크리트구조의 지하실(수장고)을 설치하고 그 위에 구조와 외형은 원형에 따라 복원하되 내부공간은 관리와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을 가하였음
- 본 대상물은 2006년부터 문화재청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이축복원 후 등록을 추진하기로 하였던 사안으로 철거 전 실측조사와 고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비교적 충실한 복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본 대상은 일제강점기 군관사 건물로서는 드문 희소가치가 있고, 네거티브 유산으로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으며, 현지보존이 어려운 경우의 건축유산을 이축하여 야외박물관으로 활용하는 좋은 사례로서 또한 의미가 있음. 762번지의 관사건물의 경우, 지하실 설치, 내부공간 구성 등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으나 보존과 활용을 전제로 하는 등록문화재의 성격을 감안할 때 등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 문화재 명칭은 정확한 년대와 구체적인 명칭이 밝혀지지 않는 한 ‘상암동 일본군 관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언론과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등록 시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 ○ ○ 문화재전문위원(배재대학교 교수, 근대건축)

- 상암동 일본군 관사는 1930년대 일본이 대륙진출을 위해 수색역 부분을 기반으로 하여 기병부대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이루어진 시설 군 관사로 여겨지는 시설로서 목재연륜연대 측정에서도 1938년 등으로 밝혀졌음
- 일본군 관사가 내부와 외부가 온전하게 보존된 상태가 흔치않아 근대기 주거 및 군 관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건축물로 여겨짐
- 원래 상암2택지 개발지구 내에는 20개동이 남아 있었으나 그동안 수년에 걸쳐 문화재청, 서울시, 마포구에서 협의하여 2개동과 방공호를 동 사업지구 내 근린 공원에 이축하였음
- 762번지에 있던 1개 동은 이 시설을 마을의 주민자치시설로서 활용을 위해 다소 평면이 변화되었고, 728번지는 비교적 평면의 구성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복원이 되어 일본 군 관사의 전시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원래의 시설이 그대로 복원되는 동이 있어서 원상태를 알 수 있도록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728번지의 경우 비교적 충실히 복원이 되어 현재의 상태도 일제강점기의 역사체험, 주거사 연구의 가치 등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됨
- 따라서 흔치 않은 일본군 관사인 점과 그 동안의 문화재청과 서울시, 마포구가

협의 하여 일을 진행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 ○ ○ 문화재전문위원(충남대학교 교수, 건축사)

- 마포구 상암지구 택지개발지구과정에서 근대시기에 조성된 일본군관사의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표조사, 이전복원 조사연구보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그리고 이축복원 등의 절차를 통해 후대에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과정을 밟은 것은 도시개발과정에서 문화재 보전 사례로서 매우 의미있는 절차 및 처리를 하였다고 생각됨
- 이축 복원된 728, 762번지 관사 및 방공호의 문화재 등록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음
 - 728번지 관사는 외부 및 내부가 모두 원형에 가깝게 이축하고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등 매우 의미있는 이축복원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726번지 관사는 공간 활용을 위해 내부 평면형식이 일부 변형되었으나, 적극적 활용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 방공호는 부분적으로 이축 복원되어 있음
- 본 건의 근대문화재 등록은, 최초 택지개발 당시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통하여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하였고, SH공사 및 중앙건설 등이 문화재 등록을 전제로 기록화 작업 및 해체복원공사를 시행 한 점, 그리고 이축 후 박물관 및 주민공간으로 전시 및 활용되고 있는 점 등 근대시기 문화재의 바람직한 보전 및 활용모델로 판단되어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로 등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2>

구 군인 관사 등록문화재 등록 관련 추진현황

□ 추진현황

- '04.12.03 : 상암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05.11.18 :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06.01.12 : 문화재 보존대책 보완 통보(발굴과 → 서울시)
- '06.04.19 : 관사 이전복원을 위한 조사연구용역 시행(SH공사)
- '06.08.14 : 조사연구용역 보고서 제출(SH공사)
- '06.08.22 : 관사 보존 검토요청(발굴과 → 근대과)
- '06.08.24 : 보존가치 있어 문화재 등록 추진예정 통보(근대과 → 발굴과)
- '06.09.26 : 문화재위원회 6차 회의(22동 중 6동 등록 검토, 추가 조사 후 재부의)
- '06.10.20 : 현지조사(관계전문가 4인) / ○○○,○○○,○○○,○○○
- '06.11.21 : 문화재위원회 7차 회의(등록 예고 가결)
- '06.12.13 : 관사단지 실측조사 및 2동 선정 이축 복원계획 제출 요청, 이축 복원 후 등록절차 추진 예정 통보(근대과 → 서울시)
- '07.04~09월 : 관사단지 실측조사 실시(SH공사, ○○○ 전 전문위원 자문)
- '07.06.07 : 문화재위원회 3차 회의(실측조사 추진현황 보고, 728번지·762번지 2동 이축대상 선정 보고, '08년 이후 이축복원 2개동 등록 보고)
- '07.07.06 : 이축 위치 및 활용방안 결정 자문회의(관계전문가 3인) / ○○○,○○○,○○○
· 현 관사촌과 가장 가까운 장소로 이축, 철거 부재 활용, 전문위원 이상 관계전문가 지도·감독
· 728번지 : 건물 내외 재료 및 구법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전시관 등으로 활용
· 762번지 : 건물 내외는 원형대로 이축하되 신부재 사용 가능하며 주민편의시설로 활용
- '07.07.10 : 이축 복원계획 및 활용방안 검토요청(SH공사)
- '07.07.20 : 이축 복원계획 및 활용방안 회신('07.7.6 자문회의 결과대로 통보)
- '08.01.23 : 이축 복원계획(설계도서) 제출(SH공사, ○○○ 전문위원 자문)
- '08.02.01 : 설계도서 보완 요청
 - 인력 해체 및 관계전문가 입회, 재활용 부재 선별시 관계전문가 3인 이상 자문회의
 - 해체부재 보관 구체적인 계획, 보고서 작성제출, 문화재적 가치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열, 방수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방공호 출입구 구조체 이전 복원, 728번지 다다미 복원시 신축 당시 원형 반영, 관리사 설계시 이축동과의 통일성 부여 등
- '08.02.26 : 이축 복원계획 보완 제출(SH공사)
- '08.03.04 : 이축 복원계획 승인
- '10.11.04 : 이축 복원공사 완료 알림(서울시)
 - 관계전문가 자문 :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전 전문위원 등
- '11.01.27 :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서울시)

- 공원 및 일본군 관사를 '12년 상반기 중 SH공사에서 마포구로 기부채납 예정
- '12.03.08 : 등록문화재 등록 관련 현지조사(관계전문가 3인)
 -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등

□ 언론제기 사항

- 네거티브 문화재 등록추진에 대한 국민적 반감
 - 역사적, 교육적 활용 가치 등을 검토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 필요
- 일본군 관사 앞에 일본인 학교 위치 문제
 - 관사 이축 위치(기존 위치와 인접)는 '07.7월에 결정(우리청)
 - 일본인 학교 이전(개포동→상암동)은 '08.3월에 결정(서울시)
- 복원공사비를 아파트분양가에 산정 입주민들 집단 소송 준비
- 약 9억원 들여 복원한 일본군 관사 방치(등록문화재 등록 및 관리 소홀)
 - SH공사에서 서울시 마포구로 소유권 이전 증으로 활용예산 미 책정

8.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초 교구청」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전남 목포시 소재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초 교구청」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등록 신청('08.12.29.)된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초 교구청」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 :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초 교구청」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산정동 97-7 외 4필지(97-8, 74-1, 74-13, 74-15)
 - 소유자/관리자 :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준공년도 : 1937년경
- (3) 건축물개요
 - 설 계 자 : 미상
 - 건축구조 : 벽돌조, 콘크리트슬라브
 - 대지면적 : 9,712.00㎡
 - 연 면 적 : 1,234.34㎡
 - 수량 및 층수 : 1동, 지하1/지상3층
- (4) 검토 내용 : 문화재 등록 여부 검토

라. 추진경과

- '08.12.29. 문화재 등록 신청
- '10.3.4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 '10.4.1 문화재위원회 검토
 - 보류(활용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재검토)
- '12.1.2 문화재 등록 재접수

마. 활용계획(안)

- 1층 : 교구 역사관, 역대 교구장 약사 및 교구장 문장 소재, 가톨릭선교장,

휴게실

- 2층 : 순교사제 기념관(안 브레난 몬시놀 교구장, 토마신부, 오 요한신부), 교회 미술(성화)전시관, 목상(기도)공간
- 3층 : 사제유품실, 제구 전시관(미사와 기타 전례시 사용하는 성구)
- 지하층 : 운영사무실, 관장실, 회의실, 창고, 기계실

바.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0.3.4)>

- 문화재위원 ○○○(근대건축사)
 - 광주대교구의 교구청 건물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나, 현재 건축물은 불용상태이고, 그 건물 내·외부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음
 - 광주 교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우고, 목포시 당국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 정립을 하길 기대하며, 이번 조사에서는 판단을 유보함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간략화된 이태리 팔라조 형식의 건물로 벽돌의 분위기도 좋고 수녀원의 독특한 분위기가 남아있어 보존의 가치는 있으나 현재의 성지화 계획은 본 건물을 지나치게 왜소하게 보일 수 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고될 필요가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1937년 설립된 광주교구의 최초 교구청 건물로 그동안 교구청, 수녀원, 간호대학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내부가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건축원형을 추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이며, 계획안 조감도를 보면 역사성, 장소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반적 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근대건축전문가 등 관련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이 필요함

<근대문화재과 의견('12.4월)>

-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초 교구청 건물은 종교사적 의미가 크고, 현재 건물의 보존 및 관리상태가 매우 열악하나, 활용계획이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등록문화재 가치판단이 요구됨

사. 심의결과 : 등록 예고 부결

- 등록 예고 부결
 - 건물의 원형 보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함
- 출석 9명, 찬성 9명

붙임 :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초 교구청 조사보고서('10.3.4) 1부.

<붙임>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초교구청 조사보고서('10.3.4)

1. 명 칭 : (현)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초교구청 (구)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초교구청
2. 용 도 : (현) 미사용 (원) 교구청
3. 소재지 : 목포시 산정동 97-7 외 4필지(97-8,74-1,74-13,74-15)
4. 소유자 : (현)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원)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현소유자 주소 : 광주 북구 임동 5-32
5. 건축물 개요
 - 설계자 : 미상
 - 시공자 : 미상
 - 건축구조 : 벽돌조, 콘크리트슬라브
 - 준공일 : 1937년
 - 대지면적 : 9,712.00m²
 - 건축면적 : 315.07m²
 - 연면적 : 1,234.34m²
 - 층수, 높이 : 지하1층/ 지상3층 (높이 m)
6. 구조 및 양식
 - 적벽돌조+경사지붕
 - 지하층은 석조, 지상층은 적벽돌조로, 내부바닥은 목조마루로 구축하였으며 외벽에 서는 층간 코니스와 창문주위 상하부 장식에 의해 수평성을 강조
 - 둥근 아치가 독특한 전면 입구의 포치가 특징적이며 이태리 팔라조 형식의 건물로 근대적 특징이 나타남.
7. 연혁
 - 1937.4~1943.2 천주교 광주지목구 설정하여 최초의 교구청으로 건축하여 사용
 - 1945.9~1956.2 교구청으로 재사용
 - 1956~1967년 성 골롬반 외방 선교수녀회 건물로 활용
 - 1967~1990년 성신간호전문대학으로 활용
 - 1990~2002년 샬르트 성바로로 수녀회 건물로 활용
8. 수리기록
 - 전체 수리기록은 남아있지 않음
9. 문화재보존여건
 - 현재 미사용 방치,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된 결과 현재는 개보수가 시급한 상태
 - 교구청 건물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천주교 성지로 조성 중이며 교구청 건물은 개보수 후 천주교 박물관으로 활용 예정이므로 보존활용 여건은 양호
 - 천정 몰딩 등이 그대로 남아 있고 건물의 원래 상태가 남아 있음. 전남지역 가톨릭 선교의 흔적을 갖고 있어 의미 있음.

10. 조사자 의견

<○○○ 문화재위원(근대건축사)>

- 광주대교구의 교구청 건물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다. 따라서 교구청 자체의 관리가 요구되며, 그 보존 의도가 주요하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현재 건축물은 불용상태이고, 그 건물 내외부의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곳은 금회 등록 신청 건물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다.
- 광주 교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활용계획을 세우고, 목포시 당국에서도 건축물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 정립을 하길 기대한다.
-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 문화재전문위원(건축사)>

- 간략화된 이태리 팔라조 형식의 건물로 벽돌의 분위기도 좋고 수녀원의 독특한 분위기가 남아있어 보존의 가치는 있다.
-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남지역 가톨릭 성지이므로 당시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신청건물이외에 주변의 벽돌건물들도 함께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현재의 성지화 계획은 본 건물을 지나치게 왜소하게 보일 수 있어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건축사)>

- 1937년 설립된 광주교구의 최초 교구청 건물로 그 동안 교구청, 수녀원, 간호대학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내부가 변경된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건축원형을 추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적벽돌 조적식 구조로 일반적 건축양식과 기법에 의해 건축되어 두드러진 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상태이다.
- 건축원형을 추정하기도 쉽지 않고 현재 보존상태도 양호하지 못하고 두드러진 건축적 특성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등록문화재로의 등록가치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가운데, 주출입구 현관, 내부 목조 계단, 천장의 석고플라스터 장식 등 일부는 보존가치가 있다.
- 현재 목포시와 협조하여 교구청 주변 일대를 천주교 성지로 조성 중이며, 계획안 조감도를 보면 역사성, 장소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일반적 개발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근대건축전문가 등 관련전문가의 참여와 자문이 필요하다.

※ 참고자료 : 광주대교구 50년사, 목포시사, 동방의 빛, 법인등기부초본

9. 항일독립운동 유적 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경북 청송군 소재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북 청송군 소재 「부강서당」, 「송학서원」, 「소류정」, 「허훈 종가」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3.29)를 실시하고, 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문화재청장
- (2) 대상문화재 : 부강서당 등 4건

명칭	청송 부강서당	청송 송학서원	청송 소류정	청송 허훈 종가
소재지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958-3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평리 213-1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21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327-1번지 외1
소유자	송학서원	부강서당	장옥순	(사)허방산선생 기념사업회
면적	강당/ 43.86㎡, 사당/ 20.52㎡, 동재/36.08㎡, 서재/36.08㎡, 삼문/11.29㎡, 관리사/19.83㎡, 화장실/3.67㎡	대지면적/ 543㎡	대지면적/ 612㎡	대지면적/1,036㎡ 건축면적/112.91㎡
건립연도	동·서재, 관리사, 사당: 1990년대, 2010년에 각각 복원 (1702년 초창)	2004년(이건), 1837년(초창)	1997년(중수), 1896년(초창)	1977년(중건)
건축구조	목조 와가	목조 와가	목조 와가	목조 와가
건축양식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	민도리

- (3) 검토 내용 : 문화재 등록 여부 검토

라. 추진경과

- '12.01~03 원형보존 된 항일독립운동 유적 76개소 현황조사
 - 지자체에서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 목록 19개소 추가 제출
- '12.3.23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 문화재 등록추진 자문회의 개최
 - 자문위원 : 문화재위원 ○○○, ○○○, ○○○ 문화재전문위원 ○○○, ○○○
 - 자문결과 : 조사대상 선정 기준 마련, 조사 대상 선정
 - 조사대상(15개소)
 - 등록 조사 대상 : 마이산 용암 등 10개소
 - 사적(터) 지정 조사 대상 : 소난지도 돌각 의병 전투지 등 5개소
 - 조사대상 선정기준
 - 원형보존이 잘된 것 우선 선정
 - 역사적·자료적 가치가 큰 것
 - 미지정 대상은 등록으로 추진
 - 기지정(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가치 재평가는 추후 별도 논의
- '12.3.31 사적(터)의 지정추진 요청(근대문화재과→보존정책과)
 - 문화재청 직제 제8조의2호에 따라 사적(터)의 지정은 보존정책과 소관사항임
- '12.3.29 등록조사(경북 청송군 소재, 4건)

마. 조사 결과

- (1) 조사 일시/장소 : 2012.3.29(목) 경북 청송군 안덕면 등
- (2)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학예실장 ○○○(독립운동사)
- (3) 조사결과 의견

번호	명칭	조사자의견			비고
		○○○	○○○	○○○	
1	청송 부강서당	×	×	△	
2	청송 송학서원	×	×	×	
3	청송 소류정	○	○	○	
4	청송 허훈 종가	△	△	△	

바. 검토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2.3.29)>

- 문화재위원 ○○○(조정계획) 등 3명 : 붙임참조

<근대문화재과 의견>

- 소류정은 1997년 해체 보수한 건물이지만, 청송지역 의병장 심성지 선생이 감은리 전투 이후 은거하면서 별세하기까지 후학을 양성한 곳으로 항일 독립운동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므로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사.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등록 예고 조건부 가결, 「청송 소류정」로 등록 예고함
- 출석 9명, 찬성 9명

붙임 :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 등록조사보고서('12.3.29) 1부.

<붙임>

청송 송학서원 조사보고서('12.3.29)

1. 명 칭 : (현)송학서원 (구)송학서원, 송학서당(고종때 훼손령으로 인하여 강등됨)
2. 용 도 : (현)서원 (원)서원
3. 소재지 : 경북 청송군 안덕면 장전리 958-3 번지 외2필지
4. 소유자 : 송학서원
 - 현소유자 주소 : 경북 청송군 안덕면 문거리 926(대표자의 주소임)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와가
 - 준공일 : 1702년 초창
 - 대지면적 : 3,723㎡
 - 건축면적 : 강당(43.86㎡), 사당(20.52㎡), 동재(36.08㎡), 서재(36.08㎡), 삼문(11.29㎡), 관리사(19.83㎡), 화장실(3.67㎡)
 - 층수(높이) : 단층
6. 구조 및 양식
 - 가. 건축양식
 - 강당 : 정면4칸·측면2칸, 홑처마 팔작지붕 와가
 - 동·서재 : 정면4칸·측면 1.5칸, 홑처마 맞배지붕 와가
 - 사당 : 정면3칸, 측면1칸, 홑처마 맞배지붕 와가
 - 외삼문 : 정면3칸, 측면1칸, 홑처마 맞배지붕 와가
 - 나. 주요특징
 - 강당은 송학서원 내 건물중 유일하게 원형이 보존된 건물이나 특별한 양식이나 건축적 기교는 없으며, 가운데 2칸을 대청으로 하고 양 협칸에 방을 꾸민 일반적인 서원(강당)의 형태다.
 - 동·서재, 관리사, 사당은 1990년대와 2010년에 각각 복원한 건물로 서원의 일반적인 양식이다.
7. 연혁 및 수리기록
 - <연혁>
 - 숙종 28년(1702, 壬午年)에 청송지역 유림들의 건원에 의해 초창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청송향교지(2010년, 청송향교 발행) 송학서원 편에 의하면 서기 1726년(영조 2년)에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여헌 장현광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여 향사를 받들고 원호를 송학서원이라 칭하였다고 하며, 고종 8년(1871년)에 현위치로 이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 서원 철폐령으로 인하여 사당을 철폐하고, 서당으로 격하된 후 강당만 보존되어 오다가 1990년대 강당을 중수하고, 동·서재를 건립하였다.

- 1896년 병신창의 당시 청송의병의 지휘부가 감은리 전투를 앞두고 회의를 한 장소로 '적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수리기록>

- 1993년 강당 해체보수
- 1995년 동·서재 건립
- 2010년 사당 건립

8. 문화재보존여건

가.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송학서원 현판이 걸린 강당 건물을 제외한 동·서재, 삼문, 사당은 1990년대 복원되었으며, 복원된 건물의 고품은 알 수 없다.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대부분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강당은 기와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일부 진행중이다.

나.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송학서원은 인근에 경상북도지정 민속자료 제51호인 '방호정'과 유형문화재 제277호인 '금대정사'가 있어 문화유산 연계도가 높으며, 주변에 백석탄과 신성계곡 등 유명한 유원지가 산재해 있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도가 높다.

다.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에 동의함

9. 조사자 의견

<문화재위원 ○○○(조경계획)>

- 송학서원은 고종때 서원철폐령으로 서당으로 강등되었다가 근래 다시 복원한 것으로 건축적 의미보다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건 및 인물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적원일기에 의하면 청송으로 올라오는 대구관군의 감은리 전투를 앞두고 청송의진 지휘부가 전투에 대비해 회의를 했던 장소로 의미 부여가 되겠지만 하룻밤 회의 혹은 묵은 장소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많으므로 좀 더 조사하여 꼭 필요한 서원을 선별적으로 지정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서원내에는 송학서원 강당, 동·서재, 사당, 외삼문, 주사 등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靑松郷校誌에 의하면 “1993년 서당을 해체하여 서원으로 복원하고, 청송군의 지원으로 1995년에 동서재를 복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건축적 형식으로 보건대 전국의 향교·서원의 건축물에 비하여 역사적 보존의 가치가 높지않다고 판단된다.
- 항일관련 유적으로서의 의미는, 적원일기(赤猿日記) 1896년 5월 19일(음력)에 “문거역(文居驛)에서 점심을 먹고 또 송학서당으로 이진하니...”로 기록하고 있는 바

의성의진을 치고 청송으로 올라오는 대구관군과 감은리전투를 앞두고 청송의진 지휘부가 송학서당에서 전투를 대비해 회의를 한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

- 항일유적을 근대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항일의병의 시작, 확대, 전개를 고려한다면, 상기 송학서원과 같이 의병의 이동 및 회의 등을 행한 유적등의 기록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고 중요도를 검토하여 차별화된 근대문화재 등록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상기 송학서원은 전국적인 항일의병의 활동을 고려한다면, 항일의병과 관련된 상징성 및 장소의 진정성이 높지 않아 상대적으로 문화재 등록의 의미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학예실장 ○○○(독립운동사)>

- 송학서당은 1896년 3월 12일 창의한 청송의진이 머물렀던 곳이다. 관련된 기록은 “적원일기”에 보인다. “3월 28일(양력 5월 10일) 문거역에서 점심을 먹고 또 송학서당으로 이진하니 서당의 노소가 모두 모였다.” 또 “4월 초2일(양력 5월 14일) 본읍의 현북 속곡으로 이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청송의진은 그 사이(양력 5월 10일~14일) 며칠을 이곳 송학서당에 머무른 것으로 추정된다.
-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확인되나 각 지역에서 일어난 전기의병이 전투과정에서 진을 옮겨 머무르는 경우는 빈번하다. 그러므로 추후 다른 지역 조사를 거쳐, 보다 많은 사례들을 검토한 후 문화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청송 부강서당 조사보고서('12.3.29)

1. 명 칭 : (현)부강서당 (구)당약서당, 부강서원
2. 용 도 : (현)서당 (원)서당
3. 소재지 :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평리 213-1
4. 소유자 : 부강서당
 - 현소유자 주소 :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평리 336(대표자의 주소임)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와가
- 준공일 : 1837년 초창
- 대지면적 : 543m²
- 건축면적 : 측량중
- 층수(높이) : 단층

6. 구조 및 양식

가. 건축양식

- 정면4칸·측면3칸, 홑처마 팔작지붕 와가

나. 주요특징

- 정면4칸, 측면3칸의 5량가 팔작지붕인 강당만 남아있다. 기단은 사고석 2-3단으로 마련하고, 그 위에 원형초석을 놓아 원기둥을 세웠다. 대청마루에는 사분합 띠살창호를 설치하고, 좌측방 배면 상부에는 벼락닫이창을 달아두었다. 좌우 방 상부천정은 종이반자를 설치하였다.

7. 연혁 및 수리기록

<연혁>

- 부강서당은 이상정, 김종덕, 유치명 세분 선생의 위패를 배향하기 위해 1837년 최초 창건하였으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강당만 남아 서당으로 강등되었다.
- 당초 부동면 지리에 있었으나, 지표수가 대지 내에 용출되어 유적 보존에 적절치 않고, 청송의병 선열 82위의 위패를 모시는데 적절치 않다고 하여, 길지를 찾아 현 위치로 2004년에 이관하였으며, 항일의병기념관(2011년 준공) 사당에 의병선열의 위패를 모시기 전까지 이곳 부강서당에 의병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었다.
- 1896년 병신창의 당시 청송의병의 지휘부가 감은리 전투를 앞두고 청송의진의 상영이 하루를 숙소로 정했다고 '적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회의를 한 장소로 '적원일기'에 기록되어 있다.

<수리기록>

- 2004년 현위치 이관

8. 문화재보존여건

가.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대부분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나.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부강서당은 청송의병 전적지인 꽃밭등(花田嶺)전투지 인근에 있으며, 2011년 유교 문화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항일의병기념공원과 매우 근거리에 있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도가 높다.

다.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에 동의함

9. 조사자 의견

<문화재위원 ○○○(조경계획)>

- 청송의진 지휘부가 전투에 대비해 하룻밤 유숙하며 회의를 했던 장소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나 예전에 마평의 당약서당자리는 침수 위기가 있어 부강서당으로 이름을 바꾸고 상평리 현 위치로 2004년 이전되었으므로 건축물과 역사적 장소성을 고려한다면 등록문화재로서 미흡하다고 판단됨. 원래 마평의 당약서당으로 그 자리에 두었더라면 항일투쟁의 역사적 의미가 더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부강서당은 상평 마을내 정면4칸, 측면3칸의 5량가 팔작지붕인 강당만 남아있다. 기단은 사고석 2-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위에 원형초석을 놓아 원기둥을 세웠다. 靑松鄕校誌에 의하면, 부강서당은 마평(마뜰)에 강당만 남아 폐가 직전이라 유적 보존차원에서 2004년 3월 府東面 上坪里 현재의 장소로 이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건축적 형식으로 보건대 전국의 향교·서원의 건축물에 비하여 역사적 보존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 항일관련 유적으로서의 의미는, 적원일기(赤猿日記) 1896년 5월 7일에 “청송의병 상영의 유숙소로 사용...”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바 의성의진을 치고 청송으로 올라오는 대구관군과 감은리전투를 앞두고 청송의진 지휘부가 유숙한 마평의 당약서당이 현재 상평의 부강서당이다. 당초 부강서당은 부동면 지리에 있었으나 지표수가 대지 내에 용출되어 유적 보존에 적절치 않고, 청송의병 선열 82位の 위패를 모시는데 적절치 않다고 하여 현 위치로 2004년에 이군하였으며, 항일의병기념관(2011년 준공) 사당에 의병선열의 위패를 모시기 전까지 이곳 부강서당에 의병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었다.
- 항일유적을 근대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항일의병의 시작, 확대, 전개를 고려한다면, 상기 송학서원과 같이 의병의 이동 및 회의 등을 행한 유적등의 기록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고 중요도를 검토하여 차별화된 근대문화재 등록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강서당은 특히 화전등(花田嶺) 항일의병기념공원과 인접하여 있어 항일의병의

산교육장으로 활용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현재 상평에 있는 부강서당은 기록상의 마평에 있었던 당약서당과 실질적으로 상이한 장소이며, 건축물 또한 2004년 이건되어 ‘마평’과 ‘유숙장소’로서의 장소의 진정성이 없는 바 상대적으로 문화재 등록의 의미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학예실장 ○○○(독립운동사)>

- 부강서당은 1896년 3월 12일 창의한 청송의진의 상영이 3월 25일(양력 5월 7일) 숙소로 정하였던 곳이다. 관련된 기록은 “적원일기”에 보인다. “3월 25일 상영은 당약서당(堂約書堂)에 숙소를 정하고, 각 영은 점막에 숙소를 정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당약서당은 현재의 부강서당이다.
-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확인되나 각 지역에서 일어난 전기의병이 전투과정에서 진을 옮겨 머무르는 경우는 빈번하다. 그러므로 추후 다른 지역 조사를 거쳐, 보다 많은 사례들을 검토 한 뒤 문화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건물은 원래의 자리에서 현 위치로 2004년에 이건하여 현장성마저 떨어진다.

청송 소류정 조사보고서('12.3.29)

1. 명 칭 : (현)소류정 (구)소류정
2. 용 도 : (현)정자 (원)정자
3. 소재지 : 경북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 121
4. 소유자 : 장옥순
 - 현소유자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40-17번지(☎053-565-1950)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와가
 - 준공일 : 1896년 초창
 - 대지면적 : 612m²
 - 건축면적 : 측량중
 - 층수(높이) : 단층
6. 구조 및 양식
 - 가. 건축양식
 - 정면2칸·측면2칸, 홑처마 팔작지붕 와가
 - 나. 주요특징
 - 정면2칸, 측면2칸의 5량가 팔작지붕집으로 뒷마루 전면에는 사분합문을 설치하여 폐쇄적인 구조를 갖췄다. 두방의 가운데에는 미서기문을 설치하여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 특별한 장식이나 건축적 기교는 없으나, 정면 3칸의 단아한 모습은 당시 청송지방 정자건축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
7. 연혁 및 수리기록
 - <연혁>
 - 1896년 소류 심성지 선생이 초창하였으며, 청송의병대장 심성지 선생이 은거하며 강습지소로 사용하던 정자이다.
 - 소류 심성지 선생은 병신창의 당시 상황을 난중일기인 '적원일기(赤猿日記)'를 통하여 기록하였으며,
 - 이 적원일기는 현재 후손인 심봉섭(현 소류정 소유자의 자, 소류 심성지의 5대손)이 보관하고 있다.
 - <수리기록>
 - 1997년 해체 보수
 - 2002년 담장 및 협문 설치
8. 문화재보존여건
 - 가.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97년 노후 퇴락된 소류정을 원형대로 중수하였으며, 변형된 부분은 없으며, 보존관리상태는 양호함

나.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주변에 중요민속문화재 제250호인 ‘송소고택’과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21호인 ‘청송초전대’를 비롯하여 20여개 이상의 고가옥이 보존되어 있어 민속마을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 주변의 지정문화재와 비지정 고가옥에서는 한옥숙박체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인근 문화유산과 연계 등 활용가치가 높음

다.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에 동의함

9. 조사자 의견

<문화재위원 ○○○(조경계획)>

- 소류 심성지선생은 청송지역 의병대장으로 감은리전투 등지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말년에 이 곳에서 은거하면서 후학을 기르시고 강습지소로 상용하던 곳이며 이 곳에서 생을 마친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의진의 활동을 일기식으로 기록한 적원일기도 심봉섭 주손이 소장하고 있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소류정은 정면2칸, 측면2칸의 팔작지붕집으로 뒷마루와 사분합문을 설치하고 있다. 소류정은 1997년 해체·보수하였으며, 2002년 담장 및 헐문 설치하였다.
- 항일관련 유적으로서의 의미는, 1896년 병신창의(丙申倡義) 당시 청송지역 의병대장으로 추대되어 감은리 전투 등에 참여한 少流 沈誠之 선생이 감은리 전투 이후 은거하면서 1904년 별세하기까지 말년에 후학을 가르치면서 강습지소로 사용하던 곳이다. 특히 심성지의 후손인 심봉섭이 소장하고 있던 「적원일기(赤猿日記)」에 의해 의병활동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청송지역 의병활동의 상징적 인물의 주 은거지로서 의미있는 장소로 판단됩니다.
- 전국의 항일유적을 근대문화재로 등록은 인물과 관련된 상징성, 장소의 진정성 그리고 청송지역의 의병활동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적원일기(赤猿日記)」를 소장하고 있던 심봉섭과 관련된 점 등을 고려한다면, 근대문화재로 등록하여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학예실장 ○○○(독립운동사)>

- 소류정은 소류 심성지의 강습장소로 사용하던 정자로 알려진다. 심성지는 1896년 3월 청송에서 창의를 하고 대장으로 활약하였고, 또한 그의 아들 심능찬도 그를 도와 청송의진의 군관으로 활약하였다. 심성지는 당시 청송의진의 상황을 기록한 ‘적원일기(赤猿日記)’를 남겼는데 이는 중요한 의병일기이다. 나라에서는 이들의 공훈을 기려 각각 건국훈장 애족장,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소류정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사료된다.

청송 허훈 종가(재실) 조사보고서('12.3.29)

1. 명 칭 : (현)남덕정 (구)남덕정
2. 용 도 : (현)재실 (원)정자
3. 소재지 :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괴정리 327-1번지 외1
4. 소유자 : (사)허방산선생기념사업회
 - 현소유자 주소 : 대구시 남구 대명5동 208-4

5. 건축물 개요

- 건축구조 : 목조와가
- 준공일 : 미상
- 대지면적 : 1,036㎡
- 건축면적 : 112.91㎡
- 층수(높이) : 단층

6. 구조 및 양식

가. 건축양식

- 목조와가

나. 주요특징

- 정면4칸, 측면1.5칸의 5량가 팔작지붕집으로 가운데 2칸의 대청 전면에는 유리문을 설치하였으며, 종도리장혀의 상량 목서로 볼때 1977년 건축된 건물로 짐작된다.
- 대문채 정면에 남덕정(覽德亭)이라는 현판이 달려 있고, 특별한 장식이나 건축적 기교는 없으나, 사고석 기단을 높게 쌓아 전체적으로 웅장한 느낌으로 표현하였다.

7. 연혁 및 수리기록

<연혁>

- 정확한 건립년대를 알수 없으나, 디지털구미대전의 자료에 의하면,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던 해 토지 3천 두락을 팔아 두 아우인 선산 허겸과 왕산 허위의 의병활동자금으로 쾌히 내어주고 청송 비봉산 아래로 이주하였고, 그곳에서 '남덕정'을 짓고 살면서 동생들에게 "진심갈력하여 위난할 때 보국하라"고 편지로 독려했다는 내용으로 볼 때 초창년도는 1900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수리기록>

- 1977년 중건

8. 문화재보존여건

가.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현재의 건물은 다른 가옥의 목부재를 재사용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 중건 이전의 원형을 알기 어렵다.
- 1977년 중건 이후 수리한 이력이 없으나 주요 구조부의 가구 상태 등은 대체로 양호하다.

나. 보존·활용 여건 및 주변환경

- 동해바다(영덕군 등)로 가는 국도 34호선 변에 위치하며, 청송군립야생미술관, 괴정리산촌체험마을 등이 주변에 있어 인근 관광·문화자원과 연계 등 활용가치가 있음
- 전면에 방산 허훈의 묘도비가 있고, 남덕정을 남향하여 약 200m 이격된 산록에 허훈의 묘소가 있다.

다. 소유자(관리자) 의견(동의/부동의 등)

- 문화재로 등록되는 것에 동의함

9. 조사자 의견

<문화재위원 ○○○(조경계획)>

- 허훈종가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명칭을 남덕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방산 허훈은 퇴계학파를 계승한 성리학자이며 진보의진 의병대장으로 활동한 역사적 인물이라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방산 허훈 선생은 남덕정에서 거주하다가 1907년에 사망하여 이 곳 남쪽 산에 묘소가 있으며 원래의 건물은 소실되어 빈터로 있다가 허씨 문중에서 1977년 신축한 건물이다. 그러나 이 터가 확실한 허훈 선생이 기거했는지에 대한 기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문화재전문위원 ○○○(건축사)>

- 허훈종가는 정면4칸, 측면1.5칸의 팔작지붕집으로 대청 전면에 유리문을 설치하였으며, 종도리 상량 목서(丁巳七月二十九日壬申未時立柱上樑)로 볼 때 1977년 건축된 건물로 짐작된다. 대문채에 남덕정(覽德亭)이라는 현판이 달려 있고, 허훈종가는 사고석 기단을 높게 쌓고 고재를 재활용하여 건축한 건축물이다. 인접하여 묘도비와 묘소가 있다.
- 항일관련 유적으로서의 의미는, 1894년 동학혁명 이후 두 아우인 성산 허겸과 왕산 허위의 의병활동자금으로 토지 3,000두락을 팔아 내어주고 청송 비봉산 아래로 이주하여, 남덕정을 짓고 살면서 후일 진보의장의 창의장(적원일기(赤猿日記), 1896년 음 2월 25일)으로 활동한 방산 허훈 관련 유적이다. 현재의 가옥은 방산 허훈이 청송 비봉산 아래로 이거하면서 가옥과 함께 지은 정자터에 후손들이 다시 지은 추모 재실(원래의 건물들은 모두 불타 없어짐)이다.
- 근대문화재 등록신청을 한 현 허훈종가는, 진보의장의 창의장(적원일기(赤猿日記), 1896년 음 2월 25일)으로 활동한 방산 허훈 관련 유적으로서 상징성은 있으나, 현재의 가옥은 1977년 후손들이 다시 지은 추모 재실로서 방산 허훈이 청송 비봉산 아래로 이거하면서 가옥과 함께 지은 정자터로서 장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통하여 장소의 정확성에 대해 근거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학예실장 ○○○(독립운동사)>

- 허훈종가로 알려진 건물은 중건이전의 원형을 알기 어렵고, 허훈이 실제 살았던 집으로 볼 수 있는 자료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추후 충분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사료된다.

보 고 사 항

【보고사항】

안건번호 근대2012-02-010

10. 등록 제330호 「부산 정란각」 보수정비 계획

가. 보고사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소재 등록 제330호 「부산 정란각」 보수정비 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문화재 현황

-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010번지
- 건축물 : 대지 660㎡, 본동 332.76㎡, 부속건물 272.62㎡, 일식목조기와 2층
- 건립연도 : 1939년
- 소유현황 : 문화재청
- 등록일 : 2007.07.03

다. 추진경과

- '10.07.14 : 부산시 매입요청
- '10.12.22 : 부산 정란각 매입(정책총괄과, 국비 : 1,321,639,720원)
- '11.04.20 : 관리단체 지정(문화유산국민신탁)
- '12.03.20 : 부산 정란각 보수정비 자문회의
 - 자문위원 : 부산대 이호열교수, 동아대 김기수 교수
 - 자문내용
 - 본 건물에 어울리지 않게 식당 운영 시 증축된 콘크리트 건물 철거
 - 건물 동측과 배면의 복원은 해체공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과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검토하여 추후 설계에 반영
 - 노약자 경사로는 담장부 철거 후 설치여부를 검토
 - 해체 공사시 각 단계별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

라.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2.06~12월
- 사업주체 : 부산시 동구청(국비보조사업)
- 사업비 : 693,000천원(국비 346,500천원, 지방비 346,500천원)
- 사업내용
 - 기존 무허가 콘크리트 건물 철거 286.52m²
 - 건물 배면 및 동측 복원 74.83m²
 - 지붕해체보수 1식
 - 외곽담장 철거 및 설치 1식
 - 정원정비 1식 등

마. 향후계획

- 2012.05 : 설계용역 완료
- 2012.06 : 공사발주
- 2012.12 : 공사준공

바. 보고결과 : 원안접수

11. 등록 제145호 「남지철교」 보수정비 추진현황

가. 보고사항

경남 창원군 소재 등록 제145호 「남지철교」 보수정비 추진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문화재 현황

- 소재지 : 경남 창원군 남지읍 남지리 961번지 외 3필지
- 시설규모 : 길이 391.4m, 폭 6.0m, 철골조
- 건립연도 : 1931년 6월 9일 기공, 1933년 개통
- 소유자 : 창원군
- 등록일 : 2004.12.31

다. 추진경과

- '11.08.22 : 교각 기초보강공사 중 교량 상판의 침하(32cm) 발생
- '11.08.24 : 현지 자문회의 개최(우리청)
- '11.09.23 : 자문회의 개최(수자원공사)
- '11.10.12 : 남지철교 보수보강계획 제출(수자원공사)
- '11.11.16 : 정밀안전진단 완료
- '11.11.30 : 실시설계 보완 완료(수자원공사)
- '12.01.26 : 보수보강공사 착수(04.20 완료 예정)

라. 사업내용

- 공사기간 : '12.01.26~04.20
- 공사내용 : 가설벤트 5개소 설치, 기초보강 3개소(P5~7) 및 교량 인상 1개소
- 시행청 : 한국수자원공사
- 공정현황 및 계획
 - '12.01.26 : 가설벤트(5개소) 설치 착수

- '12.03.31 : 교각 기초 보강(P5, 6, 7)
- '12.04.10 : 상판 인상 및 교좌장치 삽입(탄성패드)
- '12.04.20 : 계측시험, 가설벤트 해체 및 공사완료

마. 자문의견

<관계전문가 현지자문('11.08.24)>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당해 문화재 복구는 적법 절차에 따르고,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위원(전문위원 포함)의 자문을 받아 시행토록 함
 - 6번 교각 침하에 따른 상부 깔버보 이음부 탈락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가설 지지대를 우선 설치한 후, 원 상태로 들어올려 보수 보강토록 하고, 수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6번 교각 이외의 교각 기초에 대해서도 조사 후 필요시 보강토록 함.

<관계전문가 현지자문('11.09.23)>

- 문화재위원 ○○○, ○○○, ○○○, 문화재전문위원 ○○○, ○○○
 - 상하부 구조 동시인상은 지반을 그라우팅으로 보강할 경우 기초의 균등 인상이 어려워 상부구조만 인상
 - 가설벤트는 추가하여 균등하게 인상 시공
 - 기존 P5코핑부와 비슷하게 높이를 맞추고 그 위에 탄성패드를 삽입하여 마무리
 - 게르버 교좌장치도 교체 필요
 - 자료를 공유하여 타 현장에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바. 보고결과 : 원안접수

12. 사적 제248호 「대한의원」 관리단체 해제

가. 보고사항

사적 제248호 「대한의원」의 소유자가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확인되어 관리단체를 해제(2011.12.26)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지정번호	지정일	명칭	소유자	사용자	해제되는 관리단체	관리단체 해제일
사적 제248호	'76.11.16	대한의원	서울대학교 병원 ('79.5.18 소유자 변경)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시 종로구 (1995.5.19 지정)	2011.12.26 해제

다. 추진경과

- '10.5.4 : 사적 건축물 관리단체 지정 부적정(감사원 지적)
- '11.2.10 : 사적 관리단체 변경 검토 / 보류
 - 서울대학교 법인화계획에 따라 추후 검토함
- '11.12.15 : 등기부 열람
 - 소유자 변경 : 서울대학교 병원(1979.5.18)

라. 보고결과 : 원안접수

13. 2012년도 근대문화재과 보수정비 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현황

가. 보고사항

2012년도 등록문화재 및 근대사적 문화재보수정비 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1) 사업대상 : 신촌역사 등 68건

○ 사업분류 : 기술지도 사업(7건), 설계검토 사업(59건), 지방위임 사업(2건)

(2) 사업비 : 12,859,789천원(국비 7,112,181천원 / 지방비 5,747,608천원)

○ 최근 5년간 사업비 현황 (단위:천원)

연도	합계	국비	지방비	증감(%)	건수
2008	9,089,280	4,544,640	4,544,640	증 4.5	51건
2009	9,958,280	4,979,140	4,979,140	증 9.6	59건
2010	13,612,043	7,161,450	6,450,593	증 36.6	70건
2011	11,695,571	6,256,500	5,439,071	감 14.0	60건
2012	12,859,789	7,112,181	5,747,608	증 10.0	68건

(3) 사업별 세부내역 : 근대사적 10건, 등록문화재 58건(붙임 참조)

(4) 추진방법

○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각 시·도)에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설계검토 및 중요사업 기술지도 등

○ 지방자치단체 : 지방비 확보 후 사업발주 및 시행 등

○ 부담비율

- 등록문화재 : 국비 50%, 지방비 50%

- 근대사적 : 국비 70%, 지방비 30%

※ 중요사항 등은 사업추진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검토 예정

다. 보고결과 : 원안접수

붙임 : 2012년도 등록문화재 및 근대사적 보수정비 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현황 1부

2012년도 등록문화재 및 근대사적 보수정비 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분류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2년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1	설계검토	서울	종로구	등록 136	신촌역사	역사 보수정비 및 활용	50,000	50,000	100,000
2	설계검토	부산	동구	등록 330	부산 정란각	본동 변형 및 훼손부 복원, 보수 설계	346,500	346,000	693,000
3	설계검토	대구	동구	등록 266	대구 옷골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공사	25,000	25,000	50,000
4	설계검토	대구	중구	등록 252	대구 화교협회	지붕해체 및 내외부 벽체, 담장 보수	120,000	120,000	240,000
5	설계검토	광주	남구	등록 370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윈스브로우 홀	윈스브로우홀 보수	300,000	300,000	600,000
6	설계검토	광주	남구	등록 158	광주 구 수피아여학교 수피아홀	수피아홀 보수	150,000	150,000	300,000
7	설계검토	경기	남양주시	등록 471	남양주 흥국사 대방	대방내부 원형복원 및 석축보수	250,000	250,000	500,000
8	설계검토	경기	남양주시	등록 471	남양주 흥국사 대방	안내판 정비	5,236	5,236	10,472
9	설계검토	경기	남양주시	등록 399	상주의용소방대 소방차	수해피해 보존처리	5,000	5,000	10,000
10	설계검토	경기	남양주시	등록 401	신진 퍼블리카	수해피해 보존처리	5,000	5,000	10,000
11	설계검토	경기	파주시	등록 78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차 보존처리 철도 레인 연장공사 야외전시장 주변 정비	200,000	200,000	400,000
12	설계검토	강원	원주시	등록 140	원주 천주교 대안리공소	건물 보수	75,000	75,000	150,000
13	설계검토	강원	횡성군	등록 163	횡성 풍수원 성당 구 사제관	사제관 내부 계단 및 벽체 보수	25,000	25,000	50,000
14	설계검토	충북	옥천군	등록 7	옥천 삼양리 옥천 천주교회	성당 외벽 도색 및 창호 교체, 수전설비공사	50,000	50,000	100,000
15	설계검토	충북	청원군	등록 411	국산 1호 항공기 '부활'	항공기 외피 교체, 안내판 설치	25,000	25,000	50,000
16	설계검토	충북	청주시	등록 355	청주 동부배수지 제수변실	제수변실 수리 및 지반보강	35,000	35,000	70,000
17	설계검토	충북	청주시	등록 353	충청북도지사 관사	외벽 및 출입문 보수	25,000	25,000	50,000
18	설계검토	충남	공주시	등록 233	공주 중학동 구 선교사가옥	건물 내외부보수	24,000	24,000	48,000
19	설계검토	충남	논산시	등록 10	강경 중앙리 구 남일당한약방	산자이상 해체보수	40,000	40,000	80,000
20	설계검토	충남	논산시	등록 48	연산역 급수탑	녹방지처리 및 도장	6,000	6,000	12,000
21	설계검토	충남	서산시	등록 321	서산 동문동 성당	성당건물보수	250,000	250,000	500,000
22	설계검토	전북	군산시	등록 183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	목공사, 지붕공사	45,000	45,000	90,000
23	설계검토	전북	군산시	등록 374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내부보수, 전기 등 정비	220,000	220,000	440,000
24	설계검토	전북	김제시	등록 186	김제 구 백구 금융조합	조합 건물 보수	50,000	50,000	100,000

연번	사업분류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2년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25	설계검토	전북	김제시	등록 219	김제 신흥동 손효성 가옥	지붕 보수	15,000	15,000	30,000
26	설계검토	전북	무주군	등록 262	무주 지전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70,000	70,000	140,000
27	설계검토	전북	익산시	등록 181	익산 구 익옥수리조합 사무소 및 창고	조합 사무실 정비	60,000	60,000	120,000
28	설계검토	전북	익산시	등록 263	익산 함라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50,000	50,000	100,000
29	설계검토	전북	익산시	등록 210	익산 춘포역사	춘포역사 보수	100,000	100,000	200,000
30	설계검토	전북	익산시	등록 211	익산 춘포리 구 일본인농장 가옥	벽체보수, 굴뚝보수	7,500	7,500	15,000
31	설계검토	전북	장수군	등록 189	장수천주교회 수분 공소	교회 보수	100,000	100,000	200,000
32	설계검토	전북	정읍시	등록 366	정읍 상학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35,000	35,000	70,000
33	설계검토	전남	강진군	등록 264	강진 병영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100,000	100,000	200,000
34	설계검토	전남	광양시	등록 223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사 보수	40,000	40,000	80,000
35	설계검토	전남	담양군	등록 265	담양 창평 삼지천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25,000	25,000	50,000
36	설계검토	전남	목포시	등록 239	구 목포사범학교 본관	내부개선, 전기 등 보수	190,000	190,000	380,000
37	설계검토	전남	목포시	등록 340	목포 중앙교회 (구 등본원사 목포별원)	건물 보수	50,000	50,000	100,000
38	설계검토	전남	순천시	등록 128	원창역사	역사 보수	35,000	35,000	70,000
39	설계검토	전남	신안군	등록 282	흑산도 사리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100,000	100,000	200,000
40	설계검토	전남	신안군	등록 283	비금도 내촌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100,000	100,000	200,000
41	설계검토	전남	여수시	등록 32	여수 애양교회	외벽보강 및 내부 보수	80,000	80,000	160,000
42	설계검토	전남	영암군	등록 368	영암 죽정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50,000	50,000	100,000
43	설계검토	전남	함평군	등록 117	함평 천주교회	교회 보수	80,000	80,000	160,000
44	설계검토	경북	영덕군	등록 288	영덕 송천예배당	예배당 보수정비	25,000	25,000	50,000
45	설계검토	경북	영천시	등록 253	영천 과전동 성용환 가옥	가옥(2층) 보수	60,000	60,000	120,000
46	설계검토	경남	거창군	등록 259	거창 황산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40,000	40,000	80,000
47	설계검토	경남	거창군	등록 147	거창 경덕재	아궁이, 마루 보수	16,000	16,000	32,000
48	설계검토	경남	고성군	등록 258	고성 학동마을 옛 담장	훼손부분 보수정비	50,000	50,000	100,000
49	설계검토	경남	산청군	등록 281	산청 남사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40,000	40,000	80,000
50	설계검토	경남	산청군	등록 281	산청 남사마을 옛 담장	사주문 보수	19,000	19,000	38,000
51	설계검토	경남	산청군	등록 260	산청 단계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18,000	18,000	36,000

연번	사업분류	시도	소재지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2012년도 예산		
							국비	지방비	계
52	설계검토	경남	의령군	등록 365	의령 오운마을 옛 담장	담장 보수	50,000	50,000	100,000
53	설계검토	경남	진주시	등록 35	진주 문산성당	지붕 및 창호 보수	50,000	50,000	100,000
54	설계검토	경남	진주시	등록 153	진주 하촌동 납인수 생가	안채 보수	63,945	63,945	127,890
55	설계검토	경남	통영시	등록 149	구 통영군청	건물구조보강 및 보수	500,000	500,000	1,000,000
56	설계검토	경남	함양군	등록 37	함양 구 임업시험장 하동 함양지장	출입문 복원정비	5,000	5,000	10,000
57	설계검토	제주	제주시	등록 113	제주 이승만 별장	별장 보수	123,000	123,000	246,000
58	지방위임	제주	제주시	등록 308	제주 가마오름 일제 동굴진지	안전 진단	50,000	50,000	100,000
59	기술지도	서울	서대문구	사적 32	독립문	보존처리 및 구조체 보수	350,000	150,000	500,000
60	기술지도	서울	성북구	사적 285	고려대학교 본관	지붕보수, 슬래브 보수·보강, 창호교체	700,000	300,000	1,000,000
61	설계검토	서울	종로구	사적 248	대한의원	건축구조보강, 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304,500	130,500	435,000
62	기술지도	서울	종로구	사적 497	이화장	본관, 본관 배면 석축, 담장 보수정비	340,000	145,714	485,714
63	기술지도	서울	종로구	사적 279	구공업전습소본관	구공업전습소본관 보수	175,000	75,000	250,000
64	지방위임	서울	종로구	사적 438	안국동윤보선가	건물인접지 수목정비, 안채 추녀부 해충피해보수	70,000	30,000	100,000
65	기술지도	서울	종로구	사적 438	안국동윤보선가	행랑채, 안사랑채 보수	105,000	45,000	150,000
66	설계검토	서울	중구	사적 157	환구단	조경공사, 경관조명공사, 석공사	126,000	54,000	180,000
67	기술지도	대구	중구	사적 442	구대구의학전문 학교본관	본관외벽, 옥상방수, 설계 및 감리비	110,000	47,142	157,142
68	기술지도	경남	창원시	사적 291	진해우체국	지붕보수, 외부도장, 내부널마루 및 창틀보수	107,500	46,071	153,571

14. 문화재위원회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기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 (1) 사업명 : 문화재위원회 50주년 기념사업
- (2) 사업목적
 - 문화재위원회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 등 논의 계기 마련
 - 문화재위원회 역할 및 성과의 대국민 홍보, 문화재위원들의 자긍심 고취
- (3) 사업기간 : 2012~2013년
- (4) 사업내용
 -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기념 워크숍
 - 50주년 기념식 및 원로에게서 듣는 문화재위원회 50년
 - (가칭)‘문화재위원회가 없었다면’ 책자 발간
 -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DB화
- (5)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워크숍 계획(안)
 - 일자 : 2012.6.7(목)
 - 장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및 DMZ 지역
 - 참석자 : 문화재위원(11명), 전문위원(17명), 외부전문가(2~3명) 초청
 - 추진일정(안)
 - 문화재위원회 근대분과 제3차회의 (10:00~11:00)
 - 워크숍 (11:00~12:00)/ 위원, 전문위원, 초청 외부 전문가
 - 오찬 (12:00~13:00) 및 현장방문 (13:00~18:00)

다. 보고결과 : 원안접수

붙임 : 문화재위원회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1부.

문화재위원회 50주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I 추진목적

- 문화재위원회 발족 50주년 기념행사 개최로 문화재위원회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고 위원회 운영 개선 방향 등 논의 계기 마련
- 문화재위원회 역할 및 성과의 대국민 홍보 및 위원으로서의 자긍심 제고

II 사업내용

1.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기념 워크숍

- 목 적 : 각 분과별 성과 및 개선방안, 문화재 유형별 보존·활용 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
- 추진방향
 - 문화재위원회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대토론의 장으로 추진
 - 분과위원장단 워크숍을 별도 개최, 각 분과별 토론 결과를 취합·정리하여 문화재위원회 정책제안으로 제출 * 분과위원장단 워크숍 개최(6월)
- 일자/장소 : 2012. 3월~5월 / 각 분과별로 선정
- 참석대상 : 각 분과별(9개) 문화재위원, 원로위원, 전문위원, 우리 청 직원
- 토론주제 : 다음 사항을 포함 분과별 특성에 맞는 주제 선정
 - 각 분과별 위원회 운영 성과 및 과제, 향후 운영 개선 방안
 - 유형별 문화재 보존·활용 정책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등

2. '50주년 기념식' 및 '원로에게서 듣는 문화재위원회 50년' 개최

- 목 적 : 문화재위원회 50주년 축하 및 위원회 역할·성과의 대국민 홍보
- 추진방향
 - 전·현직 문화재위원이 참여하여 50주년을 축하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
 - 원로 문화재위원의 회고를 통해 문화재 보존의식이 전승되도록 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헤리티지 채널을 통해 방영

- 일자/장소 : 2012.4.30(월) 10:00~16:00/ 한국의 집
- 참석대상 : 전·현직 문화재위원장, 내·외 귀빈, 분과 운영진 등
- 행사내용 : 축하공연, 기념식, 오찬, 원로와의 대화(4~5명)
 - 기념식 후 3~5명을 별도 선정, 회고를 동영상으로 기록할 계획

3. (가칭)‘문화재위원회가 없었다면’ 책자 발간

- 목적 : 위원회 발족이후 문화재 보존사에 큰 영향을 미친 명심의 소개를 통해 문화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문화재 보존의식 고취
- 편집방향
 - 전·현직 문화재위원 등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운영
 -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친 명심과의 관련 에피소드를 흥미롭게 구성
- 발간 예정일 : 2012. 12월
- 책자구성(안)
 - 문화재위원회 소개(역사, 구성, 역할 등)
 - 문화재위원회 명심의 20여건의 사건 배경, 심의 결과, 에피소드, 심의가 없었을 경우 결과 예측 등을 글, 사진 및 삽화로 흥미롭게 구성

4.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DB화

- 목 적
 -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초 자료인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DB화로 유산별 보존 관리 연혁 등을 관리하고,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
 - 일반 국민, 전공자에게 주제별, 문화재별로 회의내용과 결과를 제공, 국민 알권리 충족 및 관련분야 연구 성과를 증대
- 추진방향
 - 관련 자료의 방대함을 감안하여 2개년 사업으로 추진
 - 문화재정보화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자료의 효용성을 증대
- 사업기간 : 2012~2013년(2개년)
- 사업내용 : 한글 파일화(DB화) 및 국민자료 제공(홈페이지)
 - (1차년도) PDF 변환 및 목록화, 내부 업무참고용 DB화 및 내부망 게시

- (2차년도) 한글 파일화, 일반공개용 DB변환 및 우리 청 홈페이지 공개
- DB화 대상 : '62~'11년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약 8만페이지 *2011 회의록은 정리중

연 대	1962~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1	계
페이지	963	4,888	12,707	46,966	13,720	79,244

III 추진일정

- 3~5월 : 분과별 워크숍 개최, 결과물 제출(5~6월)
- 4.16(월) : 기념식, 원로에게서 듣는 문화재위원회
- 6월 : 분과위원장 워크숍(특별좌담회)
- 4~10월 : 원로·전직위원 회고 동영상 촬영(헤리티지 채널 방영)
- 12월 : (가칭) 문화재위원회가 없었더라면 책 발간
- 12월 : 위원회 DB자료 전자행정(내부) 공유 *2013년 외부공개 추진